2025.01 — 2025.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SELECTION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

17th
올해의신작

백서

창작아님

신작의발견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분야(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올해의신작〉, 동시대성·다양성을 갖춘 작품과 창작자 발굴을 위한
〈대본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연극

기존의 인형들 : 인형의 텍스트 조음기관 008

벼개가 된 사나히 여성국극제작소 012

목련풍선 윤무아 016

저수지의 인어 극단 달팽이주파수 020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The Camellia Bakery) 프로덕션IDA 024

구미식 극단 돌파구 028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보편적극단 032

연극 분야 비평 036

무용

당신을 배송합니다 백주희 080

녕(寧), 왕자의 길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 084

GRAVITY 류장현과 친구들 088

피안의 여행자들 99아트컴퍼니 092

로망(Roman)노망(老妄) 99아트컴퍼니 096

갓세렝게티 (God : Serengeti) 와이즈발레단 100

TIME IS SPACE SPACE IS TIME 언노운피에스 UNKNOWNPS 104

무용 분야 비평 108

창작뮤지컬

무명호걸(無名豪傑) ㈜주다컬쳐 044

오셀로의 재심 컬쳐인컴퍼니 048

그해 여름 ㈜콘텐츠플래닝 052

넬리블라이 주식회사 프로젝트구점일 056

라파치니의 정원 스튜디오선데이 060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극단 오징어 064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라이브(주) 068

창작뮤지컬 분야 비평 072

음악

사라지네 아트그룹포네 114

공기에 관하여 정진희(그레이코드, 지인) 118

음악 분야 비평 122

창작오페라

윙키 디아뜨소사이어티 128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 한음오페라단 132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 아트팜엘케이 (Art Farm LK) 136

창작오페라 분야 비평 144

전통예술

해원해줄게요: REMASTER 2N제곱 150

남도 선소리 – 시를 읊다 〈님이 침묵한 까닭?〉 중中머리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정컴퍼니(서의철가단) 154

구라철사금(歐羅鐵絲琴) : 打 윤은화 158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 '돈의 신 : 神' 우리소리 바라지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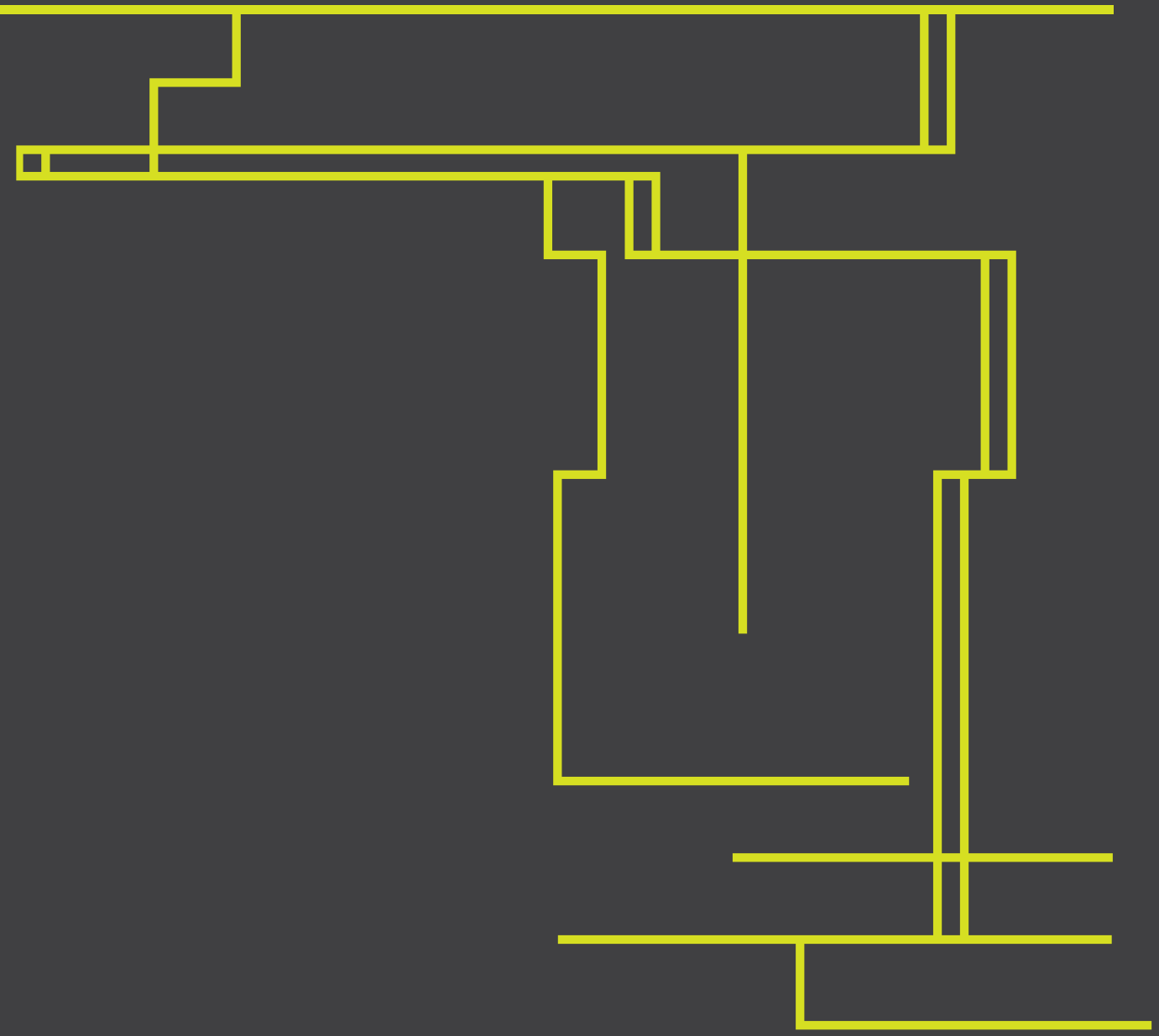
연희물리학 ver.1 '원' 임영호 166

전통예술 분야 비평 170

장르별 역대 선정작

장르별 역대 선정작 174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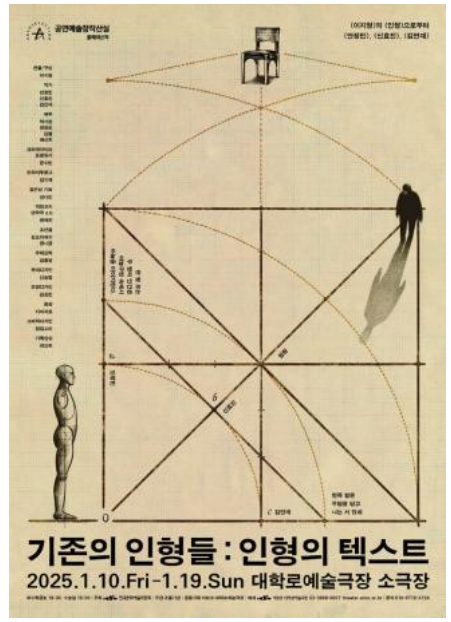


조음기관

기존의 인형들 : 인형의 텍스트

일시	2025년 1월 10일(금) ~ 19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19세 이상
티켓	전석 4만원

연출/구성	이지형	컴퍼니 매니저	김민주
작가	안정민, 신효진, 김연재	무대감독	김동영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문수빈	무대디자인	신승렬
드라마터그	김지혜	조명디자인	김효민
조연출	김조이혜수, 정나금	음향	지미세르
접근성 기획	성다인	그래픽디자인	정김소리
액팅코치(단만극a,b)	황혜란	기록영상	최강희
조연출	김조이혜수, 정나금	영상감독	황호규



인형으로부터 시작된 세 편의 단막극: 인형작업자 (이지형)의 (인형)으로부터 작가 (안정민), (신효진),(김연재)

기존의 인형들은 인형작업자가 마주하고 있는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인형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는지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기존의 인형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에게 글의 시작점에 인형을 던져놓음으로써, 인형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세 명의 작가와 인형작업자가 서로 주고받은 창작의 과정 속에서 완성된 세 편의 단막극은 인형의 한계로부터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 단막극]

1.안정민 作 < 한 명 또는 두 명의 인간은 바늘구멍 속에서 바늘을 이야기한다.>

2.신효진 作 <범람>

3.김연재 作 < 한쪽 발은 무덤을 딛고 서 있네>

조음기관

<조음기관 인형 작업에 관한 선언문>

1. 인간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2. 인형의 본질은 온전한 죽음을 의미한다.
3. 오브제와 인형은 배우와 동일한 등장인물, 즉 배우이다.
4. '연극의 전환수', '인형의 조종자'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5. 하나의 배우 자체가 독립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여러 개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관객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개체이다.
7. 인간이 내린 인형의 정의가 아닌, 인형 자체로 독립적인 정의에 대해 탐구한다.
8. 인형 자체의 한계(구조적, 태생적)를 인정하고 무대에서의 새로운 접근법을 탐구한다.

접근성 스태프 박하늘

인터뷰

연출 이지형

희곡에 앞서 인형과 무대를 먼저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연출이기 전에 인형작업자로 작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기존 여타 공연들에서의 인형의 쓰임과 활용에 아쉽고 서운한 지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인형이 보다 공연에서 본질적인 요소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공연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인형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공연의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기존의 인형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인형들〉은 '인형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형이 낯선 인물 또는 소품이나 오브제로 등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배우와 동등한 등장인물, 인형 배우로 무대에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인형들〉은 보통의 공연들과 다른 출발 지점을 갖습니다. 보통의 공연이 연출의 질문이나 작가의 글에서 시작된다면, 〈기존의 인형들〉은 공연의 시작점에 인형을 던져놓음으로써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인형의 텍스트'는 안정민, 신효진, 김연재, 세 명의 작가들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형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전달받는 순간, 인형과 인형작업자가 제안하는 인형의 개념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형의 생김새, 구조, 분해되고 재조립이 가능한 인형을 보면서 작가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세 편의 단막극을 기록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전작들과 달리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형으로부터 세 편의 단막극이지만 하나의 공연으로 엮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기존의 인형들〉은 독립된 단막극으로 나열된 구조였다면, 이번 '인형의 텍스트'에서는 독립된 세 편의 단막극이지만 인형과 무대 그리고 공간(극장)의 활용과 형식으로 하나의 흐름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는 연출이자 인형작업자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배우, 드라마터그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연결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주요 오브제이자 출발점이 된 작품 속 인형들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 이 인형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하게 됐나요?

이번 공연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앞선 〈기존의 인형들〉 프로젝트(2018, 2021, 2022)에 등장한 이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형들〉에서 인형작업자가 제안하는 인형은 지속 가능한 인형입니다. 보통의 공연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그 공연의 어떠한 인물을 위해서만 제작되고 무대에 오릅니다. 이런 과정에 인형은 보통 해당 공연이 종료되면 보관 또는 폐기의 수순을 거칩니다. 하지만 조음기관이 제안하는 인형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인간 배우가 재연과 현존을 오가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형태의 중심에는 분해, 조립이 가능한 인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변형과 다른 인형들과의 호환도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개선된 인형들은 온전한 신체와 분해, 생략된 신체 그리고 다양한 인물로의 변화를 가능, 상상하게 합니다.

이번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는 그동안의 〈기존의 인형들〉과는 다르게 인형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인물로 각각의 희곡에 기록되었습니다. 낯설지만 인형에게 인물로서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점이 그동안의 작업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 3개의 희곡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인형으로부터 '글'이 출발했다는 공통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작가들에게 어느 정도 연관성을 지키고자 시작점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인형 작업에 대한 매뉴얼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기존의 인형들〉에서 인형과 키워드 또는 문장만을 제안했다면, 이번 '인형의 텍스트'에서는 인형과 공통된 공간(인형이 확장 가능한, 변화하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공통된 공간은 단막극별 직접적인 배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본 공연을 준비하면서 공간의 활용을 염두에 두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인형의 등장에서 시작된 글인 만큼 각각의 단막극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지닌 글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보통의 공연과 다른 출발 지점을 갖는 공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또한 인간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것들이 매 순간 한계로 다가오는 인형의 존재는 무대에서 작가들의 글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한계를 극복하게 될지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형을 '인형극'적 요소로 조종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겠지만, 인형의 한계를 넘기 위해 기꺼이 애쓰려는 노력이 관객분들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여성국극제작소

벼개가 된 사나히

일시	2025년 1월 11일(토) ~ 1월 19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R석 5만원 / S석 4만원

작가	고연옥	**음악감독**	서희숙
연출	구자혜	**사운드**	안마루
기획	나희경	**의상디자인**	우영주
작창/소리지도	박수빈, 황지영	**무대디자인**	송지인
드라마터그	영이	**분장디자인**	전성애
조연출	류혜영	**조명디자인**	노명준
무대감독	이효진	**자막디자인**	임민정



퀴어니스가 폭주하는 새로운 여성국극의 탄생!

동시대 여성국극의 존재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온 여성국극제작소가 연극 창작진과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시도를 선보인다. <벼개가 된 사나히>는 전통적인 젠더 수행을 요구하는 여성국극의 젠더퀴어적 존재인 '소년'을 등장시킨다. '소년'은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여성국극의 전통적인 젠더 수행을 교란하고 전복시키며 젠더와 섹슈얼리티, 세대, 계급의 경계를 뒤흔든다.

여성국극제작소

예술집단 '여성국극제작소'는 여성국극에 배우로서 20년 이상 활동해온 박수빈, 황지영 배우를 주축으로 여성국극의 명예를 고취하고 현시대와 소통하며 모두에게 공정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연주	안마루, 이성준, 이관웅, 조봉국, 최윤혜
수어통역	남진영, 명혜진
출연진	강다인, 김미영, 박수빈, 이미자, 이소자, 이주영, 황지영

인터뷰

작가 고연옥, 연출 구자혜, 대표 박수빈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으신가요?

〈벼개가 된 사나히〉는 남역 배우를 꿈꾸며 여성국극단에 들어온 '소년'의 이야기이다. 소년은 불의에 맞서는 용감하고 늠름한 '사나히'가 되려 애쓰는데, 꿈속에선 정반대의 장면이 이어진다. 소년은 '벼개'가 되어 병든 왕의 시중을 드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병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왕의 벼개가 될 것인가. 소년은 매일 꿈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반복하며 마침내 남역 주연배우로 무대에 오른다. 우리가 여성국극의 남역 배우에게 이상적인 '사나히'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지금 가장 약한 존재들 곁에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 아닐까. '벼개', '사나히' 등 제목과 대사에 여성국극 전성기의 맞춤법 표기를 남겨둠으로써 여성국극의 세계관이 동시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표현하려 했다.

작품의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니마이'는 무엇인가요? 니마이의 기능과 작품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해주신다면?

'니마이'는 '니마이메(二枚目)'의 줄임말로 일본 가부키 연극에서 '미남 남자 주연배우'를 의미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유입되어 여성국극에서는 남역 주연배우를 부르는 말이 되었다. 그 밖에 적, 원수를 의미하는 '가다끼'(かたき), 코미디를 담당하는 역할인 '산마이(三枚目)' 등의 용어가 있다. 여성국극에서 '니마이'는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고 곤경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등의 영웅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순애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처럼 '니마이'는 현실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상적인 남성상을 투영했기에 여성국극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기도 했다. 또한 여성국극은 여성배우들이 남역을 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치적인 전복과 퀴어적 정동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니마이'는 세계를 향해 가장 첨예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소년은 남역배우를 수행하며 만나게 된 여러 질문과 선택을 통해 진정한 니마이는 어떤 존재인지 묻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어떤 선언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시화하게 된다. 과연 니마이는 우리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은 무엇인가요?

여성국극은 여성-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가지고 노는 장르이다. 이 공연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성별이분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자 한다. 배우들은 다양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적극 수행하며, 이 세상에서 누구나 마땅히 그러해야 하듯이, 무대에서 누구나 원하는 모든 존재가 될 수 있고 존재가 되기를 지향할 수 있다는 쾌의 감각을 표출한다. 이에 있어 당연히, 세대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30대와 80대의 여성 배우가 전 연인으로 재회하며, 섹슈얼리티의 감각을 숨기지 않는다. 또한 이 희곡과 설화와 고전에 '담겨 있는' 젠더 폭력에 어떤 입장을 취하며 어떻게 재현할지 그 고민과 돌파의 지점을 동시대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여성국극은 굉장히 대중적인 장르이다. 이 공연에서의 대중성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자의 죽음을 목도하고 퀴어정동의 쾌감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퀴어예술로서 여성국극〈벼개가 된 사나히〉가 지닌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의식 표현에 있어 다른 여성국극과 차별점이 있다면?

여성국극의 탄생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 일본의 다카라스카 가극단과 중국의 4대 지방극 중 하나인 월극의 경우도 여성 배우들만이 무대에 오른다. 여성이 왕자를 연기하고 공주와 결혼하여 맺어지는 이야기는 대중성 강한 로맨스 서사이면서 동시에 다층적인 전복을 발생시킨다. 당시 여성국극은 가부장제와 성별 이분법적인 사회에서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배우와 배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다양한 '퀴어적 전환'을 경험하게 했다. 그 월경(越境) 과정에는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혼란도 없는 것이 그 세계의 핵심이었다. 〈벼개가 된 사나히〉를 통해 여성국극에 분명히 존재했던 다양한 퀴어적 정동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여전히 견고하게 구축된 젠더, 섹슈얼리티, 세대, 계급의 경계를 뒤흔드는 우리 시대의 퀴어니스를 형상화하려 한다.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과거 여성국극은 단순한 공연 장르를 넘어, 동시대성을 섬세하게 반영하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간 여성국극제작소는 여성국극을 널리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 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여성국극의 동시대성을 발굴하고 확장하는 작업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관객과 깊이 소통하며,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려 한다. 나아가 여성국극이 단순히 전통의 보존을 넘어, 현재와 연결된 문화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윤무아

목련풍선

일시	2025년 1월 18일(토) ~ 1월 26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R석 5만원 / S석 4만원

작가	배해률	음악	구이임
연출	윤혜진	의상디자인	안해은
연출부	정혜정	분장디자인	장경숙
드라마터그	이홍이	소품디자인	김혜원
무대디자인	정영	움직임	손지민
조명디자인	성미림	무대감독	박진아
음향디자인	백인성	영상기술감독	김석기



사라져가는 것에 불어넣은 숨, 목련풍선

애도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배해률 작가와, 시적 감각으로 은유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윤혜진 연출이 만나 연극<목련풍선>을 선보인다. 연극<목련풍선>은 외진 마을의 가장 외딴 집을 배경으로, 다수가 외면해 온 주변부의 세계를 조명한다. 목련풍선은 잊힌 이들을 기억하고, 이 끈질긴 애도의 의지를 무대 위에 다시금 되살려 보고자 한다.

윤무아

윤무아는 윤혜진이다. 윤혜진은 윤무아다.
무릇, 지금, 존재하는, 사라지는, 詩가 되는, 것것것,
어디서, 무엇이, 누구, 든든든, 있는 그대로, 응시한다.

접근성매니저/음성해설	이청
한글자막해설 디자인	이수림
홍보사진	황가림, 라소영
그래픽디자인	황가림
티켓운영	강윤지
기획	나희경
출연진	홍윤희, 이윤재, 윤현길, 신윤지, 라소영, 김하람 ,김광덕, 권은혜

인터뷰

작가 배해률, 연출 윤혜진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배해률 | 목련 꽃잎으로 풍선 부는 법을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였는지 끝까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잊히고 마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떠난 것들을 잠시 잠깐이라도 되살리는 것이 연극이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바닥에 떨어진 채 썩기만을 기다리는 꽃잎에 작은 숨을 불어넣는 그 미약한 행위가 부재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닿아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애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타자에 대한 환대에서 비롯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분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문을 열어놓고 잠에 드는 사람, 오염된 흙도 맨손으로 쥘 수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

배해률 | 목련 꽃잎으로 분 풍선을 뜻합니다. 극 중 분옥과 분옥의 연인이었던 영진이 즐겨 하던 놀이기도 합니다. 떠난 이들이 즐겨 하던 놀이를 산 자들이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공동의 죽음을 감각하기를 바랐습니다. 목련의 꽃잎은 겹겹이라 주둥이를 찢고 그 틈에 숨을 불어넣으면 부풀어 오르는데요, 풍선의 내부를 '숨'이 채우고 있다는 것, 이미 생을 다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부피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목련풍선은 언젠가 분옥의 어머니가 열어둔 문으로 들어왔다던 낯선 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승되는 애도이자 환대의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은 무엇인가요?

윤혜진 | 무대 위 흙 한 줌, 목련 한 그루

무대에 대한 지시문은 간결하고 시적입니다. 외진 마을의 외딴 집, 분옥의 집은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으나 그렇기에 끝에 다다른 이들이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라져간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흙이 되고 기이하리만큼 요란하게 핀 목련이 사라진 이들을 소환케 하는 곳, 그 사이로 비집고 침투하는 또 다른 세계와의 충돌, 불화하며 일렁이는 인물들의 상태와 변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음악 '만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관객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윤혜진 | 만가는 떠나는 이를 위한 애도이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노래는 소리 내어 울어주는 울음과 닮아있습니다. 소리 내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난 것은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만가와 같은 전통적인 애도의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옥이 '계속 얘기해 주지만 자꾸 까먹는' 목련풍선처럼.

'아닌 때 꽃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바람으로 부르는 이 노래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환기하고, 충분히 애도 되지 못한 죽음을 위로하며 무대 위 죽음뿐 아니라 무대 밖 다양한 죽음을 오가며 그 부재의 자리를 감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감각으로 비로소 온전한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소리꾼 이채현의 상여소리와 임정완의 가야금, 구민지의 정가로 재해석 된 만가는 구이임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재창작됩니다.

특별히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배해률 | 극장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련풍선>이 머물러 가기에 적당한 곳이었기를 바랍니다. 분옥과 분옥의 손님들을 같이 맞이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모두 부디 무탈한 나날 되시길.





극단 달팽이주파수

저수지의 인어

일시	2025년 2월 7일(금) ~ 2월 16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4만원

작가	송천영	**분장디자인**	이지연
연출	이원재	**움직임**	양은숙
제작총괄	이주한	**드라마터그**	최연수
무대디자인	임민	**무대감독**	공찬호
조명디자인	정태민	**조연출**	최서은, 전재현
영상디자인	윤민철	**컴퍼니매니저**	한소정
음악디자인	박민수	**그래픽디자인**	강지덕
의상디자인	오수현	**기획**	채지웅



“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희망이 있다면 그 틈이라도 들여다 보려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철수는 저수지를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의미 없는 날을 보낸다. 그런 철수가 유일하게 몰두하는 것은 글을 쓰는 일이다. 자신과 닮은 ‘인어 부자(父子)’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는 철수. 작품은 철수를 통해 허무와 외로움, 실체 없는 불안으로 희망을 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극단 달팽이주파수

극단 ‘달팽이주파수’는 더듬이를 길게 뽑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과 공감 주파수를 맞춰 나간다는 의미에서 출발했다. 시대의 파동과 우리의 파동이 닿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우리의 주파수를 보내 꿈과 이상을 현실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길 소망한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촉촉한 흔적처럼 극단 ‘달팽이주파수’가 만드는 공연도 여운이 남길 바란다

홍보마케팅	어라운드 태제
출연진	유병훈, 김태향, 심원석, 이기현, 한동희, 이윤수, 변민경

인터뷰

작가 송천영, 연출 이원재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물음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만연한 허무와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얀 연꽃으로 가득 찬 저수지의 사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풍경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질문들이 그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수지라는 무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맑고 시린 젊음, 그리고 뿌리 깊은 인간의 절망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을 '저수지의 인어'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수지의 인어'는 작가의 꿈을 가진 철수가 쓰는 글의 제목입니다. 철수는 인간 세상에 숨어사는 인어 부자(父子)에 대한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하며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철수는 점차 성장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가 본인 역시 철수와 함께 성장해갔습니다.

처음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던 제목은 극을 완성해가며 점차 형태를 찾아갔습니다. 극을 쓰는 내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이미지가 선명해짐을 느꼈습니다. 깊고 어두운 저수지와 그 속을 고요히 유영하는 인어.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물렀던 이미지들이 결합되며, 마침내 지금의 제목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수지의 인어'는 무대 위에 세 가지 공간을 구현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철수가 사는 현실의 세계, 철수와 영희가 만나는 온라인의 공간 그리고 철수가 만들어낸 인어 부자(父子)가 사는 가상의 공간이 서로 교차하며 서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세 공간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기 때문에, 각 공간의 연극적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 공간과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배우들 간의 호흡과 관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배우들의 대사나 연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철수의 현실을 반영한 인어 부자(父子)의 이야기가 극중극으로 펼쳐집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마치 인간처럼 살고 있는 인어. 그렇게 인어이길 포기한 아버지 인어와 아들 인어의 장면들이 특히 중요한 장면으로 표현될 예정입니다. 이 장면들에 핵심적인 전환점이자 대사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중 대사 하나를 실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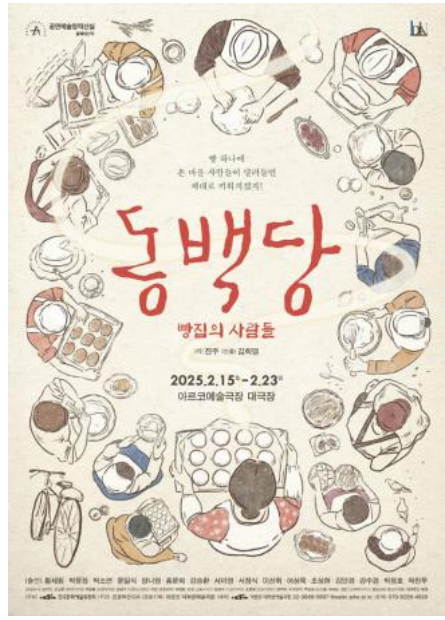
"네가 인어라는 사실을 잊어. 그리고 그냥 인간처럼 살아."

이 작품이 관객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최승자 시인의 '내 청춘의 영원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외로움, 괴로움, 그리움. 내 인생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의 삼각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 인물들 역시 이 삼각형의 고통 속에서 갈등하며, 그 고통을 딛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관객분들이 이야기 속 인물들과 마음의 형태가 어딘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막연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에 닿아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빵 하나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면 제대로 키워지겠지!”

1947년 군산의 한 빵집 동백당. 독립운동 가였던 큰 사장이 마을 사람들과 모은 돈을 들고 떠난 지 십여 년. 작은 사장 ‘여왕림’과 수석 제빵사 ‘공주’는 동백당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녹록지 않다. 작품은 해방 후 물자 부족, 빚 독촉, 대형 제과점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은 동백당을 배경으로 각자에게 남겨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모아 함께 배우고, 꿈꾸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그린다. 나아가 스스로 찾는 삶의 가치와 희망을 이야기한다.

프로덕션IDA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The Camellia Bakery)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 2월 23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5만원

작가	진주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연출	김희영	**의상디자인**	조현정
프로듀서	조수곤, 진소현	**영상디자인**	장주희
무대디자인	박상봉	**무대감독**	우승권
조명디자인	김성구	**조연출**	박세련, 영인
사운드디자인	카입	**홍보마케팅**	어라운드 태제
음향감독	이제형		

프로덕션IDA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모여 출발한 단체로 형식과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 공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지향한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관객과 만나, 메시지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의 융복합 예술의 시도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각으로 이야기하는 공연예술 단체이다.

출연진 황세원, 박윤정, 박소연, 윤일식, 양나영, 홍윤희, 김승환, 서미영, 서정식, 이선휘, 어성욱, 조성현, 김단경, 강수경, 박정호, 곽진우, 조마리

인터뷰

작가 진주, 연출 김희영

작품 창작의 계기와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빵은 따뜻하고, 또 정직합니다. 그래서 빵을 좋아합니다. 떡도 밥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빵을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결이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영혼과 한이 담겨있다면 빵은 그 단맛과 보드라움이 꿈 혹은 꿈꾸게 하는 힘과 연결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작 창작을 위해 근대 무렵의 한 도시의 역사에 관해 공부하다가, 빵집들의 역사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시절 빵을 만들고 팔았고 먹었던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구체적 상상이 체호프와 더불어 펼쳐졌습니다. 어떤 혼란기에도 빵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작품의 주된 배경으로 해방 후 군산의 빵집 '동백당'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산은 항구 도시로 번영했던 곳이었고, 지금도 근대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오래된 역사의 빵집도 있습니다. 제 고향과 가까워 저도 여러 번 가본 곳이고, 그 빵집이 해방 후에 생긴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방 전에도 많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이 있어 일본인 제과 조합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전부터 운영되던 빵집들이 해방 후에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해방 전부터 운영되어 해방 후에도 계속 있었던, 조선인이 운영하던 빵집이 있었다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가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군산이라는 도시에 버려진 어떤 일본인들, 강제 노역 이후 귀환한 조선인들, 전국적인 홍수로 인한 열병의 유행, 기술과 물자의 부족, 직업, 가족을 잃은 이들…. 이러한 복잡하고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자 모이는 소시민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은 무엇인가요?

무대 위에는 밀가루 부대가 쌓여 있고 그곳에서 쟁반에 담긴 빵이 오가며, 무대의 중앙에는 당시 빵을 굽는 귀다란 화덕이 자리 잡고 찐빵과 갓 구운 빵 냄새가 극장 안에 진동합니다. 그곳에 둘러앉은 관객들과 '맛'과 '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희망은 존재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동백당'이라는 빵집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무대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소시민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핵심적인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세상에 해방이 왔는디, 나도 해방이 되어브러야지. 내가 내 마음 따라 산다는 선언인 것이여. 나는 내가 좋아서 사랑을 하고, 니들은 빵이 좋아서 빵을 굽고 있응게로, 봐라이, 얼마나 다행이어. 살아있잖애. 우리 지금. 뜨겁게. 익어가고 있잖애."

특별히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47년의 동백당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그 이후에 찾아올 전쟁에 대한 비극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재건의 노력과 꿈꾸는 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참혹한, 때로는 기쁜, 그렇게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삶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겠지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여기 무대 위에서 만나는 동백당의 순간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 돌파구

구미식

일시	2025년 2월 21일(금) ~ 3월 2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	전석 4만원

작가	이홍도	조명디자인	최보윤
연출	전인철	영상디자인	이태석
드라마터그	전강희	의상디자인	김지연
프로듀서	조유림	분장디자인	장경숙
조연출	황성현	안무감독	지경민
무대디자인	박상봉	출연진	김민하, 안병식, 윤경, 조영규, 한지수



우스꽝스럽고 두려운 악몽이자 동시대 사회·정치적 혼란에 대한 초현실적 패러디

연극은 극도로 보수적인 가상의 지방도시 구미시를 배경으로 한다. 아만다의 아들이자 로라의 남동생인 톰 윌리엄스는 클로짓 게이고 약물중독자이다. 행복한 동상은 박정희로 155 새마을운동기념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가상의 국가지도자를 모델로 삼는다. 지역민들과 톰 윌리엄스에게 행복한 동상은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나눠주고… 그렇게 가짜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데.

극단 돌파구

극단 돌파구는 2015년에 창단되었으며 과학, 우주, 청소년, 젠더를 주요 소재로 삼아 작업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SF 장르의 공연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동아시아의 SF 소설을 연극으로 제작하는 '우주극장' 시리즈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동시대 한국 사회의 이슈를 창작희곡으로 만드는 '오늘의 희곡' 시리즈를 만들어 젊은 희곡 작가들과 협업하고 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극을 만들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들의 연원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를 느껴, 고전을 다시 읽는 '고전의 미래' 시리즈를 시작했다.

인터뷰

작가 이홍도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연극 <구미식>은 실제 구미공단에서 태어나 자란 극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자전적 요소들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구미식>은 자신이 기존에 써왔던 메타적이고 관념적인 퀴어 서사가 구미공단이라는 성장 배경과 다소 괴리되어 왔다는 작가 스스로의 자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작품 속 지방 도시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 산업화 시대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동시대 대한민국의 혼란한 정치사회적 상황까지 환유하는 상징의 공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하며 초현실적인 가상의 지방도시 구미시는 이 작품의 주된 모티브 중 하나입니다.

패러디를 주된 표현 형식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사회에는 오랜 시간 너무나 공고하게 굳어진 나머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 수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구미식>은 패러디와 블랙코미디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패러디는 대상과 싸우지도 대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 안에 틈입함으로써 그 내부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패러디는 대상을 완전히 전복시키진 못합니다. 하지만 웃음을 통한 균열로써 전복의 가능성을 싹 틔웁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측면 승부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길 가망이 희박할 때, 패러디는 도리어 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막대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맞서 무모한 싸움을 벌여야 할 때, 패러디는 그럼에도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스포일러가 되는 터라 자세한 맥락을 언급할 순 없지만, 등장인물 중 누군가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관객분들은 인물의 눈을 통해 극중 배경이 되는 구미시 전체를 내려다보게 되실 텐데요. 프로파간다적 세계 뒤에 감춰진 이면과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이 장면이 관객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또 이 작품이 관객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요?

환상과 실제를 오가며 동시대의 혼란한 무의식을 파고든 블랙코미디로서 이 작품이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가상의 지방 도시 구미시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관객분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사회·정치·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통제와 억압과 죽음의 체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탈주가 가능할지 질문 던지게끔 이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씁쓸한 웃음 가운데 드러나는 부조리하고 초현실적인 세계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정치적 혼란 상황과도 뜨겁게 만나고 또 격렬히 충돌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보편적극단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일시	2025년 2월 21일(금) ~ 3월 2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	전석 4만원

작가	이보람	**분장·소품**	장경숙
연출	마두영	**음악**	신세빈
드라마터그	신윤아	**음향**	임서진
자문	변상철	**영상촬영**	김성하
무대	정승준	**영상디자인**	장주희
조명	정유석	**안무**	조아라
의상	김미나	**무대감독**	이지혜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부의 이야기

연극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는 1960~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조작 간첩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한 인간이 어느 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뒤 순식간에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과정과, 어떤 연고나 인과관계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기꺼이 조력자가 되는 사람들의 삶을 비춘다.

보편적극단

보편적극단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변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연극이 '아무나',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기를 바라며, 서로의 조금 모자란 구석을 채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연출	최수완
접근성매니저	권지현
프로듀서	박서우
출연진	강정윤, 김정아, 김진복, 문현정, 송철호, 신강수, 이세영, 이윤재

인터뷰

작가 이보람, 연출 마두영

작품 창작의 배경과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이보람 | 본 작품은 1960~8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조작 간첩 사건을 바탕으로 그 사건의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 주변부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활동가인 변상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실제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자료를 토대로 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

이보람 | 작품 제목은 실제 피해자분의 인터뷰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재심을 위해 자료를 찾는데 간첩으로 몰려 고문 당했던 당시의 날짜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간 날과 같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누군가의 한 걸음이 인류의 도약으로 기록되던 날,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에서 짐승으로 추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사람들이 역사의 진보 같은 앞으로 가는 이야기에 주목했다면, 진보 뒷면에 역사가 거꾸로 갔던 시간들도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실재했던 사건을 토대로 리서치하며 주목한 점은?

이보람 | 여성 피해자 중 한 분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고문 당했던 곳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해 죽은 그 고문실이라고 하면서, 만약 그때 자신에게 벌어진 고문이 제대로 수사 받았다면 박종철의 죽음은 없지 않았겠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봤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잘 알면서도 그보다 먼저 벌어졌던 '보통사람'들의 고문과 조작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 당사자분이 자신의 아픔이 감춰진 것에 대한 분노보다, 다른 이의 죽음에 더 안타까워하는 태도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관객분들에게도 인간성의 긍정과 함께 피해자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은 무엇인가요?

마두영 |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는 배우가 인물의 내적 서사를 발화하는 독백이 아닌, 인터뷰 형식의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시점 이동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발화와 사건이 체험화된 발화를 배우들이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독백이 가진 연극성을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1막에 등장하는 피해자 네 인물의 독백을 기-승-전-결로 구성하여 개별적인 독백의 나열이 아닌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 드라마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음향적으로는 사실적인 공간 음향을 통해 인물들의 현재 삶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동시에, 특정 장면에서 관객들이 독백을 하는 인물의 말에 오롯이 집중하고 인물의 내면을 공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장치로 비현실적인 노이즈 사운드를 교차 사용해서 관객들이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지만 등장은 하지 않는 '감독'의 조작 간첩 사건을 다루는 개인적인 시선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모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피해자, 조력자, 주변 인물들을 '조작 간첩 사건'이라는 명징한 사실 안에서만 구현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삶을 영상으로 투사하면서 보편의 사람들인 그들의 생활감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 작품이 오늘의 관객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나요?

이보람 |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비극과 불행에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 갈 때, 가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훈장을 받거나 무사히 은퇴했다는 '현실'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무죄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사람들의 존재가 앞으로 내가 살 '미래'를 긍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연을 본 관객분들도 현실의 부당함에 절망하기보다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 공감을 동력 삼아 피해자들의 삶과 이 사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부당함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놓인 짐을 우리가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기억해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의 해피엔딩을 맞이했을 때, 그제야 개운하게 어깨에 놓인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총평

양근애 (연극평론가, 명지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2025년 1월에서 2월까지,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에 7편의 공연이 올라갔다. 지원서 접수부터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쇼케이스 심사를 거쳐 관객을 만나기까지 장장 일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만큼, 창작진들의 오랜 고민이 녹아있는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여느 때만큼이나 다채로운 주제와 소재를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화한 일곱 편의 공연을 하나의 공통된 관점으로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강연 중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곱씹어 보며, 일곱 편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짚어보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듯, 한강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며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혼란스러운 정국, 사회와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연극의 숙명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물론 일곱 편의 공연이 모두 이 질문을 훌륭하게 받아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작품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았다. 이것은 어쩌면 연극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생성되는 일임을 잊지 말라는 주문과도 같다.

배해률 작, 윤혜진 연출의 〈목련풍선〉은 전쟁 때 대문을 활짝 열고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을 살게 한 과거가 현재의 삶을 돕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이 연극이 올라간 대극장 무대에는 계절을 잊고 피어난 목련꽃 나무가 관객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나무는 수십 년 전에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피고 지고 했을 내력을 지니고 있다. 연극은 곁에 있던 사람들의 죽음을 겪으며 살아온 분옥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가족이라는 제도화된, 그리하여 지나치게 관습적인 모습으로 일컬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 서로를 견디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 마음들이 서로를 연결시켜 각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다고 믿는 것만 같다. 목련풍선을 부는 일이 분옥으로부터 손녀에게로 이어지듯, 슬픔을 짊어진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이야기는 귀하다. 〈목련풍선〉의 상여소리와 만가는 그렇기에 전통적인 장례 풍경이 아니라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현재의 위로이자 애도의 방식으로 와닿는다.

이보람 작, 마두영 연출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는 60년대~80년대에 일어난 간첩 조작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일임을 일깨운다. 1막에 등장하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은 다큐멘터리를 방불케 할 만큼 실재로서 만져진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일상을 통째로 빼앗긴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까지 상처를 남기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얼굴을 본다. 객석 가운데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의 자리는 역사를 현재화하려는 안간힘이 기록이라는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카메라의 주인은 극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이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관객의 몫임을 연극은 정직하게 보여준다. 극의 마지막에 무대에 가득 들어찬 의자들의 실재성은 기호를 넘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미적 감응을 일으킨다.

고연옥 작, 구자혜 연출의 〈벼개가 된 사나히〉는 전후 한국 대중문화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여성국극을 전통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현재의 문화적 맥락 속에 타진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 여성국극 제작소는 여성국극 1, 2세대 배우들과 함께 여성국극의 명맥을 잇고자 30대 배우들이 지속적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는 단체이다. 최근 인기를 얻은 웹툰 〈정년이〉와 텔레비전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여성국극 열풍이 다시 불어오면서 여성국극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벼개가 된 사나히〉는 여성국극을 노스탤지어로 소비하려는 관객의 욕망에 화답하는 대신, 여성국극에서 남역배우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동시대 퀴어니스를 다루는 작업에 가해지는 모순된 상황에 의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극을 전개시킨다. 공연은 여성국극을 재현의 드라마로 만드는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는 대신, 이성애적 규범과 정상 담론에 대항하며 익숙한 공연의 틀을 깬다. 이와 같은 작업이야말로 전통을 박제화하지 않고 현재로 지속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진주 작, 김희영 연출의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과거를 낭만화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에서 아쉽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동백당 빵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이를 지켜낸다는 이야기는 역사와 이를 통과해 낸 민중들의 삶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대신 무구한 얼굴로 즐겁게 흘러간다. 왜 해방 직후인지, 왜 군산인지, 격동의 시공간을 택한 이유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극장 무대에 객석을 올린 방식이 드라마 중심의 극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와 거리두기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진행된 점, 그리하여 관객에게 두 차례 빵을 나누어주는 장면에서의 기능 외에 특별한 연극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송천영 작, 이윤재 연출의 〈저수지의 인어〉는 저수지에 고인 물과 같이 살아가는 용재와 철수 부자의 이야기로, 글을 쓰고 싶은 철수가 영희라는 이름의 친구와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속내를 토로하는 방식이 극의 중요한 축이다. 철수는 영희의 조언을 듣고 저수지에 사는 인어의 이야기를 쓰고, 무대는 인어 부자의 이야기가 상상적으로 펼쳐진다. 그러나 비대한 몸을 가진 채 사회로의 발을 떼지 못하는 용재와 이

답답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철수의 이야기는 인어 부자의 이야기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애도 불가능성을 포착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아직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으로 육화되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김연재, 신효진, 안정민 작가가 쓰고 이지형 연출이 구성과 미술을 담당한 〈기존의 인형들 : 인형의 텍스트〉는 나무로 만든 인형을 주요 오브제로 활용하여 관객과 함께 공연을 진행한다. 세 편의 극이 진행되는 동안 인형은 분리된 나뭇조각들이었다가 고장 난 로봇이었다가 죽음 곁에 놉는 인형으로 배우와 관객의 몸을 잇는다. 특히 〈한쪽 발은 무덤을 딛고 나는 서 있네〉(김연재 작)는 배선희라는 배우의 역량이 한껏 드러난 무대로, 배우의 몸과 움직임 시선 호흡이 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다시 허물면서 시간을 재구축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그려낸다. 이 공연을 보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죽음들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실은 삶을 지탱하는 다른 축임을 하릴없이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어쩌면 죽음이 과거형이면서 현재완료이면서 또한 미래 시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현시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에 산뜻하게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행인지도 모른다. 마치 아픈 역사만 계속 반복되는 듯한 기분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지나가는 동안 과거는 때때로 가장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우리 앞에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 쓴웃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홍도 작, 전인철 연출의 〈구미식〉은 너무도 생생한 공연의 언어로 과거의 망령이 현재를 주조하는 모습을 위트 있게 그려낸다. 실재하는 도시를 '가상의 지방도시'로 명명하는 의도된 착종이 구미라는 도시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거리두기하며 과장한다. 행복한 왕자와 유리동물원이라는 고전 텍스트는 서사를 재구성하는 자아를 호명하며 과거의 부정과 함께 살아내야 할 현재를 불안하게 응시한다. 이 즉물성은 관객을 어디로 데려갈까.

지난 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겪은 각종 사회적 재난과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은 극장이라는 공간을 안온하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일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극장 바깥의 현실과 극장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극장 문을 나서서 맞이하는 현실은 무대에서 만난 세계의 질문과 이어져 있음을 자꾸만 확인하게 된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서 만난 작품들은 동시대 연극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질문을 잘 벼려내어, 더 많은 관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직된 생생한 현실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채로운 시각, 단조로운 무대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총평

배선애 (연극평론가)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상대적으로 공연이 적은, 일명 비수기인 1월~3월 초에 공연된다. 시기가 참 적절하다. 관객과 만나는 공연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연극계의 주목과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화제성이 크다. 거기에 단일 작품 제작과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 액수를 지원하고 있어서 연극계의 기대치 또한 높다. 그러다 보니 올해의신작 작품들에게는 비교적 엄혹한 잣대가 적용되는 듯하다. 그 많은 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한 데다가 얼마나 좋은 작품이기에 그 큰 지원금을 받는지 호기심과 질투,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신작을 찾아보게 된다. 높은 기대치 때문에 신작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보다는 혹평이 많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흔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7편의 신작이 1월부터 3월 사이에 관객을 만났는데, 예년의 평가를 크게 벗어나는 작품은 없어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글은 2024년 선정된 올해의신작 7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 작품들에 대해 구체적인 비평을 진행하기보다는 올해의신작에서 발견되는 전반적인 특징과 아쉬운 점들을 총괄적으로 서술하는 총평으로 작성되었다.

일곱 빛 무지개 같은 다양한 시선들

올해의신작 7편의 소재나 내용은 기존에 비해 매우 다채로웠다. 관심 주제나 소재가 겹치거나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각자 개성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작품들이었다.

우선, 첫 번째로 관객을 맞은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김연재·신효진·안정민 작, 이지형 연출, 조음기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25.1.10.~19.)는 세 명의 작가가 쓴 세 편의 단막 공연이었다. 인형 제작자이자 공연 창작자인 이지형의 기존 작업이 인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작가들에게 인형에 대한 텍스트를 부여하게 했고, 그 결과물 세 편을 연출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작품이다. '창작산실'이 좋은 대본의 발견을 목표로 만들어졌던 '창작팩토리'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한 명의 작가가 집필한 희곡이 대상이었다. 희곡작가의 역량과 희곡의 완성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 작가가 한 작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작품은 세 명의 작가가 쓴 세 편의 단막으로 지원했고 선정됐다. 이런 이례적인 사례가 앞으로는 다양한 구성과 형식의 희곡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내력을 가진 인형을 놓고 세 명의 작가가 각각 풀어낸 이야기는 인간과 미래, 존재와 죽음, 실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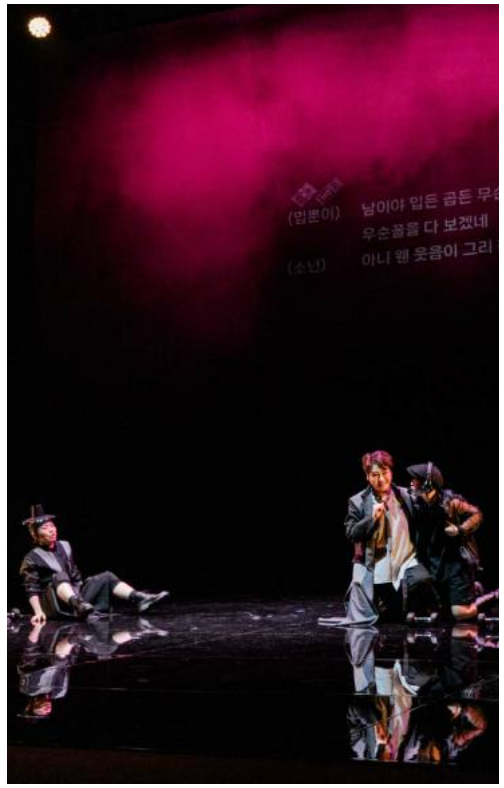
<벼개가 된 사나히>(고연옥 작, 구자혜 연출, 여성국극제작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5.1.11.~19.)는 여성국극이라는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드라마 <정년이>의 영향으로 여성국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도 이 작품의 공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성국극단에서 남성을 연기하고 싶은 소년이라는 주인공 설정이 흥미롭고, 꿈속의 왕을 통해 결국은 벼개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젠더에 대한 모든 관습적인 것을 뒤틀어 놓았다. <목련풍선>(배해률 작, 윤혜진 연출, 윤무아,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25.1.18.~26.)은 가을에 핀 '아닌 때 꽃'인 목련을 중심으로 환대와 애도, 그리움 등을 겹겹이 그려냈다. 환경이 상수항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그 안에 자본의 논리와 인간의 사랑 등이 지층처럼 쌓여가는 구성이 목련꽃의 상징성만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저수지의 인어>(송천영 작, 이윤재 연출, 극단 달팽이주파수,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25.2.7.~16.)는 청년, 고립, 고독, 우울을 인어라는 상징적 존재를 빗대 표현했다. 저수지라는 닫힌 공간, 그 속에 물처럼 고여있는 존재들.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그들의 생활과 철수가 지어낸 인어의 이야기가 중첩되면서 탈주와 안주의 서로 다른 입장이 현실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다.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진주 작, 김희영 연출, 프로덕션IDA,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5.2.15.~23.)은 해방 직후의 힘든 시기를 지역민들이 연대하고 조합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빵'을 중심으로 펼쳐놓았다. 실존하는 빵집을 모티프로 삼았음에도 여러 인간 군상을 통해 시대를 그려냄은 물론 지역민의 조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따뜻하게 형상화했다.

<구미식>(이홍도 작, 전인철 연출, 극단 돌파구,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25.2.21.~3.2.)은 '가상의 도시'로 강조되는 구미시를 배경으로 <행복한 왕자>와 <유리 동물원> 등의 작품이 패러디되면서 현실을 조롱하는 블랙코미디다. 구미라는 도시가 갖는 상징성은 가상으로 위장되고, 자신의 보석을 떼어주는 행복한 동상은 과거의 독재자 모습이며, 그 보석을 전해주는 제비 역할의 톰은 약물중독의 청년이다. 광고로 도배된 쇼츠 영상 앞에 선 동상과 톰은 자본과 한 몸이 된 권력과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풍자하고 있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이보람 작, 마두영 연출, 보편적극단,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25.2.21.~3.2.)도 우리의 현대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풍자보다는 정공법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암스트롱이 달에 갔던 1969년에도, 그리고 꽤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던 조작 간첩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0여 년에 걸친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이라는 설정 덕분에 피해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천천히 쌓이면서 전달되었다. 또한 피해자 인터뷰 장면과 드라마적 구성 장면이 복합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탐색의 거리를 확보했다.









희곡보다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한 무대

이처럼 희곡은 작가들의 섬세한 감각과 다양한 관심사가 반영되어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무대화된 공연은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조금 더 크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무대 활용에서의 아쉬움이 컸다. 작품의 내용이나 규모로 봤을 때 대극장보다 소극장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은 작품인데 대극장에서 공연하느라 무대가 작품을 장악한 경우가 있었는데, <목련풍선>과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목련풍선>의 무대는 가장 외딴집이라는 설정 때문인지 무대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넓은 경사로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작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환대와 애도의 공간인 외딴집을 편협하게 만들었고 배우들의 동선도 제한해버렸다. 가을에 목련을 피게 만든 화학공장은 굴뚝으로 처리되어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존재로 보였다. 때 아닌 목련꽃, 그 잎으로 풍선을 부는 행동이 강조되어야 그리움과 애도의 의미가 부각될 터인데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넓은 경사로와 구음의 만가만이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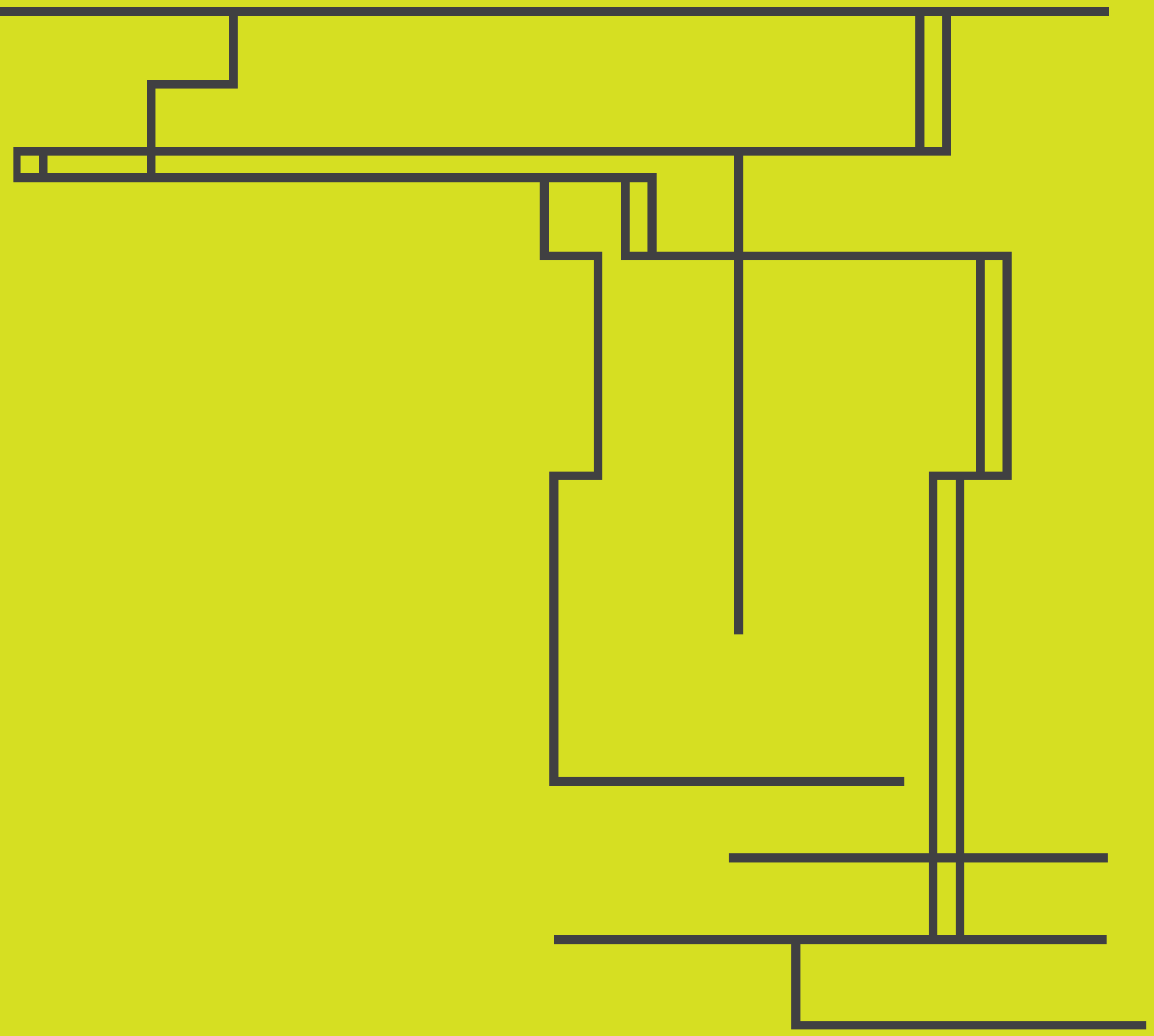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은 기존의 객석을 버리고 대극장 무대 위에 마주 보는 객석을 세웠고 그 중앙 공간을 무대로 사용했다. 무대에 객석이 올라온 이유는 관객과 무대, 빵집과 관객들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읽히지만 대극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 거기에 좌우로 트인 무대 때문에 여기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다양한 등퇴장로 때문에 동선이 산만해서 지역민 조합이라는 놀라운 성과가 그냥 흘러가 버렸다. 이 작품도 결국 남는 것은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친절하게 나눠준 빵이었다.

같은 대극장 무대의 <벼개가 된 사나히>는 다른 대극장 작품들에 비해 무대를 비웠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지만 여성국극으로서의 형식적 특징들을 좀 더 강조하고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는 세 편의 단막을 공연하는 새로운 형식이었기 때문에 희곡에 최적화된 연출을 선보였는데, 아쉬운 점은 인형이 뒤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텍스트와 배우가 개입되다 보니 배우의 물성이 인형의 물성을 넘어서게 되어 인형은 관심 밖이 되었다. 인형과 배우, 텍스트가 공존, 공명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섬세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저수지의 인어>는 다층적인 서사 탓인지 무대에 단을 구분해 공간을 구획 지었는데 그 활용이 단조로워 서사의 층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무대의 색채도 서늘하다기보다 온화한 분위기여서 인물의 심리와 거리가 있었다. <구미식>은 풍자와 조롱의 블랙코미디를 대사와 연기에 집중해 표현했는데, 영상과 무대에 좀 더 B급의 요소들 혹은 약물의 환각을 가미해 풍자성을 더 강조하면 관객들의 호응이 더 컸을 것이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는 소극장 무대를 적절하게 활용했고, 희곡의 복합적 구성을 무대 위에 잘 구현해 낸 편이다. 특히 의자로 가득 찬 마지막 장면의 무대는 작품이 전개되면서 쌓여온 것들이 한 번에 확인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미 초반에 마지막 무대가 충분히 예상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희곡이라면, 연출은 그것에 더 많은 상상을 해야 한다. 무대, 배우, 조명, 음향 등등 희곡이 입체화되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상상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올해의신작은 희곡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연출적 상상을 보기 어려웠다.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고 국내 최고라고 손꼽히는 스태프로 구성되었음에도 그 결과물이 아쉬운 것은 연출적 상상력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극장 무대는 그 자체로 큰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고, 소극장은 소극장대로 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희곡을 너무 납작하게 혹은 단편적으로 읽어낸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들의 기존 작업들을 훌륭하게 연출해낸 역량 있는 창작진들인데 '창작산실'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왜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이라 이 질문의 답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풀려야 창작산실이 더 이상 망작산실이라고 놀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창작산실의 무대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창작뮤지컬





(주)주다컬쳐

무명호걸(無名豪傑)

일시	2025년 1월 3일(금) ~ 1월 12일(일) / 2월 4일(화) ~ 2월 19일(수)
장소	인터파크 서경스퀘어 스콘 2관 / CKL스테이지
관람연령	만 12세 이상
티켓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총괄 프로듀서	이규린	**영상디자인**	(주)닷샵
작/연출	승 운	**무대감독**	김태용
작곡/음악감독	이유진	**의상디자이너**	최윤정
무술감독	조광희	**분장디자이너**	배시하
무대/소품디자이너	이승희	**제작PD**	김나희
조명디자이너	박정현	**기획PD**	조수빈
음향디자이너	김동훈	**조연출**	나윤지



조선의 심장을 지켜낼 그날

1592년 봄.
도요토미의 2번대 대장 가토는 부산에 도착하고
2주 남짓한 시간 만에 한양성에 도달한다.
그리고 조선의 왕을 벤다.

한편, 시공 무한의 공간인 '시공의 방'.
이곳에서 덕만과 화영은 각성 기술을 연마한다.
3년의 수련 시간이 끝나고 세상에 나온 덕만과 화영은
스승 지부를 통해 그동안 벌어진 조선의 비극을 듣는다.

덕만과 화영은 스승 지부의 각성기술 '시공초월'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가토의 진격을 막아서기 시작하는데..

(주)주다컬쳐

(주)주다컬쳐는 공연 기반 오리지널 IP를 발굴·기획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며, 부가상품 개발·해외 유통·OSMU를 통해 독보적인 CREATIVE PRODUCE & IP MANAGING COMPANY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출연진 송광일, 임세준, 조성필, 김재만, 박유덕, 정아인, 최태이, 서승원, 백인태, 김의환, 김우성



인터뷰

작·연출 승 운 작곡·음악감독 이유진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이나 모티브는?

승 운 | 한동안 삶이 매우 허무했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적 감정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독 중이던 채널인 황현필 선생님의 역사 강의에서 임진왜란 파트를 쭉 들으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500년 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없었던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단순하고 단단한 진리. 모든 개인이 만드는 하루, 한 달, 일 년, 한평생의 이야기가 결국에 이 시대를 만들고 그것이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 모든 작고 작은 경우의 수의 총합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하지만 저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임진왜란 속의 무명호걸들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우리들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실제 역사와 가상의 이야기가 섞인 팩션 뮤지컬로서,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승 운 | 중국의 무협과 일본 사무라이의 문화를 이 작품으로 가져오고 한국의 '한의 정서(드라마)', '흥의 정서(코미디)'를 통해 전체적인 작품의 톤과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시공초월'이라는 콘셉트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설정으로 과거로 이동하지만 일행이 다른 시공간에 떨어져서 각자 다른 전개를 펼쳐나가 시간대의 배치가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인물의 성격이 난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나길 의도했고 동선들과 구도는 명확하고 안정감 있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격의 플롯을 가지고 있는 이 작품의 빠른 전개가 가진 속도감에 선 굵은 액션과 드라마의 높은 밀도를 구현하여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작품이 자칫 가벼워질 수 있을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작고 작은 경우의 수의 총합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하지만 저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임진왜란 속의 무명호걸들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우리들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중 배경으로 다루면서, 주된 인물을 영웅이 아닌 '이름 모를 존재'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 운 | 한명련과 김덕령 장군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 주인공 강덕만, 논개를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 화영, 이장손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 지부. 모두 임진왜란에 활약했던 인물들의 특/장점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등장인물이긴 합니다. 일종의 영감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장군 '마귀'가 언급한 조선 최고의 검객인 한명련, 임진왜란 때 일본의 요괴를 힘 하나로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전라도 광주 지역의 김덕령 등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부의 모티브가 되었던 '화포장 이장손'을 비롯하여 모티브가 된 인물이 많았지만 직접적인 연결은 피했습니다. 이야기를 영웅 개인이 아닌 조선인 전부의 이야기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이유진 | 저희가 무협 판타지극이긴 하지만, 무협에서 나올법한 무겁고 웅장한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품의 결이 역사적 사실에 의한 배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쾌활하고 밝은 극인데, 극 안에 각자의 캐릭터의 성격을 살리는 게 뮤지컬의 특성인 만큼 음악 또한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다 보니 각자의 개성을 담아 락, 댄스, 팝, 발라드, 펑크, 재즈 등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게 오히려 보시는 관객분들의 공감을 확실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그 점을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

모든 넘버들이 저에겐 다 소중하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각자의 투쟁과 의지가 담겨있는 남자 배우들의 4중창곡 '결의'를 추천드립니다. 결의라고 하면 왠지, 웅장하고 긴박함이 넘치는 노래가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한 결의는 조금 벗어나서 밴드 사운드의 리드미컬한 펑크 리듬을 기반으로 무겁지 않은 분위기, 흥겹지만 그 안에서의 캐릭터들이 에너지가 넘칠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극을 보시는 관객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승 운 | 지부 일행이 임금(선조)과 종신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가토와 맞서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유명한 논개 또한 왜장을 껴안아 남강 바람에 몸을 던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죽은 9만여 명 중에는 논개의 친구, 언니, 동생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을 위해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어쩌면 선조가 아닌 이름 모를 호걸들이 아닐까요? 역사는 그들이 새로 썼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진 |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처럼 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키고 살아내어 가고 있는 우리 또한 똑같은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웃음이 사라져가는 사회에서 저희의 작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밝은 에너지와 공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컬쳐인컴퍼니

오셀로의 재심

일시	2025년 1월 8일(수)~1월 26일(일)
장소	SA HALL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	R석 4만5천원, S석 3만원

작,작사	박새봄	영상디자인	송정은
작곡, 음악감독	류찬	의상디자인	오늘이
연출	손지은	소품디자인	연디자인
안무	최경훈	분장디자인	장유영
무대디자이너	이은석		
조명디자이너	정구홍		
음향디자이너	한문규		



“나의 판결은 이것입니다”

뮤지컬 <오셀로의 재심>은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지하 한구석에 간신히 낡은 법정을 열어 연명하고 있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아내를 죽인 장군 오셀로의 재심이 열린다.

400년 전, 사이프러스 섬에서 일어났던 신혼부부 살인사건.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장군 오셀로의 지독한 사랑은 왜 그토록 곰찍한 결말을 맞았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의 실체,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강렬한 이야기.

컬쳐인컴퍼니

컬쳐인컴퍼니(대표 정휘경)는 2019년 설립된 공연 제작 전문 단체로, 무대 제작 감독과 스테이지 매니지먼트(SM) 운영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더슈탄트, 베르나르다 알바, 스크루테이프, 적벽, 스페셜 라이어 등 다양한 작품에서 창의적이고 정교한 무대 운영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해왔습니다. 공연 기획팀, SM팀, 제작팀, 경영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컬쳐인컴퍼니는 공연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출연진 고영빈, 고훈정, 김찬호, 오종혁, 박란주, 한세라, 김지혜, 이예지, 심욱, 장재웅

인터뷰

작가 박새봄 작곡가 류찬 연출 손지은

작품을 창작하게 된 배경이나 모티브는?

박새봄 | 공연 전공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고전 읽는 걸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창작자에게 고전은 그야말로 무한한 보물창고 같은 건데…. 학생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고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쓴 대본입니다. 원래는 연극 대본으로 쓰였고, 학생들이 직접 공연도 만들었었어요. 그런 후 한창 잊고 있었는데 이 대본이 우연히 류찬 작곡가님에게 발견되었고, 뮤지컬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고전과의 만남"이라는 교육적 목적으로 작품을 쓸 때는 오셀로라는 작품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마음껏 다 담지 못해 아쉬웠는데, 뮤지컬로 다시 손보면서는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젠더 권력과 악의 평범함을 기반으로 오셀로를 다시 읽으며 살해당한 데스데모나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류찬 | 고전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읽게 해주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작품에서는 오셀로의 여러 장면이 사건의 재현으로 다시 소환되는데요, 원작의 대사 하나하나가 새로운 관점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새로이 읽힐 수 있는 고전의 힘, 그리고 그러한 결들을 새로이 읽어낼 수 있는 작가의 힘이 이 작품에 뛰어들게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을 소재로 한 창작 과정에서 차별화를 위해 가장 고민한 포인트는?

박새봄 |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건 대개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보편성을 획득한, 잘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적으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특별히 차별화를 고민하진 않았고, 고전 '오셀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서 당연한 듯 지워진 여성, '데스데모나'를 어떤 인물로 되살려낼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손지은 | 고전과의 차별화라기보다는 새로운 발견을 위한 접근을 고민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오셀로〉라는 작품을 통해 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과 현대 시대에 느끼는 인간 군상에 대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작의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재판정 장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극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출하고자 합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이나 장면이 있다면?

손지은 | 이 작품은 원작의 장면과 재판정의 장면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기 다른 두 시공간이 관객들에게 이질감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빙의'라는 재미있는 장치를 이용하는데요. 이 약속을 통해 흐름을 잃지 않는 기준점을 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를 놓치지 않는 방식 안에서 시각적인 간극을 보여주면서, 이 재판정이 특별하고 복합적인 공간임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류찬 | 우리 작품은 원작에서 주인공 오셀로의 비극이 성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다루어졌던 데스데모나라는 인물을 작품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오셀로의 재심 판결 역시 이 데스데모나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데스데모나의 최후 발언 격인 〈다시 내 이름 부를 수 없게〉를 작곡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이 곡이 관객들의 마음에도 잘 와닿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박새봄 | 원작 오셀로를 자기만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고 싶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감정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순간, 특히 사랑과 폭력의 애매한 경계에서, 또는 작은 악과 큰 악의 애매한 경계에 섰을 때 문득 이 작품의 어느 장면이 생각난다면 좋겠습니다.

류찬 | 이 작품을 만들면서 다시금 고전이 가진 다층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작품을 흥미롭게 본 관객들이 서가에 꽂혀있는 오셀로에 다시 손을 뻗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면 매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을 보시고 다시 한번 더 공연장을 찾아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손지은 | 고전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어떠한 '편견', 혹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결말과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이것이라고, 미리 습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러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고전 혹은 작품을 해석하고 느끼는 방식은 이토록 다양하고, 우리 현대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을 보면서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무엇보다 연출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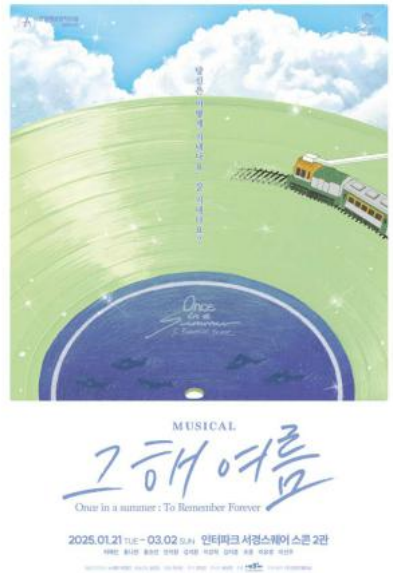


㈜콘텐츠플래닝

그해 여름

일시	2025년 1월 21일(화) ~ 3월 2일(일)
장소	인터파크 서경스퀘어 스콘 2관
관람연령	12세 이상
티켓	R석 6만6천원, S석 4만4천원

총괄 프로듀서	노재환, 박정인	**의상디자인**	홍문기
연출	이수인	**분장디자인**	조미경
작,작사	현지은	**무대감독**	고혜선
작곡,음악감독	윤요한	**제작감독**	정민규
안무감독	이현정	**기획팀장**	전혜연
무대, 소품디자인	노주연	**기획팀**	김규리, 소혜원
음향디자인	송선혁	**기술감독**	최용준
조명디자인	박준범		



“당신은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나요?”

이병헌, 수애 주연 영화 ‘그해 여름’이 2025년 1월,
뮤지컬 무대로 재탄생 된다.
각자의 하루에서 시작하여 사랑에 빠지는 우연한 순간,
때로는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계절의 빛남은 영원히 기억된다.

설령 사랑의 끝이 비록 해피엔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을 한 기억과 받은 기억이 끝끝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든다.
그렇게 사랑을 통해 삶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콘텐츠플래닝

(주)콘텐츠플래닝은 기존 제작사와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예술적 미래 가치가 있는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공연 기획 및 제작, 극장 대관 및 운영, 트레이닝 스튜디오 등에
안주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새로운
콘텐츠를 늘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연진 허혜진, 홍나현, 홍승안, 안지환, 김석환, 이강혁, 김지훈, 조훈,
이유경, 이선주





인터뷰

연출 이수인 작가 현지은 작곡가 원요한

영화 '그해 여름'을 뮤지컬로 창작하게 된 계기는?

현지은 | '시대는 개인의 삶을 어떻게 헤집어놓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개인의 삶을 헤집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해 여름> 속 주인공인 정인과 석영은 1969년의 복잡한 시류에 휘말려 한 계절도 오롯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끝이 해피엔딩은 아니라 할지라도, 끝끝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이들의 찬란했던 그해 여름을 무대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영화 원작을 뮤지컬화 할 때, 차별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현지은 | 영상언어로 펼쳐지는 수내리 마을의 푸르른 풍경을 어떤 무대만의 언어로 치환할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은 열 마디의 언어보다 한 번의 비언어가 필요함을 떠올렸습니다. 3,40년대 고전 뮤지컬을 떠올리며 장면 곳곳에 안무와 움직임의 자리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또 드라마로는 '강재호'라는 원작에 없는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시대를 세밀하게 표상함과 동시에 인물들의 갈등을 더 깊숙이 그리고자 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이나 장면이 있다면?

이수인 | 작품의 정서와 맞게 서정적인 수채화의 느낌을 살린 무대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품 전반부에는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수내리의 아름답고 푸른 느낌으로, 후반부에는 그들에게 닥친 차가운 현실을 서울의 삭막하고도 어두운 모습으로 대비시키고 싶었습니다. 석영과 정인이 교실에서 스크린의 뒷면을 통해 영화을 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가장 신경 써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원요한 | 명확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이 영화를 뮤지컬화하며 음악을 통해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음악적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이야기에 부합할까?'라는 것이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오히려 배경이 된 1969년, 그 이전을 바라보는 것.

소극장 작품이지만 장르의 선택이나 악기의 사용, 또 음악을 쓰는 작법에서 우리 작품은 옛 대극장 고전 뮤지컬 어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공간적 배경이 되는 "수내리"와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음악적으로도 구분되어 관객들께 들릴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에도 주력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이수인 | 우리 작품의 주제가 사랑의 끝이 해피 엔딩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랑의 기억이 끝끝내 사람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석영과 정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지만 결국은 다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석영과 정인을 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객 여러분 역시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힘이 된다는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길 바라며 <그해 여름>이 슬프지만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작품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현지은 | '여름이었다.' 빛나고 뜨겁던 과거의 기억을 '여름이었다'로 말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막이 내리고 극장을 나서며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해 여름'의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그 떠올림의 시작에 이 작품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원요한 | 먼 과거 시점의 픽션이지만, 영원을 살아가게 하는 순간의 기억과 그 감정 속으로 관객들이 충분히 들어가고 공감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부족하게나마 준비한 나의 음악이 관객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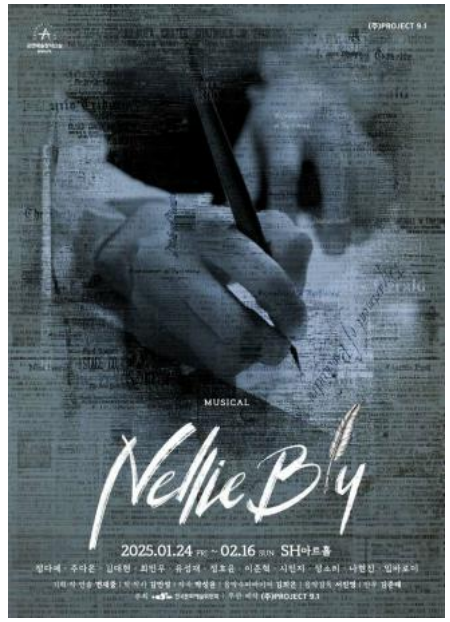


주식회사 프로젝트구점일

넬리블라이

일시	2025년 1월 24일(금) ~ 2월 16일(일)
장소	SH아트홀
관람연령	12세 이상
티켓	R석 6만6천원 / S석 4만4천원

기획/작/연출	변재중	무대디자인	신재경
작/작사	김민성	음향디자인	이채욱
작곡	박성윤	조명디자인	김선미
음악슈퍼바이저	김희은	영상디자인	김장연
음악감독	서진영	의상디자인	김민우
안무	김준태	소품디자인	윤미연
편곡	While asleep	분장디자인	배시하
드라마터그&액팅코치	배민희	홍보	잔나비와묘한계책



사랑과 연민으로 써 내려간
언론 역사상 최초의 잠입 취재기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언론 역사상 최초의 잠입 취재인
블랙웰스 정신병원 취재부터 여성 최초 세계 일주까지
'넬리블라이'라는 필명으로 남긴 한 여성 기자의 업적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도 더 된 실제 이야기다.

현재에도 계속되는 성차별, 언론 탄압, 공장의 사고 은폐 등의
문제들을 '넬리블라이'는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

역사 속 실제 인물이 창작진의 상상력과 만나 탄생한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있는 목소리가 희망의 노래로 울려 퍼진다.

주식회사 프로젝트구점일

(주)프로젝트구점일은 동시대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험하고 개발하는 창작자 중심의 실험소입니다.

2023년 설립된 단체로, 설립된 해 진행된 첫 번째 프로젝트인
뮤지컬 〈넬리블라이〉가 각종 공모 사업 선정을 거쳐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창작자들이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 힘찬 도약중인 단체입니다.

무대감독	손예린
제작PD	이승현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김가인
조연출	최지혜
조음악감독	김민영
조안무감독	김하린
출연진	정다예, 주다온, 김대현, 최민우, 유성재, 정호윤, 이준혁, 시민지, 정소리, 나현진, 임바로미

인터뷰

기획·작·연출 변재중 작·작사 김민성 작곡 박성윤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모티브는?

변재중 |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의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뉴스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사건과 현상을 두고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게 쓰인다는 점이에요. 또 자극적인 제목에 비어 있는 내용, 가짜뉴스에 대한 공포,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갖가지 정보와 이슈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지 한창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또 언젠가는 너무 괴로워서 매스미디어를 아예 안 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넬리블라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미국의 여성 기자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기존의 사건에 상상력을 더해 Faction(상상과 허구의 결합)으로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9세기 말 실존했던 여성 저널리스트를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오늘의 시대적 관점에 맞춰 재현하기 위해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무엇인가요?

김민성 |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19세기 말 미국, 당시 성차별과 언론의 은폐, 정신병원 잠입 취재 등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훌륭한 기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도해 주길 바랐어요. 실제로 이미 상당 부분 맞닿아 있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 '신뢰를 잃은 대한민국 언론에 훌륭한 기자, 엘리자베스를 불러오자'라는 문장을 동력으로 삼았고. 그녀의 신념을 왜곡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존재했을 법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들로 전개를 재구성했고, 철강공장 위장취업과 정신병원에 잠입 취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윤색을 거듭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이나 장면이 있다면?

변재중 | 무대는 '쏟아지는 기사들'을 연상시키고자 했고, 극 중 '엘리자베스'가 예상치 못한, 숨겨져 있던 이면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현대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 속 뉴스 등의 정보를 접하는 순간들을 예로 들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속, 자극적인 제목에 쉽게 현혹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이상, 잠시 스쳐 가듯 봤던 자극적인, 가공된 제목이 모든 사건이나 현상의 전부인 양 머릿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되잖아요.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그렇지 않아요. 숨겨진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누군가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마주한 이후 오게 되는 변화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박성윤 | 실존했던 여성 기자 엘리자베스가 다양한 공간과 사건들을 마주하는 서사를 음악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어요. 특히 엘리자베스가 바라보는 신문사, 철강공장, 정신병원 각각의 공간들이 음악 안에서 직관적으로 표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의 시대', '블랙다이아몬드', '정신병원의 괴물'이 이에 대표적인 넘버입니다.

넘버 리스트 중 꼭 한 넘버를 꼽자면 '취재#1/공장의 이면'을 꼽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기자로서 첫 시작이자 첫 번째 이면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생각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변재중 | 우리의 작품 속 '넬리블라이'는 언론 역사상 최초의 잠입 취재를 한 여성 기자의 필명으로만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과 연민을 바탕으로 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자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노래,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 작품을 한 미국 여성 기자의 훌륭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사람을 사랑했던 한 인간의 용기 있는 도전과 모험의 이야기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튜디오선데이

라파치니의 정원

일시	2025년 1월 30일(목) ~ 4월 20일(일)
장소	플러스씨어터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티켓	R석 7만원, S석 5만5천원

작/작사	김수민	음향디자인	김주한
작곡	이다솜	의상디자인	김미정
연출	성종완	소품디자인	노주연
음악감독	박재현	분장디자인	장유영
안무	이현정	무대감독	윤주성
무대디자인	박연주	제작감독	이민희
조명디자인	정구홍	제작PD	박가영
영상디자인	고동욱	프로듀서	박민선



“사랑과 희생, 독과 치유가 얽힌 이곳에서,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으로 구원받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너새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단편소설 『라파치니의 딸』을 판타지 사랑 이야기로 재창작 하였다.

다섯 명의 인물은 모두 본인이 속한 세상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지만, 때론 그 사랑은 폭력의 형태로 도달하기도 하고 본인이 폭력의 주체가 된 것을 발견하고 고민하게 된다.

‘약초’가 ‘독초’가 되는 사랑의 딜레마를 아름다운 음악과 기묘한 미장센으로 풀어낸다.

스튜디오선데이

㈜스튜디오선데이는 기존의 공연예술, 전시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새로운 융복합형 콘텐츠 장르 개척을 통해 성장하고자 한다. 다양한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차별화된 컨텐츠 제작사이다.

2019년 설립하여 뮤지컬<미세스 다웃파이어>, <트레이스 유>, <라파치니의 정원>을 기획/제작하였으며, 전시<스튜디오 지브리 타카하타 이사오展>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개발 중에 있다.

출연진 김대종, 김종구, 박유덕, 유현석, 황순종, 정지우, 한재아, 박새힘, 전민지, 지혜근, 김늘봄, 장예원, 신진경

인터뷰

연출 성종완 작가 김수민 작곡가 이다솜 프로듀서 박민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모티브는?

김수민 | 45분 뮤지컬을 창작하는 학교 수업에서 작품 소재를 찾는 중에 발견한 단편 소설입니다. 딸을 독 체질로 만든 아버지, 결국 아버지 앞에서 딸이 해독제를 먹고 죽게 되는 결말 등의 설정들이 직관적으로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작곡가도 이 소설로 작곡하고 싶어 해서 자연스레 뮤지컬로 각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의 단편 소설을 소재로, 오늘날에도 통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수민 |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소설의 주요 소재인 "독초"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할 때 독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랑'의 특성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을 각자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도록 배치하였고, 그들 중 자신 입장에서의 방법으로 사랑한 인물들은 결국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것으로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선택과 행동, 결말이 오늘날의 관객들에게도 보편적으로 공감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이나 장면이 있다면?

성종완 | '정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독성이 내재하여 있는 이중성을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작품의 주제인 '사랑의 이중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비롭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지는 공간으로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이다솜 |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아름다움과 위험 사이의, 라파치니의 정원이라는 공간이 음악만 들어도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작곡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넘버는 M9. <춤을 춰요>입니다. 한 넘버 안에 모든 인물의 욕망이 표현되고 이에 따라 각자 서사가 흘러가고 있어서 강한 에너지와 긴장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음악은 신나게 진행되어 더욱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박민선 | 사랑이 절대 선(善)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대 관객들에게 울림이 있는 서사와 매혹적인 음악임을 자부합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딜레마를 느껴 보는 진한 관극의 여운을 남겼으면 합니다.



극단 오징어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일시	2025년 2월 6일(목) ~ 3월 30일(일)
장소	더줌아트센터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5만5천원

극본/연출	오미영	**조명디자인**	공연화
작곡	노선락	**음향디자인**	김성욱
음악감독	최민욱	**사운드디자인**	홍초선
편곡	이수연, 안도경	**무대디자인**	신나경
안무	밝넝쿨	**의상디자인**	BEN COSTUME
조안무	이영례	**조연출**	정하임
무대감독	박기남	**그래픽디자인**	최은선
무대조감독	김강민, 고선혜		



기억을 잃어도 습관처럼 남아 있는 사랑

70살 생일을 맞은 춘자.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생일 소원을 빌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순간 춘자의 느슨해진 정신줄에서 빠져나온 영혼의 물고기가
그의 앞에 나타나고, 영혼의 물고기를 따라 시작된
기상천외한 모험 속에서 춘자는 상상과 현실,
추억과 회한 사이를 오간다.
한편, 현실에서는 가족들이 사라진 춘자를 애타게 찾아다니며
동네 곳곳에서 춘자의 흔적을 마주하는데...
춘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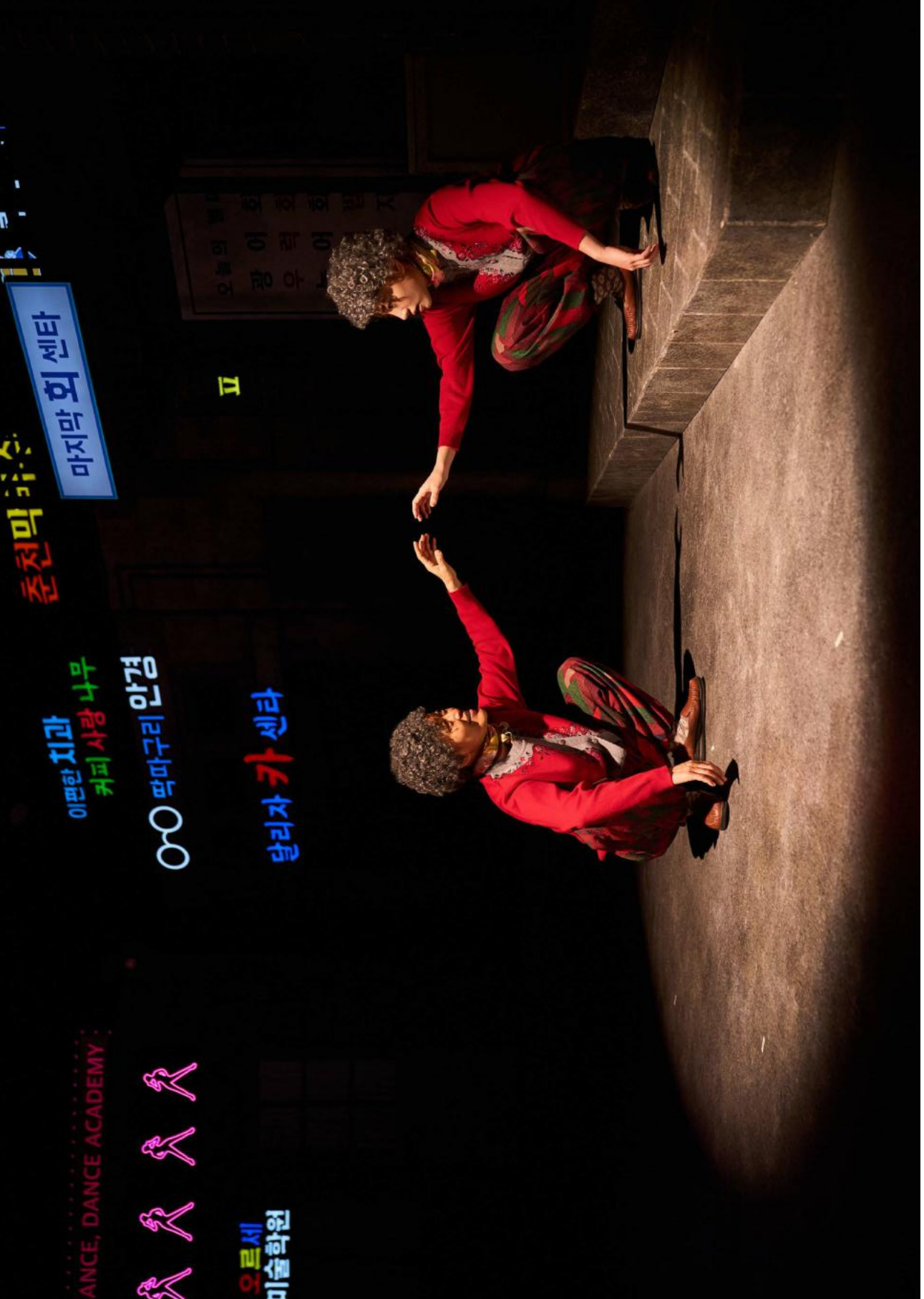
극단 오징어

극단 오징어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관객들과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징어처럼 질경질경 씹을수록 맛과 영양이 풍부한 작품!

대중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조명오퍼레이터	한아름
사진촬영	윤유성
영상	진영기
제너럴매니저	임지선
프로덕션매니저	황난아
프로듀서	김언
출연진	서나영, 이상은, 성열석, 김소리, 김준현, 하미미, 강나리, 김대웅, 서인권, 김선제, 엄현수, 양나은



인터뷰

극본·연출 오미영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모티브는?

"치매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

어느 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누구와도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니, 기록되어 있는 바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상상해도 좋을 그 무엇이 무대에 올라간다면,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겠다. 그것을 상상하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할머니의 관점에서 세상을 그려내고자 특별히 리서치하거나 주목한 부분이 있다면?

작업 자체는 쉽지 않았어요. 일단 치매에 대해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선 공부가 필요했어요. 의학적인 공부를 시작으로 돌봄 가족들의 고충과 환자 본인의 혼란스러움을 다룬 자료들, 요양보호사들의 에세이들과 간혹 어려운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중에는 우리보다 치매 자료들이 많은 일본의 자료들도 많았고,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 소설, 연극, 다큐멘터리 등등 닥치는 대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1년이 훌쩍 가고 자신감은 부쩍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써볼까 싶었고, 또다시 앨리스의 늪에 빠졌어요. 앨리스는 정말 또 엄청난 세계더라고요. '아, 이대로라면 한 줄도 못 쓰겠다. 그냥 남의 글이나 경험에 기대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내 맘대로 쓰자.'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치매를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겪게 되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이나 장면이 있다면?

고춘자의 판타지를 어떻게 무대에 구현할 것인가가 이 작품에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고춘자의 판타지가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튀어나온 듯한 판타지가 아니라, 고춘자의 기억의 파편과 그것들의 재조립을 통한 판타지이길 바랐어요. 그래서 고춘자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의 물고기도 횟집에서 나온다거나, 오줌을 싸서 놀리는 파리떼들이 '파리지앵'이라는 구제옷집에서 나오는 등 무대 곳곳에도 고춘자의 기억의 파편들을 숨겨두었어요. 여기저기 숨겨둔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공연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고춘자가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커다란 나무" 밑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듣고, 그 나무를 찾아 헤매다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그 앞에서 108배를 하거든요. 그때, Cezar Franck의 <Panis Angelicus>가 흐르고, 그 위에 염불 같은 고춘자의 노래가 어우러지는데, 어울리지 않는 두 멜로디가 묘하게 어우러져서 웃으며 듣기 시작한 노래는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흐르게 되더라고요.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위로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라이브(주)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일시	2025년 2월 11일(화) ~ 2월 27일(목)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티켓	전석 6만6천원

원작	김재환(〈칠곡 가시나들〉,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	조명디자인	원유섭
프로듀서	강병원	음향디자인	한문규
예술감독	김재환	영상디자인	박상연
극작	김하진	의상디자인	최윤정
작곡/음악감독	김혜성	분장디자인	장유영
연출	오경택	소품디자인	권민희
안무	신선호	기술감독	방한석
무대디자인	이엄지	무대감독	조아라



“사는 기 와 이리 재밌노!”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유쾌한 인생 예찬

인생 팔십 줄에 한글을 배우며 설렘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만난 할머니들의 유쾌한 이야기!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간판을 읽으며 세상의 재미를 찾아가는 열일곱 소녀 같은 할머니들.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을 원작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과 웃음을 담았다. 관객들에게 배움의 설렘과 진짜 행복의 비결을 선물할 뮤지컬!

라이브(주)

라이브㈜는 2011년 설립된 공연 제작사로, 글로벌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K-뮤지컬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 영감과 추억을 제공합니다. 매년 창작 뮤지컬 공모전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를 통해 신작을 발굴하며, 뮤지컬 〈팬레터〉 〈랭보〉 〈마리 퀴리〉 등 다양한 작품으로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K-뮤지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연진 구옥분, 김아영, 박채원, 허순미, 강하나, 이예지, 강정우, 김지철, 하은주

인터뷰

작가 김하진 작곡가 김혜성 연출 오경택

칠곡 문해학교에 다니는 할머니들을 소재로 뮤지컬을 창작하게 된 계기는?

김하진 |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님께서 오래전부터 뮤지컬로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라며 원작 다큐멘터리와 에세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뜻밖의 소재라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작품 속 다큐멘터리 PD 석구처럼 작업을 하면서 이 작품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화이자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소개된 원작을 뮤지컬화함에 있어, 차별화를 위해 가장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김하진 | 할머니들의 꾸밈없고 담백한 시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노래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또 실화 기반이기에 인위적인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자신의 시를 찾을 때마다 해묵은 아픔 혹은 결핍과 화해하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오경택 | 극중극 기법을 통해 환상과 회상 장면을 구성하여 아내, 며느리, 엄마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할머니들의 시간을 담으려 합니다. 세월의 힘이 담긴 아름다운 시에 음악의 날개를 달아 낭송하듯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아련하게 유쾌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컨셉이나 장면은?

오경택 |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교복을 입지도, 학교에 가지도 못했던 할머니들이 마침내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소풍을 가는 마지막 장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나무숲을 배경으로 세상이 온통 찬란한 시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감각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작품 전반적으로는 화려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사람 냄새나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무대를 꾸며보려 합니다.

작곡 과정에서 신경 쓴 부분이나 특별히 관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넘버가 있다면?

김혜성 | 실제 할머니들의 80년 인생이 농축된 시를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뽐내지 않으면서 진심이 느껴지는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쓴 곡 '우리는 가시나'를 토대로 음악의 방향성을 잡았고, 쇼케이스를 함께한 배우들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뽕짝'만 듣는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어서 음악 장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화상'이라는 곡에서는 영감을 향한 분노를 담은 할머니들의 화끈한 락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나요?

김하진 | 할머니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시들어가는 나이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객분들이 삶의 어떤 시절을 지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극장 안에서 '까르르' 웃으시고, 극장을 나설 땐 삶 속에 보물처럼 숨겨진 시를 찾고 싶은 설렘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김혜성 | 엄마, 할머니도 뮤지컬 마니아가 될 수 있는 인생 첫 뮤지컬! 어려운 내용, 엄숙한 객석은 극장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작품은 엄마, 할머니와 함께 깔깔 웃으며 볼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무뚝뚝한 딸내미도 용기 내어 엄마 손을 잡아볼 수 있는 뮤지컬이니 부디 함께 즐거워 와주세요!

오경택 | 친구와 가족들의 손을 잡고 소풍 가듯 찾아올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시하고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 아주 보통의 하루를 맞이하는 설렘, 내일은 더 재미있을 거란 기대감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뮤지컬 작품들

박병성 (연극평론가)

2024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의 뮤지컬은 총 7편이 선정되었다. 3~4편 정도 소개됐던 예년에 비해 작품 수도 많아졌지만 작품들의 소재와 개성도 다양해졌다. 특히 뮤지컬에서도 동시대적인 이슈를 소재로 가져온 것이 반갑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소위 덕극이라 불리는 작품들은 소재나 형식 면에서 다양하지 못했다. 예술가의 숨은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수의 역사적 인물이 거대서사를 개인의 내면적 갈등으로 풀어내는 역사물이나, 다중인격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비현실적 존재의 등장이나 남자 배우 2-3명의 멀티캐스팅되는 형식은 K-뮤지컬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4년 올해의신작은 여성 서사 2편, 역사 판타지 1편, 늙음과 노년을 소재로 한 뮤지컬 2편, 그리고 영화와 고전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2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여성 서사 2편, <오셀로의 재심>과 <넬리블라이>

여성 서사는 뮤지컬 장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장르에서도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이다. <오셀로의 재심>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인 <오셀로>를 재판극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오셀로의 과오를 살핀다. 오셀로는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 그러나 <오셀로의 재심>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증언과 상황을 재구성하여 오셀로 장군이 과연 데스데모나를 사랑하였는지를 의심하고 그의 열등감과 가부장적인 사고가 데스데모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밝힌다. 고전을 새롭게 읽어내는 방식이 도발적이면서 이를 풀어가는 형식 역시 경쾌하고 유쾌했다. 작품은 세 명의 복수의 여신을 등장시켜 상황을 재검토하고 빙의를 통해 극중극 장면으로 재현했다. 연극성 짙은 방식으로 유쾌함을 주었으며, 마치 현실의 광적인 집단을 반영한 듯 재판장 밖에 맹목적으로 오셀로를 추앙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막무가내로 가부장적 체제를 옹호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위트 있게 비틀었다. <오셀로의 재심>은 쇼 뮤지컬적인 요소를 차용해 경쾌하게 오셀로를 풍자하며 고전을 새로운 시각에 다시 보게 했다.

<넬리블라이>는 실존했던 여성 기자 넬리 블라이의 삶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팩션 뮤지컬이다. 엘리자베스는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집"이라는 사설에 반박문을 쓴다. 당차게 신문사에 들어선 그녀에게 편집장은 임시 기자증을 주고 강철공장의 비리를 밝혀내면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무리한 설정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후 강철공장의 비리에 반대하다 농성을 벌인 직원이 정신병원에 구금되었는데, 엘리자베스는 스스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정신병원에 구금되고 그곳에서도 취재를 이어가며 비리를 밝혀낸다. 그저 정의감에 불타는 엘리자베스가 위험천만한 곳에 잠입하게 만드는 상황도, 이를 받아들이는 엘리자베스도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런 생자 초보 기자에게 허술하게 구멍을 드러내고 비리가 밝혀지는 강철공장이나 정신병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작품이 여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있던 시기, 여성 기자 넬리 블라이에 주목한 것은 흥미롭지만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고령사회, 노인 주인공 2편,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직전인 한국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타 장르 예술에서는 노인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뮤지컬 <렛미플라이>가 치매를 소재로 하긴 했으나 로맨스 판타지로 풀어가면서 나이 듦을 깊이 있게 관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창작산실에 소개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과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는 치매나 나이 듦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가난하고 힘든 시대에 그것도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한 팔복리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시를 써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유사 옴니버스 형식으로 팔복리 할머니들의 짠한 사연들을 그가 지은 시와 함께 들려주는 형식을 취한다. 단순하고 담백한 할머니들의 시는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지만, 소박하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에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작품은 진지한 이야기를 시종 유쾌하게 풀어가면서도 코끝이 찡하게 했던 순간을 선사하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나이 듦이 단순히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에 유연해지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임을 말해준다.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는 일흔 생일을 앞둔 춘자씨가 정신줄을 놓으면서 함께 딸려 나온 물고기를 따라 환상의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와, 갑자기 사라진 엄마 춘자씨를 찾으려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병치시켜 보여준다. 춘자씨는 물고기를 따라 7살의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100세의 노인이 되어 미래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확인하고 화해한다. 춘자씨의 환상 여행을 보사노바,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음악을 통해 보여준다. 공들여 만든 한 곡 한 곡의 노래들이 완성도가 높아 음악을 감상하는 재미가 크다. 결말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예상하고 봐도 훈훈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었다.





원작의 뮤지컬화, <그해 여름>과 <라파치니의 정원>

종합예술인 뮤지컬은 원작을 각색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번 창작산실에도 인물이든 사건이든 별도의 원작을 토대를 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창작된 작품은 <무명호걸>과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정도일 것이다. 뮤지컬 <그해 여름>은 영화를, <라파치니의 정원>은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그해 여름>은 2006년 이병헌, 수애 주연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다. 작품은 1969년 엄혹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여름 농촌농활을 내려온 대학생 석영과 그 마을에서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신비스러운 여인 정인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다. 서정적인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뮤지컬은 이질적인 두 개의 플롯을 연결시켜 갈등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두 개의 플롯은 섞이지 못하고 별개의 이야기처럼 진행되는데, 심지어 각각의 이야기 역시도 충분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무대를 막아놓은 거대한 아치형의 벽돌 무대는 상상의 여지를 좁힌다.

<라파치니의 정원>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의사이자 학자인 라파치니는 독을 연구해 자신의 딸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다. 그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아내를 마녀로 몰아 죽였던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라파치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독을 연구하고 세상에 퍼뜨릴 계획을 세운다. 그의 딸 베아트리체는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로 영원히 정원에 갇혀지내다가 마을에 온 화가 지오반니에 의해 세상에 눈을 뜨게 된다. 베아트리체는 아버지에 뜻에 반대하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라파치니의 정원>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작품이 의도가 명확히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LED 무대는 동화적인 이야기를 다양한 볼거리로 제공하고 꽤나 비주얼적으로 뛰어난 이미지를 보여준다.





역사 판타지, <무명호걸>

대중예술에서 역사물은 언제나 인기 있는 소재이다. 대대로 역사 판타지, 시대물, 팩션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작품이 만들어져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 <무명호걸>도 같은 류의 작품이다. 역사라는 명확한 팩트를 상수로 두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풀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뮤지컬 <무명호걸>은 상상력의 개연성이 떨어진다. 작품의 콘셉트조차 모호해서 역사 판타지의 재미를 주지 못한다.

때는 임진왜란. 무력한 국가를 대신해 일본군을 막아서는 것은 의병들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지부와 화영, 덕만 등이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과거로 돌아가 조선을 구하려고 한다. 지부와 화영은 시공 초월 공간에서 무예를 연마하는 등 인간계를 넘어서는 영웅적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군 대장 가토 앞에 무력하다. 가토는 별도의 초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가 어쩌다가 시공초월 능력을 지닌 덕만과 화영도 가볍게 제압하는 실력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는 임진왜란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이름 없이 나선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초능력의 특별한 능력을 주어 무협지에서 나오는 히어로물로 설정한 것부터 작품의 콘셉트를 모호하게 한다.



17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경향

장경진 (공연칼럼니스트)

단연코 1월과 2월은 1년 중 가장 다양한 작품의 공연을 보는 시기다. 새로운 작품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획 프로그램이 많아서다. 올해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이하 '올해의신작')과 두산아트센터의 '두산아트랩'을 비롯해, 국립극단과 모두예술극장에서도 해외희곡 낭독공연이 이어졌다.

2025년 17회를 맞은 '올해의신작'에는 일곱 편의 창작뮤지컬이 소개됐다. <무명호걸>은 1592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시공초월을 비롯해 다양한 무공 기술을 포인트로 내세운 작품이었다. <오셀로의 재심>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법정극으로 변주한 버전으로, 가해자 중심 서사에서 밀려났던 피해자 데스데모나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이병헌, 수애 주연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그해 여름>은 시대의 비극을 다룬 멜로드라마로 완성됐다. <넬리블라이>는 100년 전에 활동한 여성 기자의 업적을 중심으로 언론 탄압과 성차별, 산재 등의 동시대적 이슈를 발견해냈다. <라파치니의 정원>은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으로 '독'이 되어버린 딸의 이야기를 다룬다. 독특한 설정과 미장센으로 새로운 판타지 뮤지컬의 가능성을 열었다. '치매'라는 소재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가족 이야기에 집중한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와 시 쓰는 재미에 빠진 할머니들을 유쾌하게 다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도 다양한 관객을 만났다.

다양성이 돋보이는 소재들

올해의신작들은 다양한 소재로 눈길을 끌었다. <무명호걸>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역사의 비극을 '무협'이라는 동양적 판타지 세계관으로 풀어냈다. 시대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과장된 액션, 유쾌한 캐릭터도 돋보였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촘촘한 서사 구조와 관계성, 무대적 설득력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시간여행'이라는 설정은 <무명호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시간여행자의 캐릭터가 탄탄히 구축되어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게 될 때, <무명호걸>은 시리즈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성인간을 내세운 <라파치니의 정원>은 신에 도전하는 과학자, 비극적 사랑, 낯선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고딕 호러 판타지 뮤지컬을 연상케 한다. 다른 공연예술에 비해 환상성이 강한 매체가 뮤지컬임을 고려했을 때, <라파치니의 정원> 역시 마니아 관객의 니즈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와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경우 그동안 뮤지컬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 노인'을 다룬다.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가 '치매'를 통해 자기 삶을 희생해 온 어머니와 가족의 화해를 정석적으로 그려낸다면,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시골 여성이라 외면받았던 과거 대신 지금의 기쁨을 만끽하고 미래를 꿈꾸는 할머니들의 삶을 조명한다. 특히 두 작품은 '할머니'라는 보편적인 소재로 공연예술에 낯선 관객들을 초대한다.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낯설지 않은 서사와 음악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마음껏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는 사전 안내 문구로 객석의 경직된 분위기도 풀어낸다. 실제로 두 작품은 10대에서 70대까지 전 연령층의 관객이 극장을 찾아 대중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왜 뮤지컬이어야 하는가

올해 공연된 일곱 편의 작품 중 다섯 편에는 원작이 있다. 원작의 좋은 이야기는 새로운 길의 중심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대중의 시선을 붙들기에 매력적이다. 문제는 무엇으로 원작과의 차별성을 가져가느냐에 있다. 다수의 작품이 뮤지컬만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었다. <오셀로의 재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오셀로 부부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덧붙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로 살인사건을 재해석했다. <라파치니의 정원> 역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베아트리체를 통해 그를 남성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가 아닌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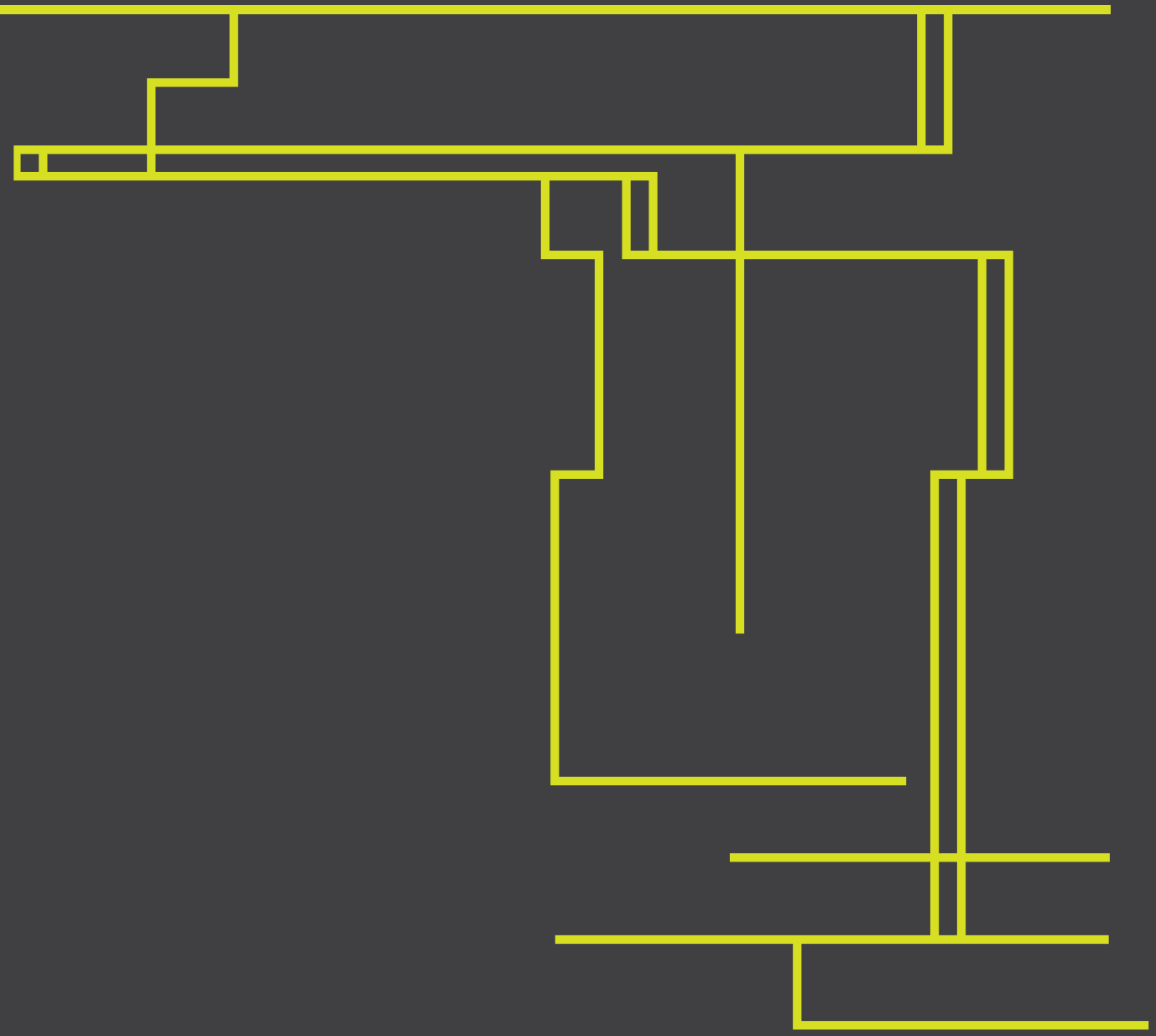
여성 언론인을 내세운 <넬리블라이>의 경우, 여성의 삶 자체에 주목하는 기존의 '여성 서사' 흐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넬리 블라이가 여성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찾아간 공장에서 목격한 것은 열악한 노동 현실과 만연한 폭력, 성차별이다. 그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잠입 취재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작품은 언론의 역할을 향한 질문으로 나아간다. 언론사와 공장, 정신병원을 오가는 서사의 규모, 깊이 있는 주제, 다채로운 캐릭터와 관계성은 대극장 공연으로의 확장도 상상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2차 창작물이 '뮤지컬'이라면, 서사와 음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돋보인 작품이 <오셀로의 재심>과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다. 재판 형식을 차용한 <오셀로의 재심>은 여러 명의 증인이 소환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된다. 클래식과 재즈를 오가는 음악이 인물의 성격과 상황, 허구와 현실, 과거와 현재를 표현하며 장면을 잇는다. 자칫 지루하거나 밋밋하게 느껴지는 부

분을 색다른 자극으로 채워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셈이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역시 인물에 대한 유쾌한 접근을 음악에서도 이어간다. 트로트나 발라드 같은 익숙한 장르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담담하고 해학적인 가사가 경쾌한 리듬을 만나 할머니들의 삶을 하나의 쇼로 완성해나간다. <그해 여름>의 경우, 원작 영화의 서사와 구성을 고스란히 따르며 연인 관객을 타겟팅하는 멜로드라마로 완성됐다. 그러나 이야기에 새로움이 없고 음악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 '뮤지컬'로서의 아쉬움이 남는다.

여전히 한국 뮤지컬 시장은 양극화되어 있고, 배우의 티켓파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 해에도 수많은 작품이 쏟아지지만, 신작 창작뮤지컬이 레퍼토리가 되어 꾸준히 사랑받는 경우도 드물다. 시공간의 한계가 분명한 공연예술시장이 꾸준히 움직이려면 새로운 관객이 필요하다. 김준수로 시작된 아이돌 가수들의 뮤지컬 진출이 하나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여러 세대와 닿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17회 '올해의신작'은 새로운 소재와 대중적 접근으로 기존 뮤지컬 시장의 세분화와 관객 개발에 도전했다. 성공했을까? 10대부터 60대까지, 청년과 아저씨가 함께 웃고 환호하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보니 가능성은 활짝 열린 듯하다.

무용





백주희

당신을 배송합니다

일시	2025년 1월 4일(토) ~ 1월 5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4만원

안무 및 연출	백주희	조명디자인	허 환
음악감독	타무라 료	무대감독	이도엽
의상디자인	민천홍	포토그래퍼	이동훈
영상디자인	주유찬	기획	이승윤
무대디자인	조일경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영화 '다음 소희'의 대사 중) "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집들을 오고 가는 그들은 '빠른 배송'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치열하고 더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물건을 배송하나, 단순히 물건만을 배송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상자가 그 비닐이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당신의 목소리가 되고, 당신의 손이, 팔이, 몸통이, 종국에 당신 자신이 되어 결국에 우리는 당신을 배송한다.

백주희

안무가 백주희가 추구하는 작품의 세계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과 이슈를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로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어야 할 근원적 가치와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한다.

출연진 최진한, 이예은, 정주희, 박동찬, 송재윤, 유동인

인터뷰

안무가 백주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이 작품은 약 2년간 새벽 배송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일과 함께 일했던 배송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 배송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여러 에피소드 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그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배송 노동자를 향한 인식과 관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안무가가 가진 이러한 물음표를 관객들에게 향해 던지는 질문이며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

제목에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신을 배송합니다'의 궁극적인 의미 중 하나는 사람 존중의 가치이다. 즉, 단순히 물건만을 배송하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에 대한 가치와, 다른 하나는 '만약 배송 중인 물건이 구매자 자신이라면, 그리고 배송 노동자가 물건이 아닌 구매자를 배송한다면'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하여 의인화한 표현이다.

사회적 이슈를 다룬 춤으로서, 새벽배송이나 택배 노동자를 소재로 삼을 때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이 있다면?

과거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TV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다. 땀을 흘려 일하며 받은 노동의 대가와 삶의 가치를 다양한 직업군을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는 잠시나마 배송 노동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 일터를 관객이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와 더불어 그들이 일터의 현장에서 맞닥뜨린 상황들을 표현해 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잠시나마 관객이 엿볼 수 있도록 하여 그들만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무대 구성이나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컨셉은 무엇인가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송자의 공간이다. 배송 노동자는 한 공간에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장면에서의 공간 변화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무대 전체를 Rolltainer(이동형 짐차)로 구성하여 공간의 다양함을 보여주려 한다.

또한 세부적인 춤의 형식은 black comedy, omnibus이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omnibus 형식으로 보여주려 한다. 공연예술은 사회현상을 진지하고 무게감 있게 또는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게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black comedy의 요소를 춤의 주요 컨셉으로 하였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배송 노동자는 자주 마주치게 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들과 우연히 마주칠 때 작은 눈인사와 수고한다는 인사를 건넬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 하나로도 그들은 충분히 힘을 얻어 열심히 달려갈 테니…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

녕(寧), 왕자의 길

일시	2025년 1월 25일(토) ~ 1월 26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총괄 프로듀서	정현욱	**조명디자인**	박진수
제작PD	유정현, 송가란	**음향디자인**	조예진, 조윤아(deux ex sonum amicus), 구종회
제작AD	서혜민	**영상디자인**	문혜진(봄프로덕션)
연출·안무	최재헌	**의상디자인**	김경희(신화의상실)
협력연출·무대감독	손혜선	**분장디자인**	최유진(연우메이크업)
작가	강보람	**소품디자인**	손앤인컴퍼니
음악감독	이원조	**조안무**	안현선, 김영필, 김응민
무대디자인	김민섭	**무대조감독**	강수빈



당신은 안녕(安寧) 하십니까?

지금, 평안함에 있는가?

평안함은 만져지는 것인가? 가리키는 것인가?

세속의 삶에서 우리가 각자 추구하는 꿈은 절대적인 진리인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지 모두들 헤매고 있다.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위에 서 있는 이들의 춤사위를 통해
평안함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자.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는 예술가와 콘텐츠, 공간을 유기적으로 엮어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공연 및 축제, 학술연구,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예술기반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복합문화공간을 통한 문화 SOC사업을 목표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장르 및 사업영역들과 협력을 통해 우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산업화, 세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는 프로듀서의 놀이터입니다.

예술(Art)과 기술(Technology), 행정(Administration)과 연구전문(Research) 파트너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풍부한 DB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유기적이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문화예술 콘텐츠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프로듀서(Producer)를 넘어 프리젠터(Presenter)이자, 프로그래머(Programmer)로서 여러분과 함께 문화예술 안에서 즐기고자 합니다.

영상 오퍼레이터	성효인
영상시스템	크리디엘
그래픽디자인	라현아
출연진	곽상원, 김민섭, 김범수, 김영필, 김응민, 김재원, 류일훈, 박솔종, 유새한, 윤태웅, 이명근, 한상익

인터뷰

연출·안무 최재헌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작품 '녕(寧), 왕자의 길'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전통을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춤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것만큼, 현대적으로 해석해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궁극적으로 영속할 수 있는 전통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선 태종과 세 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 춤을 녹였습니다.

『친인척을 잔인하게 밟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후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종(살풀이),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양녕(한량무), 왕권을 내려놓고 수많은 절을 지으며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효령(승무), 아버지와 달리 어진 왕이 되어 칭송받았던 충녕(태평무)』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자 자신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한국 창작무용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안무의 특징과 다른 무용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이번 작품의 가장 특징은 남성적이면서도 중성적인 춤을 남자 무용수로만 구성해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무용계는 남자 무용수가 매우 적고 남자로만 구성된 작품은 더욱 흔치 않기 때문에 다른 공연과는 차별화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대중성을 설득하기 위해 남자 한국 무용수의 절제되고 힘 있는 선으로 예술인과 관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관객들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만한 핵심 장면을 소개한다면?

제일 애착이 가는 장면은 5장 태종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안함이란 결국 꿈, 희망,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함 뒤에 또 다른 평안함을 찾고자 반복하는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과 열정을 움직임(춤)으로 표현하고 그 에너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드라마와 캐릭터 연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용수마다 역량이 다르고 움직임에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모든 무용수에게 같은 동작을 주고 연습하게 한 후 춤을 보고 작품과 어울리는 무용수와 캐릭터를 조합해 장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움직임을 가진 무용수들을 적절히 배치해 통일된 움직임과 다양한 동작을 필요한 시간에 연출함으로써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번 공연을 관람하면서 우리 자신의 평안함은 무엇인지?
너무 막연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욕망과 열정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며 나에게 진정한 평안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안(安)'녕(寧)'한 2025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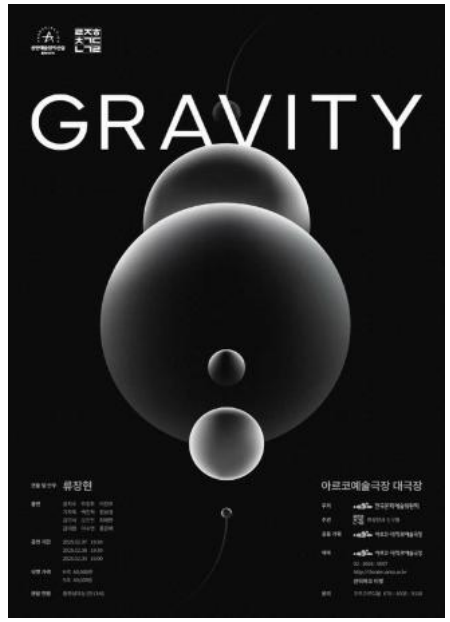


류장현과 친구들

GRAVITY

일시	2025년 2월 7일(금)~ 2월 9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13세(중학생) 이상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연출 및 안무	류장현	조명디자이너	강지혜
프로듀서	김난수	의상디자이너	배경술
공동기획	코르코르디움, 류장현과 친구들	무대감독	김인성
드라마터그	염혜원		
무대디자이너	박상봉		



당신의 만남과 운명은 중력의 영향 아래 있다

별과 행성을 만들고 모든 생명을 인도한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 힘은 두 물체가 주고받는 것에서 비롯한다. 하나의 물체는 힘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궁극의 인력이라 불린다. 이 힘의 작용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오래전부터 우아한 춤을 추고 빙빙 돌고 있다. 중력, 무게, 끌림을 뜻하는 “GRAVITY”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제자리에 붙들어 주는 힘의 상호작용으로 춤의 작용 거리를 확장한다.

류장현과 친구들

‘류장현과 친구들’은 안무가 류장현을 중심으로 현대무용을 기반에 둔 다양하고 실험적인 형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1세기의 인간이 마주하게 된 거친 삶의 조건을 생각하고 탐구해 춤추는 몸으로 표현한다. 무용 언어로 실현하고 다다를 수 있는 세계를 견지하며 때론 드러나지 않은 세상의 이면을 마주하고자 한다.

출연진 공지수, 기자욱, 김민서, 김태현, 박정휘, 백진혁, 오진민, 이수연, 이진우, 장보경, 최태현, 홍은채

인터뷰

안무가 류장현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이 작품은 '중력(Gravity)'이라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힘을 탐구하며 탄생했습니다. 중력은 모든 존재를 서로 연결하고 움직임의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중력을 단순한 물리적 개념이 아닌 감정적, 철학적 차원으로 확장해보려 했습니다. 인간이 중력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균형, 저항, 추락, 상승의 움직임이 주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춤추는 무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움직임과 빛이 대화하는 살아 있는 생태계며, 극장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춤의 이야기가 태어나는 자궁과 닮았습니다. 그곳을 중력과 감정의 역학이 만들어낸 시적 장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목이자 핵심 오브제인 'GRAVITY'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중력은 모든 생명체와 물질에 똑같이 작용하는 힘이지만,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중력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과학적 실험과 함께 춤을 통한 감각적 탐구를 병행하여, 중력을 '보이지 않는 힘'에서 '몸으로 체화하는 감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무의 특징과 다른 무용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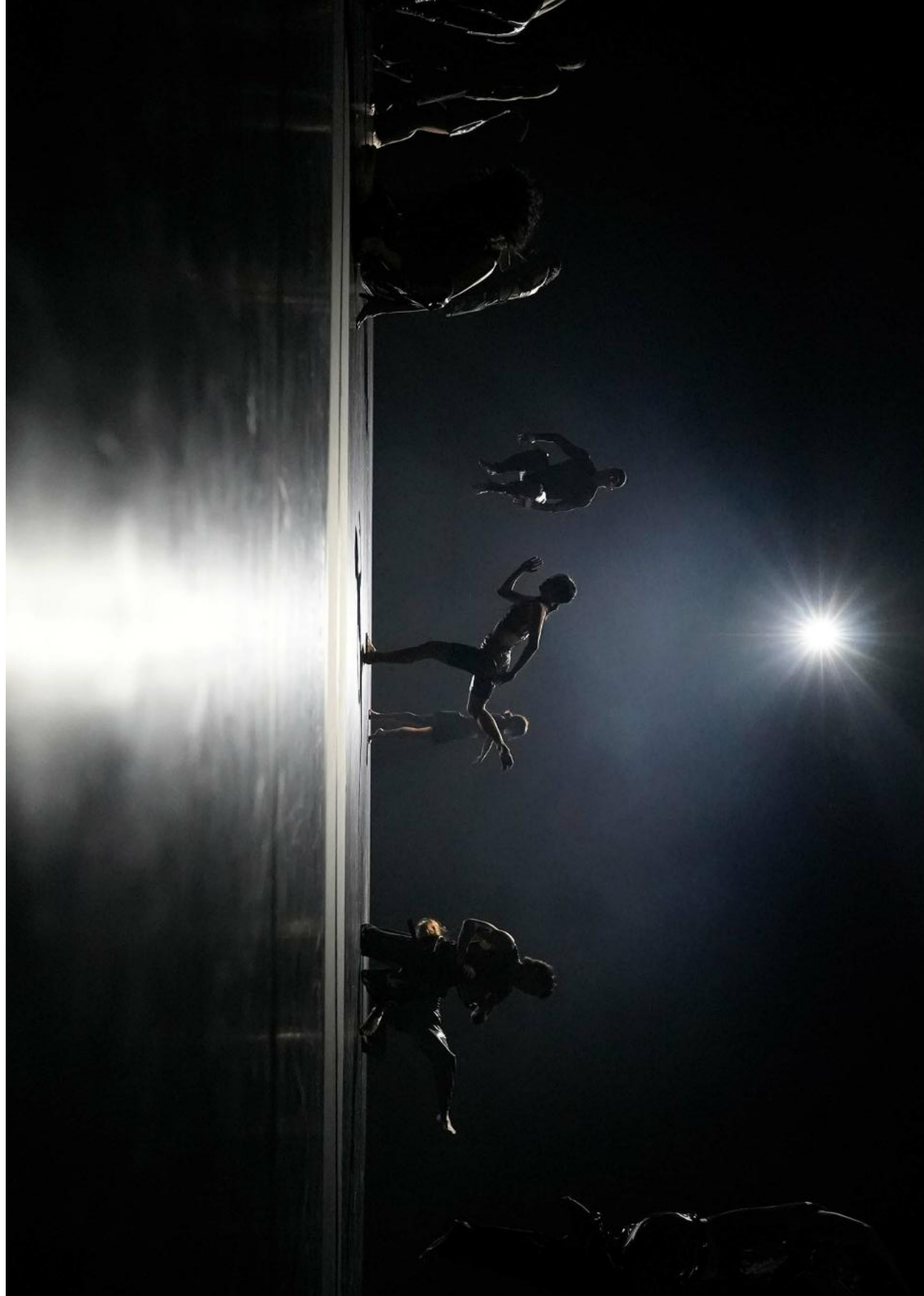
이 작품은 중력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을 탐구합니다. 즉흥성과 정교한 구조를 결합해, 예상치 못한 흐름과 명확한 패턴이 교차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중력에 반응하는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극대화하며,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재구성하는 실험적 접근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조명과 음악,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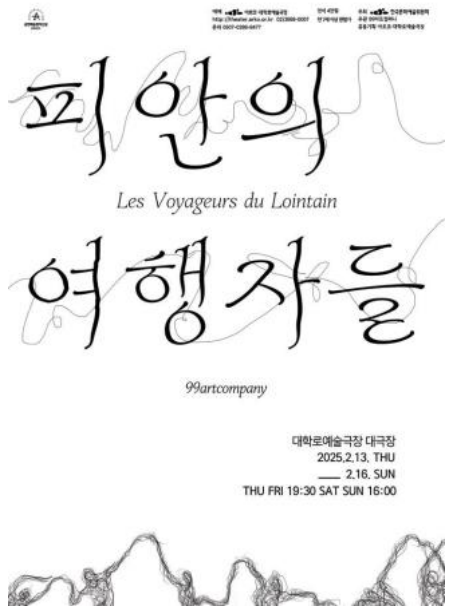
조명은 중력을 시각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움직임의 흐름을 강조하거나 무용수의 몸을 단편적으로 분리해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음악은 중력의 리듬을 담아내기 위해,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패턴을 사용하며, 무대는 무게중심의 이동과 변화, 그 궤도 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중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하지만, 그 힘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과 방향을 찾아가는지를 질문합니다. 관객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관계와 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길 바랍니다.







99아트컴퍼니

피안의 여행자들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2월 16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3만원~4만원

예술감독·안무	장혜림	**의상**	배경술
드라마터그	채민	**무대감독**	김유신
조안무	장서이, 이고운	**음향감독**	장태순
공동창작/출연	김은이, 송효영, 이고운, 이수경, 이승아, 장서이, 추세령, Dem Adama, Salifou Diabate	**프로듀서**	어진
		행정	이보휘
서아프리카 춤 리서치	Emmanuel Sanoupapa	**홍보물디자인**	이정민
조명	김건영		
무대	이태양		

머물 수 없는 몸은 닿을 수 없는 땅을 향해 간다

우리는 피안으로 나아간다. 그곳은 서로의 이야기로부터 탄생한 '열린 정체성'의 공간이다. 떠남은 정체성을 잃는 단수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무수한 가능성을 깨우는 긴 여정의 시작이다. 우리는 물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흔들리며, 흔적이 쌓여 얼룩진 서로를 바라본다. 우리는 서로의 뿌리를 오가는 균사체처럼, 끊임없이 속삭이며, 연결되고,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에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생명이다. 고요히 반짝이며, 대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내어 그렇게 서로의 기억과 꿈이 만나는 자리가 비로소 피안이 된다.

〈피안의 여행자들〉 은 떠남과 도착의 경계를 허물고, 시간과 공간을 건너며 빚어지는 모든 존재들의 춤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기억과 꿈은 서로 얽혀 새로운 땅을 엮어낸다. 그곳에서 우리는 낯선 것을 환영하고, 익숙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떠나는 자 이자 도착하는 자'임을 노래한다. 머물 수 없는 몸은 닿을 수 없는 땅을 향해 간다. 그리고 잃어버린 뿌리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현재를 깊이 들이마신다.

99아트컴퍼니

99아트컴퍼니는 '영혼에 울림을 주는 춤'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무용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과 방법론을 통해 예술적 진화를 이루어 왔다. 안무가 장혜림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아티스트가 협력하여 만든 작품으로는 〈제(祭), 타오르는 삶〉, 〈심연〉, 〈침묵〉, 〈이야기의 탄생〉 등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작품들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무용 예술의 경계를 확장해 왔으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해 자랄수록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는 나무와 같은 99아트컴퍼니가 되기를 소망한다.

출연진 김은이, 송효영, 이고운, 이수경, 이승아, 장서이, 추세령, Dem Adama, Salifou Diabate



인터뷰

예술감독·안무 장혜림 드라마터그 채민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피안_ 열린 정체성의 공간

작품을 통해 그리는 '피안'은 단순히 다른 세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곳은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가 얽혀 탄생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고정된 틀을 허물고 기억과 꿈이 교차하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다. 떠남과 도착의 경계를 허물며, 이 여정은 정체성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 무수한 잠재력을 깨우는 시작으로 정의된다.

균사체에서 얻은 영감

균사체의 유기적 연결성과 확장성에서 영감을 받아, 관계와 소통이 얽힌 다층적 구조를 안무로 구현했다. 움직임은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경계와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민자들의 몸에 새겨진 기억과 가능성

이 작품은 이민자들의 몸에 내재된 전통과 그들의 현재의 경험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출발한다. 낯선 것과 익숙한 것 사이에서 형성되는 역동적 관계를 통해, 이주와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탐구하며, 관객에게 여러 겹으로 얽힌 세계를 조망하게 한다.

안무의 특징과 다른 무용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이 작품의 안무는 유기적 움직임과 즉흥성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정형화된 동작보다는 흐르는 듯한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관객이 무대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공간 활용을 설계했다.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점은 '균사체'라는 생물학적 메타포를 통해 안무의 흐름과 연결성을 표현한 점이다. 무용수들은 개별적이면서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고, 서로의 움직임을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은 관객들에게도 즉각적으로 감각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명과 의상,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관객과 무대의 경계 해체

관객석이 무대 위로 올라감으로써, 관객들은 공연의 외부 관찰자가 아닌 '여정의 동반자'로서 작품에 참여한다. 관객의 위치는 고정되지 않고, 무용수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움직임을 공유한다. 이 배치는 떠남과 도착, 경계와 연결이라는 작품의 흐름을 공간적으로 느끼게 하며, 관객이 새로운 관계와 경로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빛의 흐름과 공간의 확장

조명은 관객과 무대의 구분을 지우고, 다른 차원의 공간을 그려낸다. 부드럽게 흐르는 빛은 정체성과 관계의 유동성을 암시하며, 관객은 빛의 움직임을 따라 변화하는 세계를 마주한다. 경계를 허무는 연출은 관객이 '피안'이라는 열린 공간을 응시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자리한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피안의 여행자들>은 관객들에게 '떠남'과 '만남'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길 제안한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이 얽힌 존재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 속에 있다. 이 작품은 낯선 것 속에서 익숙함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뿌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내며,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기념한다. 관객들이 자신과 타인의 연결성을 되새기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창작그룹 괘념치(5 thoughts go)

로망(Roman)노망(老妄)

일시	2025년 2월 21일(금) ~ 2월 23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안무 및 연출	문성연	조명디자인	김철희
무대디자인	허 현	무대감독	서승진
드라마터그	오종우	기획	이승윤
작곡	김동기		



**로망(Roman)노망(老妄)은,
꿈을 이루려는 열정 속에 마주하는
천국이다. 늙음으로 갇힌 육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낭만의
광기를 불어 넣는다.**

로망(Roman)노망(老妄)은 내가 꿈꾸는 로망과 늙어감의 노망이 얽히는 지점에서 펼쳐진다. 꿈과 현실이 뒤섞인 그 안에서, 세월이 쌓인 몸과 마음이 겪는 갈등을 부드럽게 비춘다. 로망이란 끝없이 펼쳐지는 가능성 속에서, 노망은 시간의 무게에 눌린 삶의 흔적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는 꿈을 품고 늙어가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이 공연은 노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로망의 빛을 되찾으려는 작은 시도다.

창작그룹 괘념치(5 thoughts go)

창작그룹 괘념치(5 thoughts go)는 각기 다른 영역의 무용인들이 2019년 창단하였다. 창단 이후 다양한 예술인들과 공동 작업을 시도하고 춤, 음악, 연극, 영상 등의 예술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시도하는 실험적인 창작 작품을 생산해 왔다. 극장뿐만 아닌 새로운 공연 공간을 개발하고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통해 환경이 다른, 지역사회의 계층이나 장애 등을 뛰어넘는 커뮤니티 댄스를 이용한 교육과 융합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여 작업하는 공연 전문단체이다.

출연진 [무용수] 최진한, 강다혜, 김보경, 최기량, 강수민, 방지현
[배우] 박상종, 김곽경희
[일반인 출연진] 신완식, 민소영, 조경연, 임지원, 김순선, (아역)임형진

인터뷰

안무 및 연출 문성연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이 작품은 어느 날 우연히 받은 휴대폰의 “안전 안내 문자”로 부터 시작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송되는 이 문자들 중에는 종종 실종자를 찾는 내용의 문자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실종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인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적을 것이다

기억을 잃고, 집을 잊고, 가족을 잊고, 결국 인생까지 잊게 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든 ‘늙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육체의 쇠퇴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나쁜 것일까, 늙음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 만약 늙음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떨까?와 같은 무수한 질문들에 답하며 만들게 된 작품이다.

사회적 이슈를 다룬 춤으로서 노인 예술인(배우)과의 협업에 있어 특별히 신경 썼던 점은 무엇인가요?

전문 무용수들과 노년 배우들, 그리고 일반인 노인 예술가들 간의 조화를 가장 많이 신경 썼다. 배우의 언어는 육체의 움직임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다. 그래서 언어를 마치 음악처럼 활용하며, 언어의 명확한 전달보다는 그 뜻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톤과 리듬을 찾아가며 연출하였다.

일반인 노인 예술가들과의 작업에서는 연습 과정 자체가 놀이나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우려와 걱정을 덜어내고 마음과 몸을 만드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일단 안전감을 얻었을 때는 일반인이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그 몸 안에서 농익은 아름다움과 그들만의 독창적인 언어들이 뿜어져 나오는 경험을 하였다.

안무의 특징과 다른 무용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인생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대본과 즉흥으로 만들어낸 본인 고유의 움직임, 70년 80년간 일상생활에만 사용했던 몸을 춤추게 만든다. 인생의 굴곡짐의 움직임, 제한됨의 움직임, 놀이의 움직임, 생활의 움직임이 춤이라는 경계 안으로 들어왔다.

춤의 역동성과 매끄러움, 기술적 움직임을 한껏 덜어내고 기량이 떨어진 몸이 주는 아름다움이 무언지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트레이닝 되지 않은 자연의 늙은 몸과 열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춤적 언어를 도출해 본다.

조명과 의상,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무대 연출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흐르는 옷 더미들이다. 이 움직임은 과거 빨래터에서 여성들이 모여 노동을 하던 시간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며, 시간의 흐름과 삶의 애환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옷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과 반복적인 일상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조명은 이 흐름을 강조하고, 의상은 각기 다른 시대와 정서를 반영하며,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무대 세팅과 소품 역시 이러한 감정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해 관객이 직접 시간의 흐름과 노동의 반복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작품 속 삶의 흔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4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1,2장은 사회의 시선으로 조명된 노령화 문제를 표현하였다. 3장은 실제 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한 과정인 노령화를, 4장은 모든 세대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청사진으로써의 노령화를 표현해 보았다.

각 장의 사뭇 다른 분위기는 어떤 시각으로 나의 미래를 볼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제안한다. 인생은 어차피 희로애락이다. 슬픔 안에서 희망을 찾고, 기쁨 안에 가려진 어두움도 있다. 한 면만 가진 인생이 아닌 다각적 모습의 짜고 맵고 단맛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그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지상정이 생긴다. 그러나 “늙음”은 미리 경험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회가 더 노령화에 “문제”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 쓰임이 소외된 연령대랄까?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노인들의 내면세계와 그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충이 조금이라도 이해되기를... 그들 안의 경험과 지혜와 꺼지지 않는 열정이 이 사회 안에 수용되기를, 그리고 관객, 자신들의 미래에 살짝 대입해 우리가 모두 마주할 현실을 조금 일찍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인지상정”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겨나기를…

나는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와이즈발레단

갓세렝게티(God : Serengeti)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 3월 1일(토)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총연출	김길용	**작곡**	성현지
예술감독	홍성욱	**의상디자인**	김연진(엘의상)
부단장	김수연	**홍보물디자인**	어코즈
안무/연출	김성민	**무대감독**	이도엽
연습지도	이아람, 권세현	**조명감독**	탁형선
무대디자이너	조일경	**음향오퍼레이터**	이용택
영상디자인	김성현	**기획팀장**	이형철
조명프로그래머	석보미	**기획팀**	전준영, 임준형



이 모든 것이 신의 장난이었을까? 혹은 인간들의 무모함이었을까?

작품 <갓:세렝게티>는 와이즈발레단과 발레안무가 김성민의 작품으로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명과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신의 대립 구조라는 상상을 통해 제작되었다. 신은 인간 앞에 존재의 웅대함으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위치에서 인간의 발견과 개발, 전쟁과 폭력 그리고 살인,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수많은 방해에도 끝까지 해결책을 생산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신을 넘어서려는 위대함 혹은 무모함의 양면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한다.

와이즈발레단

와이즈발레단은 2005년 창단 이후 클래식 발레부터 Art Collaboration까지 다양한 공연 예술을 선보이며 연간 10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상, 2022년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및 대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발레STP협동조합, 중국 광저우발레단, 몽골 국립오페라발레단과 MOU를 체결하여 예술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김주비
출연진	김민영, 이지연, 변은지, 김규리, 강희주, 최지윤, 이재인, 김가연, 박소원, 김승혜, 김정연, 박채연, 이채린, 김시현, 서여진, 손하윤, 안지원

인터뷰

안무가 김성민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작품 <갓 세렝게티>는 캐나다의 단편영화 <신의 장난 : 갓 세렝게티 & 갓 시티>가 모티브가 되어 제작되었다. 모티브가 된 단편영화에서는 마치 지구를 축소화 시켜놓은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 앞에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의 유흥거리로 삼으며 인간들의 발명에 훼방놓고, 질병 등 다양한 방해를 일삼으며 즐거워한다. 이 영화를 보며 들었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재난상황 등 국가적 이슈들이 마치 신의 장난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작품 제작의 기획 초안이 되었다. 더욱 깊게 들어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문명을 발전시키며, 결국에는 신에 대항할 만한 무기들까지 생산해낼 정도로 대단하면서도 무모한 양면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 신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무기들은 인간들 스스로를 겨누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까지의 일들은 인간들의 장난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간성을 한 번 그려내보고 싶었다.

지미집 카메라를 무대 위에 올린 독특한 연출 방식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나요?

작품 <갓 세렝게티>에서의 지미집 카메라와 또 다른 카메라 한 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직관적인 작품의 해석으로 설명을 하자면 신의 관점에서 보는 연출 방식이다. 관객의 해석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무용수들의 구도를 천장에서 바닥으로, 즉 수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연출 방식이다. 작품의 해석과 이미지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지미집 카메라를 무대 위에 올렸고, 미술팀과 많은 디자인 회의 끝에 무대 세트에 지미집 카메라가 삽입되는 형태로 무대 위로 올릴 예정이다.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실마리와 영감을 얻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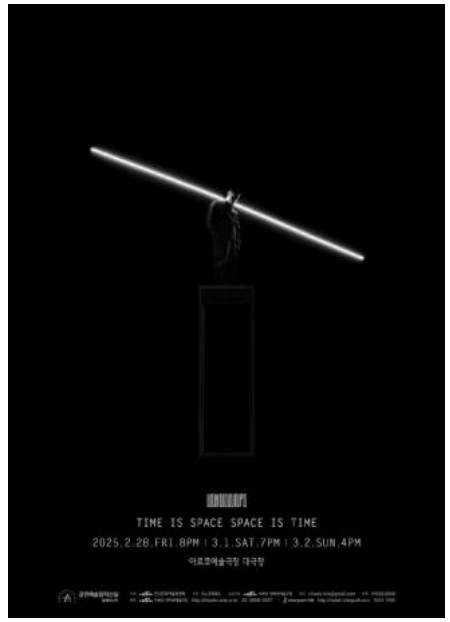
이 질문이 아마 발레 안무가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무용이나 창작 한국무용 등 움직임 범위의 영역이 넓은 장르와 달리 발레 장르라는 한정된 범위가 있기에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발레의 정형화된 움직임 영역 안에서 변형된 움직임을 통해 작품의 메시지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컨템퍼러리 발레 동작 개발에 초점을 맞춰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상이 평화롭길 소망합니다. 관객분들께서는 와이즈발레단 소속 30여 명의 무용수들이 1시간가량 풀어나가는 기량 높은 움직임에 집중해서 보신다면 더욱 특별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노운피에스 UNKNOWNPS

TIME IS SPACE SPACE IS TIME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 3월 2일(일)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5만원

안무	김판선	**의상디자이너**	신호영 SCENE PRODUCT
설치미술	최재용	**공연사진**	BAKI
음악감독	윤혜성 VOID	**공연영상**	이정민
조명감독	김정화	**프로듀서**	국지수
무대감독	김상엽	**협찬**	Dickies Korea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소멸하기도 하고 흔적을 남기기도 하며, 존재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시간, 공간, 기억, 그리고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며, 신체와 오브제, 그리고 빛을 활용한 다채로운 시각적·감각적 표현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여기서 시간은 단선적인 흐름이 아니라 파편화된 형태로 다가온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기억과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소멸하거나, 흔적을 남기거나, 나아가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언노운피에스 UNKNOWNPS

언노운피에스 UNKNOWNPS (예술감독 김판선)의 창작 작업은 주로 인간 본연을 탐구하거나, 현상이나 행동 자체를 관찰하거나,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을 다룬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무용수로서, 안무가로서 겪어온 경험이나 상황에 기반해서 생겨난 그만의 독창적이고 독특한 관점을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본능적으로 몸을 통해 서술된다. 언노운피에스 UNKNOWNPS는 무용을 중심으로 미술, 영화, 건축, 패션 등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다양한 공연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출연진 양지연, 김봉수, 신영준, 정재우, 심재호, 오현택, 홍성현, 김판선

인터뷰

안무가 김판선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이 작업은 시간과 공간의 순환과 그 안에서 남겨지는 흔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의 순간, 현재에 살고 있기에 시공간의 흐름을 느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순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인상을 남기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마주하는 현상, 순간, 존재의 의미를 관찰하며, 그것을 무용이라는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를 안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힌트와 실마리를 얻었나요?

시간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의 형태를 띤다는 철학적 관점이 작품의 전개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묘사하는 대신, 서로 얽히고 연결된 순환적인 흐름으로 다루었습니다.

안무의 특징과 다른 무용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이 작품은 단순한 스토리텔링을 넘어선 총체적 예술 경험을 지향합니다. 움직임, 공간, 조명, 사운드, 의상의 상호작용이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서사되어 관객들이 시간과 공간의 순환을 시각적,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과 의상, 음악,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연출은 시공간의 상대적 특성과 시간의 왜곡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간의 변형과 입체적인 구조는 작품의 깊이를 더하며, 시간과 존재의 다층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관객에게 단순히 무대의 평면적인 시각을 넘어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순환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삶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는 시공간의 무한한 순환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세상에 남길 흔적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 형성되는 관계의 의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계를 넘어선 춤의 지평, 다양한 실험과 도전의 현장

나수진 (무용평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부문 7편의 작품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학로예술극장과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 창작산실 작품들은 문화적 융합, 사회적 주제, 실험적 공간 구성을 통해 춤의 영역을 확장했으며, 전통과 현대, 기술과 신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노동의 물질성과 신체성에 대한 탐구

백주희의 〈당신을 배송합니다〉(2025.01.04~05)는 현대 플랫폼 경제의 핵심인 배송 노동의 실체를 안무적 언어로 해석한 작품이다. 안무가의 배송 노동자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이 작품은 '빠른 배송'이라는 현대 사회의 욕망과 노동자의 신체 사이의 긴장관계를 예리하게 포착했다.

무용수들의 정밀한 앙상블과 군무는 기계적 반복성과 육체적 소진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했으며, 카트와 배송 물품 등의 오브제는 노동의 물질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솔로 파트에서의 느슨한 장면 전환과 내러티브의 불연속성은 작품의 비판적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역사적 인물의 신체적 재현과 그 한계

아트로버컴퍼니의 〈녕(寧), 왕자의 길〉(2025.01.25~26)은 조선 태종과 세 왕자의 역사적 서사를 통해 '평안함의 본질'을 탐구한 작품이다. 12명의 남성 무용수가 태평무, 살풀이, 검무 등 전통 춤사위의 현대적 변용을 시도했다.

5장의 옴니버스 구조로 펼쳐진 이 작품은 왕권과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의 갈등을 형상화했으나, 각 인물의 심리적 깊이와 역사적 맥락의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특히 전통 춤사위의 차용이 표면적 인용에 그쳐, 한국무용이 지닌 미학적 층위와 현대적 재맥락화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이루지 못했다.

물리 법칙의 미학적 승화

류장현과친구들의 〈GRAVITY〉(2025.02.07~09)는 중력이라는 보편적 물리 현상을 존재론적 메타포로 확장한 수작이다. 균형, 저항, 낙하, 상승의 역학을 통해 인간 존재와 관계성의 본질을 탐구한 이 작품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신체성으로 전환하는 안무의 본질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2명 무용수의 정교한 앙상블과 신체적 대화는 내적 긴장감을 극대화했으며, 헬륨풍선과 의상 등 최소한의 오브제를 통해 중력과 반중력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했다. 〈GRAVITY〉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유, 안무적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드문 사례로, 현대무용의 지적 가능성을 확장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신체적 대화

99아트컴퍼니의 〈피안의 여행자들〉(2025.02.13~16)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전통음악과 한국무용의 만남을 통해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예술적 대화를 시도한 야심찬 작품이다. "머물 수 없는 몸은 닿을 수 없는 땅을 향해 간다"라는 주제 아래, 이주와 유목의 경험을 지닌 신체들이 만나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모색했다.

원형 객석 배치를 통한 공간의 재구성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위계를 해체하고, '피안'이라는 상상적 공간의 공동 구성을 가능케 했다. 무용수들은 부르키나파소 전통과 한국무용의 기법을 유기적으로 접목하며 문화적 융합의 실천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다양한 개념적 요소들이 다소 산만하게 배치되어 서사의 일관성을 저해했다.

노년의 신체와 시간성에 대한 고찰

창작그룹 괘념치의 〈로망(Roman) 노망〉(2025.02.21~23)은 노화와 기억, 세대 간 단절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다. 낭만적 열망(로망)과 인지적 상실(노망) 사이의 모순적 공존을 탐구하며, 전문 무용수와 비전문 노인들의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간병, 회고, 존재 가치 등을 4장의 구성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특히 무대 디자인과 오브제의 상징적 활용이 돋보였다. 그러나 3장 이후 과도한 장치와 복잡한 구성은 작품의 집중력을 분산시켰고, 실험적 형식과 주제적 일관성 사이의 균형을 저해했다.

신과 인간의 대립 구도와 발레적 표현의 모순

와이즈발레단의 〈갓세렝게티〉(2025.02.28~03.01)는 신과 인간의 투쟁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발레적 어휘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캐나다 단편 영화 '신의 장난: 세렝게티'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문명의 진화와 신적 질서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주제의 형이상학적 깊이와 발레 형식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신-인간의 복합적 관계를 표현할 안무적 어휘의 개발이 미진했고, 개념적 야심과 실제 구현 사이의 간극이 두드러졌다. 창작산실 유일의 발레 작품으로서 형식적 다양성에 기여했으나, 주제적 심도와 예술적 완성도 모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시공간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철학적 탐구

언노운피에스의(2025.02.28~03.02)은 시공간의 관계성을 안무적으로 탐구한 작품이다. 선형적 시간관을 해체하고 공간-시간의 상호 침투적 관계를 신체와 무대장치로 구현하며, 인간 인식의 한계와 가능성을 질문했다.

LED 라이트봉, 스테인리스 박스, 회전 원형바닥 등을 활용한 미니멀리즘 미학은 철학적 질문을 감각적 경험으로 전환시켰다. 다만 시각적 장치의 강렬함이 때로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압도하여, 안무의 본질적 요소가 부차화되는 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과학, 철학, 안무의 접점을 탐색한 의미 있는 실험으로, 창작산실 무용 부문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의 가능성과 과제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 부문은 한국 컨템퍼러리 댄스가 당면한 미학적 도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7편의 작품들은 개념적 깊이, 신체적 언어의 개발, 형식적 혁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춤의 경계를 확장하려 시도했다.

〈피안의 여행자들〉과 〈GRAVITY〉는 개념적 야심과 신체적 구현의 균형을 이루며 가장 완성도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다. 반면 〈녕, 왕자의 길〉과 〈갓세렝게티〉는 흥미로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안무적 언어로의 변환에 한계를 드러냈다.

오늘날의 무용이 단순한 형식 실험이나 개념 예술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고유한 지성과 감각을 통해 세계를 재해석하는 예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무 어휘의 본질적 개발과 동시대적 맥락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무용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향한 의미 있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작품의 완성도와 예술적 깊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통 예술의 현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제로서, 앞으로의 한국 무용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창작산실의 취지인 예술의 동시대성, 다양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젊은 안무가들의 작품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명성을 얻은 안무가들보다는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진 안무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창작산실이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한국 무용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다양성으로 한 발 나아간 무용 작품들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총평

김예림 (무용평론가)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우수 신작 발굴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6개 장르 31개 작품까지 17회 동안 총 332편의 신작을 배출하며, 국내 최대 규모, 최다 장르의 공연예술 신작 발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용 장르는 2011년 '창작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안무 영역이 열악한 발레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4년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 추가되며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에서 분산 주관해 오다가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모든 장르를 총괄 관리, 집행하고 있다.

이번 2024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연극 7편, 창작뮤지컬 7편, 무용 7편, 음악 2편, 창작오페라 3편, 전통예술 5편이 선정되어 1월~3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국립극장 등의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필수 회차 의무에 따라 무용은 대극장 3회 이상, 소극장 4회 이상 규정을 따르고 있다. 2018년 무용 장르에서 9작품이 선정된 적도 있었으나 최근 몇 년 간 7개 전후의 작품이 선정되고 있다. 무용 부문 선정작은 백주희의 〈당신을 배송합니다〉, (주)아트로버컴퍼니의 〈녕(寧), 왕자의 길〉, 류장현과 친구들의 〈그래비티〉, 99아트컴퍼니의 〈피안의 여행자들〉, 창작그룹 괘념치의 〈로망(Roman) 노망(老妄)〉, 와이즈발레단의 〈갓세렝게티〉, 언노운피에스의 〈TIME IS SPACE SPACE IS TIME〉이다. 7작품 중 백주희의 〈당신을 배송합니다〉 1작품을 제외하고 모두 대극장 작품이 선정되었다. 올해 특이 사항으로는 6개 장르 가운데 무용에서 홍보대사가 선정되어(최호종) 영상, 음성, 포토존 등으로 창작산실을 홍보했다.

올해 무용 작품들은 장르와 규모, 스타일 면에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명성에 비해 아쉬운 공연도 있었고, 기대 이상의 역량을 펼친 경우도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은 동시대적 관점에서 창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반복 선정되는 단체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신규진입이 어렵고 참신한 작품/안무가 지원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아졌는데 창작집단 괘념치와 백주희 등이 새롭게 선정되어 신선했으며, 유명한 무용가이지만 창작산실에는 처음 선정된 김판선의 작품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던 점도 무용 관객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반면 안무가의 작가성이 아니라 제작사의 기획력에 의존한 작품의 경우는 우려대로 졸작을 낳고 말았다. 나머지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예술성과 완성도에 있어서 상향 평준화되었고 특출난 작품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용은 다른 장르와 달리 세부 장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무용 창작에 장르 삼분법을 적용하는 건 고루한 관점이겠지만, 지원신청 시 세부 장르(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를 표기해야 하고 심의위원 구성도 세 장르의 고른 분배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직은 장르 삼분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억지로 균형을 맞추느라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장르 구분을 생략해도 좋을 것이다.

매년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선정 단계부터 완성작 발표까지 많은 무용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지원 액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엄선하는 과정의 전문성과 주최기관에 대한 신뢰, 권위도 큰 이유일 것이다.

17년 동안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사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관객 대상을 따로 뽑기도 했고, 뮤지컬에서 시작해 장르를 확장해 왔으며, 코로나 같은 불가항력의 상황에 대처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전담심의위원을 두고, 공연장 규모에 따른 의무적 공연 횟수를 지정, 주요 제작진의 변경을 금하는 등 계속해서 예술가와 관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17년간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며 창작산실 사업은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용 관객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3개월간 펼쳐지는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이 그해의 우수작 모음이라는 축제가 되어 붐-업을 일으키기를 바람에도, 현재의 공연 일정으로는 이러한 호응과 관심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2~3일씩 공연되는 작품 7개가 거의 열흘/보름 간격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무용가의 편의를 봐주기보다 장르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데 모으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것이다.

창작산실은 탈락한 무용가에게 실망과 상처도 남겠지만, 일련의 심의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창작 아이디어가 수면 위로 꺼내지고 가능성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창작 독려와 마중물 역할의 성과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무용가는 인터뷰 준비 과정에서 막연했던 주제를 구체화시키고 심도 깊은 리서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스스로 극장을 잡아 공연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세 단계의 심의 과정에서 논리와 성의를 드러내야만 하는 창작산실은 무용가들의 창의력 도출뿐 아니라 논리와 방어력까지 키워주고 있는 셈이다. 관객들에게는 완성된 우수작 공개가 전부지만, 창작산실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 시간, 무형의 창작물까지 확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



아트그룹포네

사라지네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 2월 28일(금)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연령	만 6세 이상
티켓	전석 3만원

총감독	이재구
극본	황동우
연출	서지원
작곡	이연승, 김희정, 이재구, 양영광
드라마터그	이나라
드라마연출	이호웅

출연진 김신웅(지휘), 박재린(바이올린), 송민아(비올라), 이호찬(첼로), 박노익(베이스), 승경훈(플룻), 홍성수(클라리넷), 임보현(피아노), 신봉주, 이정수(타악기), 최진한, 김정수, 노화연, 조연희(안무), 김동규, 김보민(연기)



고금을 초월한, 사라져야 비로소 살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음악 예술인과 청중이 함께하는 현대 창작 음악극 '사라지네'는 5막으로 구성되며, 4명의 작곡가, 앙상블, 연기자가 협업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음악과 연기, 동선은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실시간 소통과 예술적 세계관의 확장을 추구하며, 관객을 새로운 표현의 세계로 초대할 것이다.

아트그룹포네

아트그룹포네는 한국작곡가협회 산하 '작곡가일번지' 소속 작곡가 중 회화, 연극, 사진, 무용 등과 협업해 확장된 음악을 시도하는 작곡가들이 모인 단체로,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인터뷰

대표·작곡 이연승 총감독·작곡 이재구 연출 서지원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작곡가 | 아트그룹포네의 연주회를 기획하는 중 황동우(연출/대본)의 연극 '사라지네' 원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각각의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주며 각 이야기마다 주요 모티브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원작이 갖는 모티브 구성법과 <아트그룹포네> 작곡가들이 연주회를 기획하고 창작 과정을 거쳐 공연이 되기까지의 주요 모티브 설정 방법은 매우 흡사합니다. 작곡가들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 개성은 다르지만 주요 모티브를 공통으로 다루면서 연주를 기획하고 창작 과정을 거쳐 공연으로 막을 올리는 단계적 과정까지 잘 매칭이 되어 음악극 '사라지네'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 인류의 시작과 끝. 그 사이 그들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이 작품의 원작인 연극 '사라지네'를 관람 후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이야기로 인간의 생존, 욕망, 관계, 파멸, 믿음 등 그로 인해 야기되는 감정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음악과 극적 언어로 드러내 보고자 한 시도입니다. 무화과 화분은 생명과 희망의 상징으로, 인류의 재건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기술과 인간의 소외는 게임기 다마고치로 이야기하고 욕망과 파멸은 역사 속 튤립 파동에 비유합니다. 역병과 부적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이 위기 상황에서 의지하는 비합리적 믿음을 탐구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화해는 이해와 공감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무화과 화분을 들판에 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과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합니다.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작품 속에서 작품을 관통하는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작곡가 | 음악극 '사라지네'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사라져야 비로소 살아지네'입니다. 사라져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예단한다는 것, 편견, 의심, 미신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인데 각각의 5개의 에피소드 안에서 이야기 소재와 함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지원 |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된 메시지는 "인간의 관계와 성찰을 통한 회복과 희망"입니다. 작품은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소외, 관계의 단절, 그리고 공감. 그로 인해 야기되는 파멸과 회복 그사이 존재하는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작품 속 이야기들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성찰을 주제로 삼고, 파멸과 회복의 반복 속에 드러나는 감정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시사합니다.

작품의 음악적 특징과 기존의 음악극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작곡가 | 음악극<사라지네>는 4인의 작곡가의 고유한 음악적 언어와 스타일이 독립적인 완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서사를 조화롭게 연결합니다. 각 악장의 분위기와 감정이 대조와 보완을 통해 복합적인 서술 구조와 극적인 몰입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명과 의상, 음악,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서지원 | 음악을 극적 언어의 중심으로 두고 동시에 대사로 표현되는 정보를 최소화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음악적 감정과 심상을 강렬한 연기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각 장면의 무대, 조명, 의상 및 소품은 시대적 특색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진 배우의 행위와 섞이면서 커다란 공간성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각 장면을 관통한 세트와 소품은 모든 장면 속에 다양한 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적층과 나열, 파과 및 비산의 반복적인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관계와 회복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상징적이며 극적인 공간 이미지들로 보는 이로 하여금 생경한 모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나요?

작곡가 | 음악이 언어로 들리고 나아가 스토리로 들리는 음악극 무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클래식 현대음악이 폭넓은 층의 관객과의 가까운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애쓴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지원 | 처음 보는 낯섦이길 바랍니다.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독창적 형식,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극적 공연성을 강조한 이미지들로 "인간의 본질적 관계와 희망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의도합니다.



정진희(그레이코드, 지인)

공기에 관하여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 3월 1일(토)
장소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관람연령	12세 이상
티켓	전석 2만원

출연진 그레이코드(GRAYCODE), 지인(jiiiiin)

《공기에 관하여》
그레이코드, 지인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Quivering Air
GRAYCODE, jiiiiin
Art Sonje Center
Art Hall
2025.
2. 27. 19:00
2. 28. 19:00
3. 1. 14:00, 17:00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공기가 전하는 진동을 우리의 두 귀로 포착함에서 시작한다

〈공기에 관하여〉는 개별 전자음악 작곡가이자 작가 듀오 그레이코드, 지인의 창작곡으로 구성된 연주 공연으로 아트선재센터 아트홀에서 열린다. 작가는 공기의 진동, 소리의 음압 그리고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작품의 언어로 활용하여 비가시적이지만 실재하는 현상을 소리로 드러내는 작품을 만든다. 본 공연은 소리를 듣는 감상은 공기로 전해지는 진동을 우리의 두 귀와 몸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상기하면서, 물리적 현상을 심상에 닿는 예술적 사건으로 변환시킨다.

정진희(그레이코드, 지인)

그레이코드, 지인(조태복, 정진희)은 개별 전자음악 가이자 아티스트 그룹이다. 공기의 진동, 소리의 음압 그리고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작품의 언어로 활용하여 비가시적이지만 실재하는 현상을 소리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만든다. 백남준아트센터, 아트선재센터, 송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등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작품을 발표했고, 독일 ZKM 주최의 전자 음악상 "기가-헤르츠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인터뷰

정진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공기로 전해지는 진동을 우리의 두 귀가 포착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뇌는 두 귀가 포착한 진동을 해석하며 진동이 소리로서, 음으로서, 언어로서 의미를 갖게끔 만들지요.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 음악을 떠올린다면 서정적인 현악기의 선율이 그려지지만, 동시에 현악기의 G현이 만드는 진동이자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악은 소리라는 물리적 현상을 심상에 닿는 예술적 사건으로 변환시키죠. 《공기에 관하여》는 예술적 사건으로 변환되는 현장성에 주목합니다. 작가와 관객이 공연장에서 작품이 연주되는 시간 동안 동일한 시공을 공유함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순수 창작 전자음악'이라는 장르가 생소한데, 이 장르의 주된 특징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작가가 글을 쓰고 화백이 그림을 그리듯 작곡가는 음악을 창작하지요. 특별히 저희는 어쿠스틱 악기가 아닌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전자 음을 활용한 음악을 만듭니다.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순수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순수 창작 전자음악이라는 장르로 소개하였습니다. 장르로의 구별 또는 단어로서의 의미보다 동시대 창작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반영하는 창작 음악인만큼 지금 이 시대의 작곡가들이 지향하는 소리와 음악적 표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현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음악적 서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동시대 유행하는 전자 악기의 소리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작곡가들마다 어떤 표현을 활용하여 음악을 창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음악적 표현의 특징과 다른 작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그레이코드, 제인이 만드는 음악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긴 파장의 진동'이 이끄는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긴 파장의 진동, 즉 낮은 음은 귀로 듣기 전 몸으로 전해집니다. 낮은 음이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면, 공기의 진동은 공연장의 벽을 타고, 소리를 반사시키는 물체들과 관계하며 우리 귀에 전달되기 직전까지 변형되고 얽히죠. 회절이 강한 낮은 음은 '지금. 여기'의 현장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소리를 전달합니다. 《공기에 관하여》를 만드는 음악적 표현들은 실시간의 시간성과 현장성을 소리의 물리적인 특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관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소리를 들으며,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얻고는 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상상해 본다면, 그 소리에서 위급함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가 움직이는 방향, 더 나아가 나의 행동도 결정하고는 합니다. 이렇듯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단일한 사건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공기에 관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이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감상이라는 단일한 상황으로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작품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그저 순수한 물리적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일상에서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까지의 소리를 여과 없이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내게 어떻게 들려왔고, 어떤 감정을 드러냈으며, 어떤 행동을 이끄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 분야 총평

최우정 (공연예술 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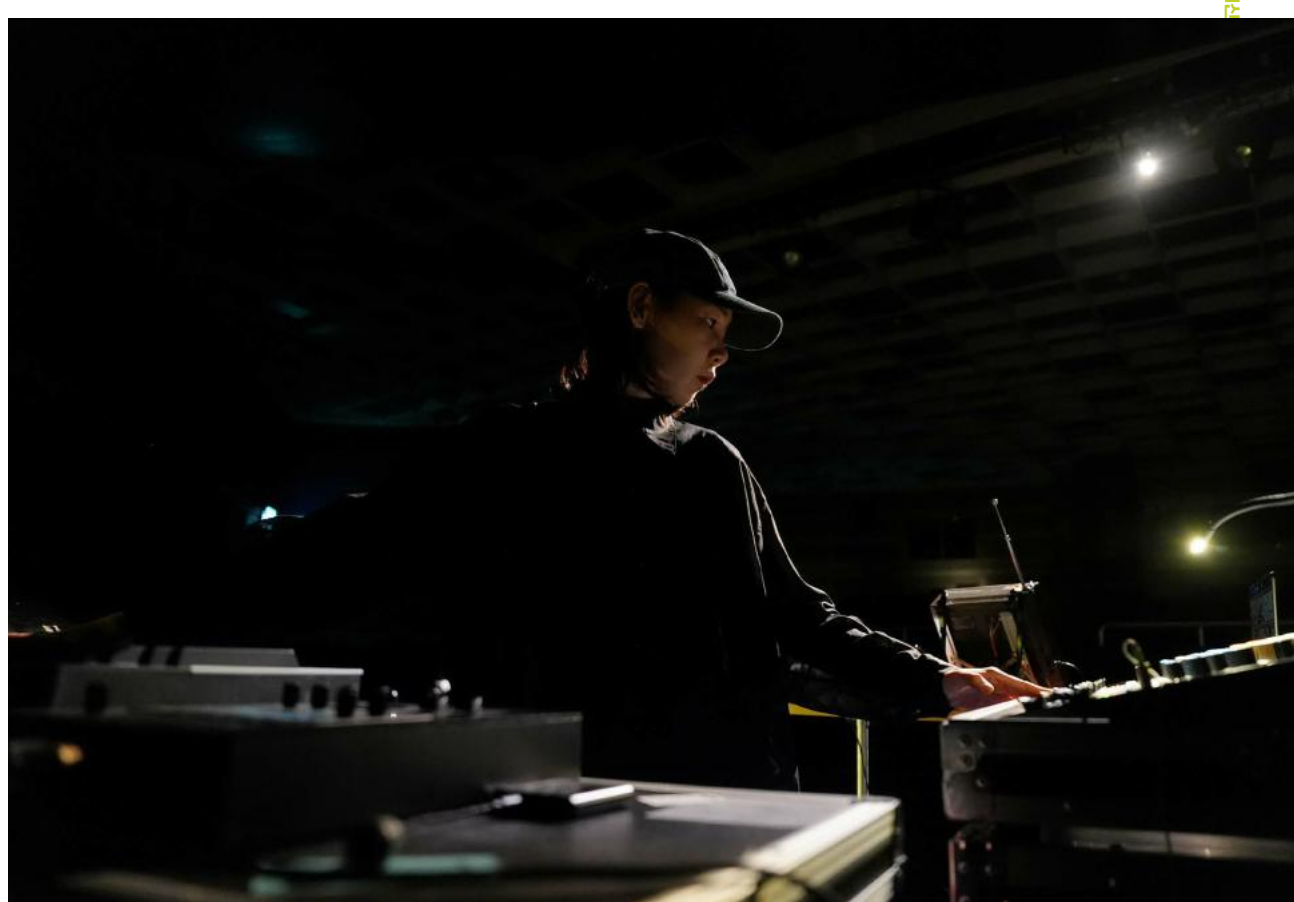
무엇보다 두 작품 모두 현재 21세기 공연예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획-창작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기존의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공연 형식을 따르는 작품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작품의 내용 이전에 공연 형식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두 작품 모두 공간과 공연 형식 간의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공간적인 제약을 오히려 장점으로 역이용하는 연출적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때로 내용보다는 형식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네〉는 그 한계를 벗어나 그 분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선보였고, 〈공기에 관하여〉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익숙한 공연 형식을 취했지만, 악기 및 여러 장치들의 배치, 실연자의 동선 등에 관한 연출적 아이디어가 흥미로웠습니다. 두 작품 모두, 젊은 세대를 포함한 미래 관객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연 형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간다면 더욱 독창적인 형식으로 다양한 세대의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아 공연예술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젊은 세대의 예술적 역량은 매우 뛰어납니다.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극작, 연출, 안무, 연주, 무용 등의 기술적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여러 예술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와 양식의 탄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 시 장르나 양식의 모호함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실험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젊은 예술가들이 훨씬 더 과감하고 독창적인 시도들로 공연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두 공연은 그러한 측면에서 본 사업의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울타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제대로 된 융합이 가능하다는 오래된 충고가 있듯이, 예술가들이 새로운 형식을 탐구하는 중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높은 기술적 수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두 작품 모두 다소 부족했습니다. 〈사라지네〉는 음악극을 표방하면서도 막상 음악이 극적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설령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음악과 극의 새로운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저 배경음악 정도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대본, 극작, 연기, 연출, 안무에 걸맞게 음악 자체의 수준은 나쁘지 않았지만, 배경음악으로서의 역할 외에 음악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말소리를 비롯하여 무대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음악극의 구성 요소로 다루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음악과 극의 관계에 관한 훨씬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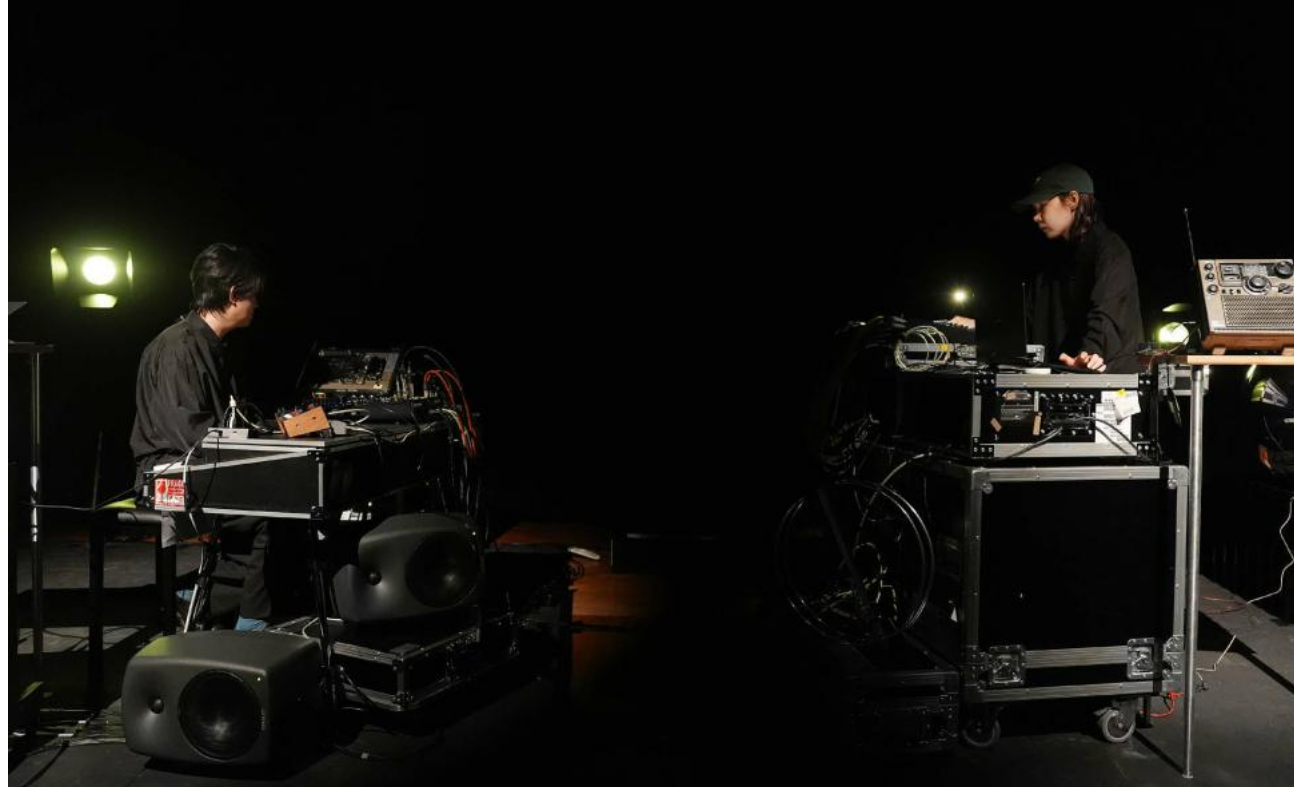
〈공기에 관하여〉 역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음악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술적인 숙련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그리 신선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허를 찌른다면 그 공연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주 소재가 사운드, 즉 소리인데, 하나의 미디어로서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시공간에서의 움직임,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그리 새로운 접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상이 공연에서 사라지는 방식, 건반악기 연주에서 그 외의 장치를 오가는 방식 역시 좀 더 세심한 연출이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일상적이든 아니든, 무대 위의 모든 것은 결국 연출된 것이 아닐까요? 공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역시 공연의 일부입니다. 〈공기에 관하여〉와 같은 경우, 실수가 실수로서 그냥 끝났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처리를 통해 공연의 에너지가 단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 장치를 이용하는 공연일 경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한 플랜 B도 반드시 설계해 놓아야 합니다.

관객의 수와는 무관하게, 〈사라지네〉의 경우는, 관객 수는 많았으나 참여자 수가 많은 만큼 많은 부분이 친지로 채워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클래식 현대음악 발표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공연 형식의 새로움과 내용의 재미가 돋보인 만큼 좀 더 전문적인 기획, 홍보 체계를 갖춘다면 많은 다양한 관객을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공기에 관하여〉는, 관객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이 공연이 속한 분야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젊은 관객들이 방문했다고 판단되며 공연예술의 경계 확장이 단지 공연되는 작품 자체만이 아니라 관객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로 향하는 여정에 서 있는 두 작품

강지영 (음악학자)



가능성과 아쉬움의 공존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부문으로 선정된 공연 두 편을 보고 왔다. 언뜻 보면 음악과 연극, 무용 등 여러 장르가 섞인 복합극의 성격을 가진 〈사라지네〉와 전자음악을 베이스로 한 실험적인 공연인 〈공기에 관하여〉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이나, 그 바탕에는 '공연예술창작산실'에 선정될 만큼 독창성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생'으로서의 아쉬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인상을 받았다. 두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서로 다르지만, 음악과 공연을 둘러싼 예술가와 관객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사라지네〉가 다른 예술과 구분되는 음악만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면, 〈공기에 관하여〉는 음악을 음악으로 만드는 조건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025년 2월 28일 세종체버홀에서 있었던 아트그룹포네의 〈사라지네〉는 이야기가 중심에 있고 배우의 연기와 무용수의 몸짓, 연주자의 음악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공연이었다. 일단 극을 이끌어가는 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황동우의 대본은 다섯 개의 개별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화분', '다마고치', '튤립', '송 대감댁 이야기', '살아지네'의 순서로 이어지는 극은 시대와 장소적 배경이 다 달라, 내러티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처음과 마지막 에피소드가 내러티브상 연결이 된다고는 하나, 소통의 부재와 절망('화분')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와 희망('살아지네')으로의 전개가 특별한 개연성 없이 이루어져 아쉬움을 자아냈다. 물론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벌어질 법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 파멸, 의심과 불안, 존재에 대한 실존적 질문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서사 중심의 극 〈사라지네〉를 음악극이라 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세종체임버홀의 무대를 반으로 나누어, 한 쪽은 극을 위한 공간, 다른 편은 음악 연주를 위한 공간으로 세팅했다. 정확히 분리된 공간 사용은 음악과 다른 예술과의 연결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재구('화분', '살아지네'), 양영광('다마고치'), 김희정('튤립'), 이연승('송 대감댁 이야기') 네 명의 작곡가는 극 중 인물의 감정선과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펼쳐내는데 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표면적으로 하나의 공연으로서 〈사라지네〉는 크게 무리 없이 극과 음악이 연결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음악과 극의 보다 동등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극에서 음악의 특별한 지위에 대한 고민이 실험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 극에서 음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돋보였다고 할까?

같은 날인 2월 28일 저녁 아트선재센터 아트홀에 있었던 〈공기에 관하여〉는 그레이코드와 지인 두 예술가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음악의 기본 조건인 '소리'와 소리의 진동, 소리의 존재 조건인 공기를 소재로 삼았다. 이 두 젊은 예술가의 실험성은 미술관 지하의 소규모홀이라는 공연장소에서부터 엿보였다. 사실 보다 더 전위적으로 카페나 클럽, 공장이나 광장과 같은 장소를 선택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다. 이미 녹음된 테이프와 무대 뒤 영상이 무대 위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운드와의 결합은 흥미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총 네 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소리와 소리를 만드는 공기의 진동에 대한 여러 매체와 여러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구사되었다. 어떤 곡에서는 아날로그 라디오 기기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음악과 공연장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는 소리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새로이 생성되며 소멸되는 과정을 관객이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기를 의도한 듯했다. 전형적인 음악 혹은 공연의 형태를 벗어난 이들의 작업이 가진 독창성과 유의미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현재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기에 관하여〉는 '실험성만으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져주었다.

예술 작품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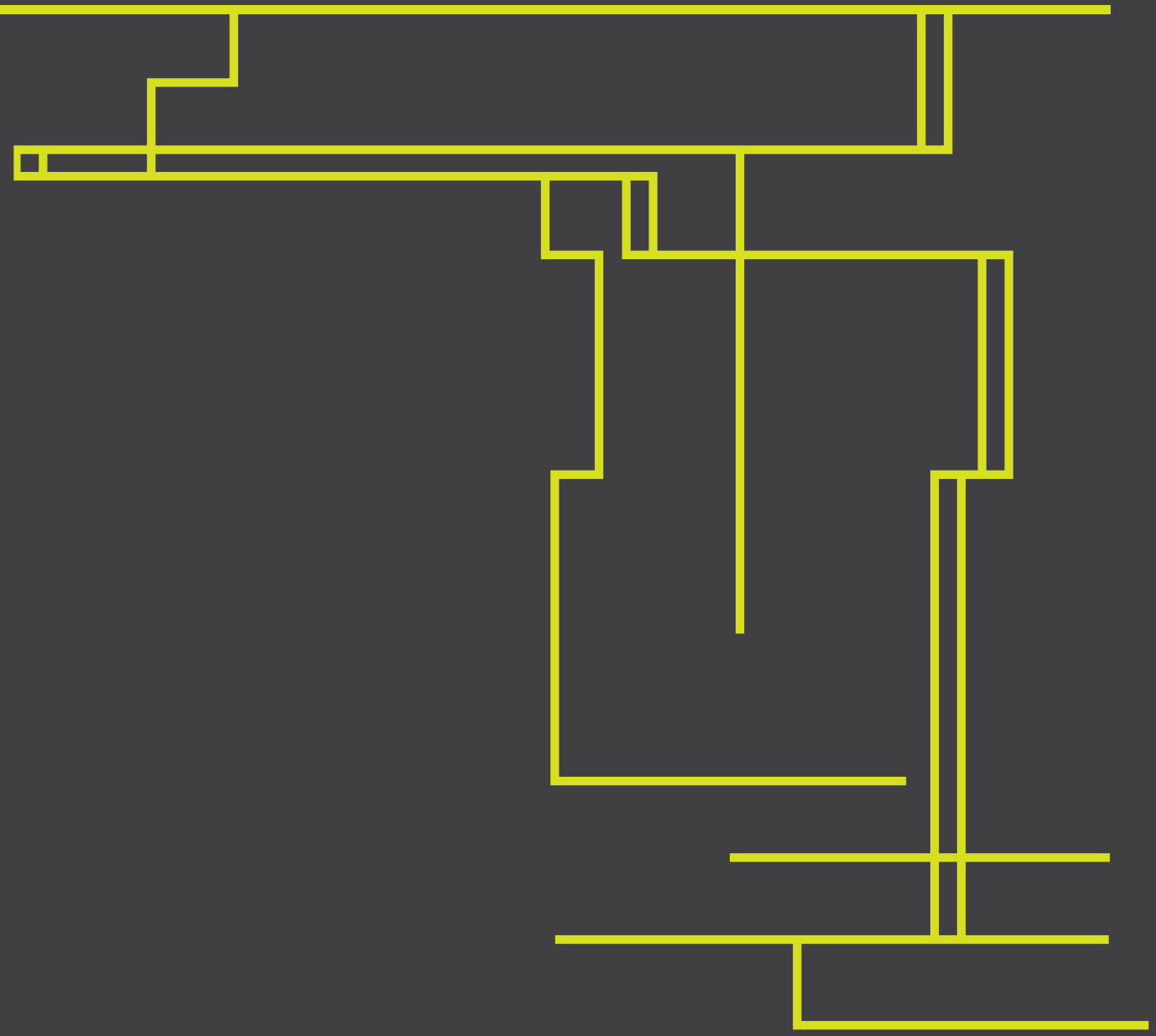
'예술'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참으로 곤란하다. 예술적 표현의 결과 혹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이 용어는 다른 것들보다 탁월한 수준을 보여주거나 독특한 표현 방식을 가졌거나 미학적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운 실행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다. 그렇기에 현대사회에 수많은 작품들이 '예술'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등장과 동시에 거의 사장되고 만다.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예술'의 가치는 탁월한 질적 수준, 독특한 표현 방식, 미적 실행과 결과라는 뜻일 테다.

〈사라지네〉는 무대공연으로 매력이 충분하다.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한 무대, 계란판과 탁구공 등 상징적인 장치, 의상과 소품은 극을 전달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했고, 타악기가 포함된 앙상블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끄럽게 음악을 연주했다. 그러나 작품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금은 각색이나 연출, 작곡에 있어서 비교적 평이하고 안전한 선택을 했다면, 음악과 극의 관계에서 보다 실험적인 시도라든가 예술적 역량이 더 과감하게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은 '아트그룹포네'의 네 작곡가들이 그간 활동한 경력과 작업 스타일을 봤을 때, 관객 타겟층을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이들에게 익숙한 '엔터테인먼트' 대신 보다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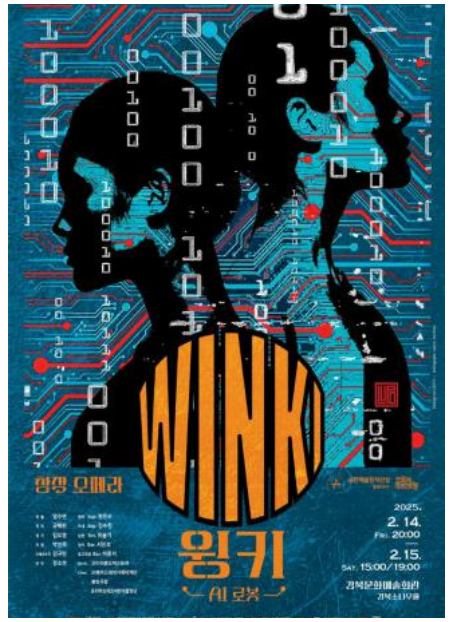
〈공기에 관하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 매체인 라디오, tv, 컴퓨터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가시적 소리를 작곡의 소재로 활용하여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드러낸다는 발상은 훌륭하나, 아이디어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는 없다. 실제 작품이라는 형태로 발표될 때에는 보다 예술적, 미적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전자음악과 사운드아트, 음악과 파인 아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의 태세에 맞춰 더 과감하게 전위적인 공연 형태와 장소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음악을 넘어 소리에 대한 관심과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창작자와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청중의 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통과 교류에 대한 두 예술가의 고민도 보다 깊어지기를 바라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에 거는 기대가 높다. 창작 현장에 몸담고 있는 예술가, 이들을 눈여겨보며 의미를 찾는 비평가와 관객 등 모두가 그렇다. 이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이 말 그대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탄생하게 하기 때문일 테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예술 작품으로서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다. 예술로 향하는 긴 여정에 서 있는 두 작품이 수정 및 보완, 재연을 거치면서 좋은 '작품'이 되기를.

창작오페라







인공지능 시대, 윤리의 경계를 묻다

가까운 미래, 한 가족에게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윤리적 경계와 책임의 문제를 탐구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5개월 아기의 돌연사 앞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본다. '지키지 못한 존재',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이란 보편적 주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장르를 넘어 호소력을 지닌다. 완벽하지 않고 불안정한 인간, 반면 완벽한 기계에 대한 인간의 믿음, 그런 인간을 습득하는 A.I.에 대한 허위성에 집중한다.

디아뜨소사이어티

윙키

일시	2025년 2월 14일(금) ~ 2월 15일(토)
장소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	R석 12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연출	양수연	**조연출**	예수빈
지휘	박인욱	**무대감독**	정길연
작곡	공혜린	**조명디자인**	공홍표
작가	김도영	**영상디자인**	정수림
오페라코치	김규민	**의상디자인**	강기정
안무	정소연	**분장**	김종한
협력연출	김민정	**무대기술 및 세트제작**	이상수(풀굿)

디아뜨소사이어티

"TheArtSociety"는 형식과 장르를 넘어선 무대예술 창작자들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모인 단체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창작극과 동시대성을 위한 오페라를 기획한다. 이미 호흡을 맞춘 공혜린 작곡가와 아동문학 〈피노키오의 모험〉을 시작으로 대본, 연출을 맡은 양수연은 동화 오페라 〈피노키오〉를 제작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후속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재버워키 시 그리고 서커스〉를 기획하고 있다.

기획	박정은, 최유리
출연진	장은수, 김수정, 유슬기, 서진호, 이준서, 코리아쿱오케스트라(오케스트라), 오페라스테이지제이케이, 봄빛극장(합창), 프리마싱어즈(어린이합창 /지도교사 이하경)

인터뷰

연출가 양수연 작곡가 공혜린 작가 김도영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양수연 | 창작오페라 <윙키>는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가족 내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인간성과 기술의 불완전성을 조명합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5개월 아기의 죽음을 계기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주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과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기계' 사이의 대립과 상호작용, 그리고 AI 시대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인간적 질문들이 주요 모티브가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릴 가능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공혜린 | 어느 가을날,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 <윙키>를 봤어요.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롤로그를 보는 순간 '이건 꼭 음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음악을 만들 때 가장 고심한 부분은 윙키의 '기계음 모티브'로, 기계가 작동하거나 취조실에서 벌어지는 충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고, 악기들을 옮겨 다니며 끊임없이 반복 등장합니다.

김도영 |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작품이 <윙키>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로봇은 없으며, 반드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로봇인데, 만약 그 로봇이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어야 하는가를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구상하던 중, 영아의 돌연사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때 로봇의 역할과 영아의 돌연사를 함께 묶어 이야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아 사망 사건의 주요 책임자 '역할'을 부여받은 로봇과 부모라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인간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미래의 AI로봇이 등장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도영 | '윙키'는 어찌 보면 근미래의 로봇이지만, 다르게 보면 현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기계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계 장치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작품들도 다수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음악의 특징과 다른 오페라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양수연 | <윙키>의 음악은 라이브로 연주되며, 미래적 음향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작곡 기법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전통적인 오페라의 구조를 따르면서도, AI의 차가운 메커니즘과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대비시키는 음악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합창은 이야기의 흐름을 전달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청각적 요소를 통해 AI 시스템과 알고리즘의 움직임을 형상화합니다. 이는 기존 오페라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각적 경험을 선사하며 작품의 메시지를 한층 더 강렬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보면 현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기계장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계 장치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작품들도 다수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보다 더 가까운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공혜린 | 기계인 윙키가 서서히 인간처럼 변해가고, 이와 반대로 인간은 서서히 기계처럼 변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음악적 어법을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한 작업은 서로 사용하는 음정을 철저히 분리해 설정한 부분인데요. '기계'는 순수한 날것으로 '완전(Perfect)' 음정 관계를, 사고와 감정의 흐름이 복잡한 '인간'은 '완전'을 제외한 다양한 음정 관계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서사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이 둘의 관계가 차츰 반대 방향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음악도 대조적인 형태를 이루며 따라갑니다. 오페라 <윙키>는 '오늘 방금! 만들어진 웰메이드 오페라'입니다. 스릴 넘치는 장면들과 함께, 매우 재밌고 흥미진진, 다채로운 음악들이 관객분들에게 성큼 다가갈 거라 확신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양수연 | '윙키'는 AI 시대가 가져올 변화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기계의 완벽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신뢰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작품은 단순히 미래 기술을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간성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묻습니다. '삶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인간다운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AI와 인간의 관계를 넘어,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합니다.

공혜린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과연 무엇일까요?

김도영 | 어디엔가 스스로의 생명 유지를 위해 어쩌면 노력하고 있을 수많은 '윙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지 작동 중인 기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전 그것이 제 모습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기계로 탄생하여 잘 작동 중인 윙키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기계처럼 살아가는 윙키 사이에서 막연한 씁쓸함을 느껴주시기를…







기후위기, 더이상 시간이 없다.

탄소가스의 배출로 인해 점점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어 예측 불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이면서도 SF적인 요소를 담아 표현한 오페라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한음오페라단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

일시	2025년 2월 15일(토), 2월 22일(토)
장소	세종예술의전당 / 당진문예의전당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	전석 2만원

총감독	임헌량	무대감독	김선애
연출	김재희	무대디자인	김한신
지휘	백정현	영상디자인	황용회
작곡	이용주	조명디자인	정일만
음악코치	박현숙	의상디자인	이재희
합창지휘	박순석	음향감독	이봉순
안무	김영찬	분장	임유경
		기획	김현미

한음오페라단

한음오페라단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융 · 복합으로 제작·공연하는 전문예술단체다. 현대적 기법을 적용하여 새롭게 구현된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오페라 〈사랑의 묘약〉, 초연창작오페라 〈클라라슈만〉을 비롯하여 초연창작 오페라 〈장욱진〉, 〈나랏말싸미〉를 제작, 무대에 올려 K-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출연진 이한나, 정아영, 진성원, 김종우, M클래식오케스트라, 위너 오페라 합창단(합창)



인터뷰

총감독 임헌랑 연출 김재희 작곡 이용주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지금의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이제 시작이라는 위기감이 작품의 창작 배경이다. 주요 모티브는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이상 기온이다. 어린 시절 사계절마다 다양하게 몸으로 느껴지는 감촉과 감성이 재미있다는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지구의 환경 변화가 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품의 동기이자 출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티핑포인트(제어할 수 없는 단계)를 과학자들이 1.5도C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붙였다.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경고해 왔지만 경제 발전과 국가의 이기주의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현재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을 작품 제목이 나타내 주고 있다. 아쉽게도 지역에 따라 이미 1.5도C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음악의 특징과 다른 오페라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이상기후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현상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실적일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약간의 공상과학적인 요소가 담겨있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음악과 영상에 영화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차별 포인트다.

무대, 영상, 의상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입체감 있는 최첨단 애니메이션 영상과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장면으로 무대를 디자인하였다.

"지구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다"

"지구"는 방대하다고 생각되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요, 문제일 수 있다.

"온 세계는 하나"라는 시각으로 관람하시면 지구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각의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의 모든 생명으로 연결되는 살아 있는 통로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구 온난화의 현상은 내 자손들의 생명과 직결될 내 가족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지구를 회복하게 되는 실질적 삶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집이요, 우리 아이들의 얼굴입니다."





새롭고 영원할
오페라 칼레아 3부작의 시작
'내가 노래하니, 너희 춤추라!
영원할 바다 위의 도시 부탈소로여!'

2096년, 범지구적인 환경 파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거대한 바다 폭풍 칼레아가 발생하여 지구의 삼분의 일이 멸망한다. 2187년, 미래 바다 위 도시 부탈소로. 푸른 달이 뜨는 100년 만의 밤, 전설의 텔로스족이 입항한다. 아나비스는 미래의 에너지 레지오크록스를 부탈소로로 가져오고 도시의 의장이자 사랑하는 연인인 백유진에게 건네 평화롭게 사용하여 인류를 지키려 한다. 하지만 악의 화신인 카네, 카날로아는 레지오크록스를 빼앗아 지구를 정복하려 하는데…

아트팜엘케이 (Art Farm LK)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3월 2일(일)
장소	한전아트센터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	R석 13만원, V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3만원

기획	홍성욱, 윤선영, 박승일
지휘	정금련
연출	김재청
작곡/편곡	이지은
대본/작사	김재청
안무	김시율
조연출	당현민, 김예원
조안무	박혜림
오페라코치	김주은
피아노	전소현
의상	갓윅스, 추정희
헤어&분장	MBC뷰티스쿨의정부, 김진연, 이소현, 윤다정, 계현경, 안현정

아트팜엘케이 (Art Farm LK)

2010년 창단된 아트팜엘케이는 음악극 장르에서 우리만의 레퍼토리 창작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13개의 공연 레퍼토리, 350곡의 음악저작권, 2개의 음악영화, 18개의 클래식 앨범, 3개의 악보집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유 중이다. 오라토리오 마르티레스, 칸타타 초석, 음악극 라구사, 대불호텔, 145년 만의 위로, 오페라 시간 거미줄, 칼레아 시리즈 등을 공연하고 있다. 글로벌 발매된 앨범 중 모두 14개의 음악이 클래식 탑 차트에 진입되었다.

조명	임수연
영상	엄광헌
타투	김린정
소품	조민정
출연진	김순희, 남수지, 홍채린, 차보람, 김지훈, 김지민, 원유대, 강현욱, 최병혁, 류성현, 오바울, 김병희, 이희상, 지필두, 김세진, 김세훈, 엄태준, 김다우, 성기중, 박솔, 길목영, 박혜림, 장서림, 메트오페라합창단 (단장, 이우진), 미네르바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장용성, 악장 김주은)

인터뷰

작곡가 이지은 지휘자 정금련 작가·연출 김재청
출연진 김순희 김지민 김지훈 차보람 김병희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작가·연출 김재청 |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코페 외무장관의 해수면 상승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간절한 인터뷰에서 스토리의 영감을 받았다. 때마침 UN이 한국의 부산항에 건설 계획을 발표한 플로팅 시티는 소재면에서 강한 자극을 줬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작가적 탐구와 호기심으로 긴 시간 동안 취재 여행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130년에 한 번씩 뜨는 블루문의 주기율과 해수면 상승이 극에 달하여 거대한 바다 폭풍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은 스토리의 시발점이 되었다. 해양 언어인 스페인어, 인도네시아 발리의 평화로운 신과 인간의 조화, 해신제와 같은 한국의 전통 굿 등이 인간과 신, 전설과 신화라는 구조속에 미래 SF라는 시간 속에 녹아들도록 구성했다.

작곡가 이지은 |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인류 생존의 위협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미래 지구의 위기, 환경과 생존을 중심에 두었다. 지구의 생존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인물들은 생태계 복원과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여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작품은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원형적 갈등(생존, 사랑, 자연과의 조화)을 다루는데 이는 고대와 현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탐구한다.

2187년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오페라에 스페인어가 사용되는 이유와 어떻게 준비 중인지 소개해 주세요.

작가·연출 김재청 | 오페라의 언어가 미래의 해양민족의 언어로 기술되길 바랐다. 오페라의 배경 도시가 미래의 바다 위 도시이고 이 도시에 한국인만 산다는 설정이 아닌 다민족 국가의 대표 국제도시로 설정되어 있다. 해양 언어의 적극적 탐구가 있었으며, 제주 방언, 인도네시아어, 폴리네시안 민족 언어 중 모두를 포함한 언어가 연구되었다. 미래 해양 국제도시 언어로 스페인어를 채택하고 주제 합창, 주요 아리아, 오페라 철학이 담긴 음악 등에 사용되었다.

테너 김지훈 | 스페인어 대본들은 발음에서 오는 오페라적인 발성 표현에 도움을 주고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창작오페라인 동시에, 기존 클래식 오페라를 감상할 때와 같은 공기를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페라의 탄생에 기준점을 두고 주한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으로부터 스페인어 발음과 표현을 교정 받으며 감동적인 오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휘자 정금련 | 한국어와 스페인어 2개의 언어가 사용됨에도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되어, 오페라 안에서 2개의 언어적 유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차별화된 점이다. 두 언어가 갖는 리듬적 요소들은 때로는 스페인과 남미 음악으로 때로는 한국 전통으로 녹여져 매우 흥미롭게 다가와 자못 무거운 주제인 환경 파괴라는 메시지를 오페라 안에서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게 한다.

음악의 특징과 다른 오페라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테너 김지민 | 한국 고유의 판소리를 클래식 오페라에 접목 시킴으로써 K-오페라 만이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된 앙상블의 포인트가 있다. 미래의 효과음들과 한국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한국의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잘 나타내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 이지은 | 국악 소리꾼의 참여로 전통 국악적 요소를 서양음악과 결합해, 한국 음악의 정체성과 현대 오페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음악적 어법을 탐구하고자 했다. 전통적 서사와 현대적 문제를 결합해, 한국적 정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낸다.

테너 김지훈 | 부탈소로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스물여덟 전곡을 관통하는 음악사적 시대와 형식의 다양성에 있다. 바로크, 낭만과 현대 양식의 음악들과 미래 음악 양식까지 표현하며, 음악은 언제나 인간사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낸다. 다양한 종족과 민족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많은 관객들의 음악적 감상의 즐거움 또한 충족시킬 수 있다. 오페라의 21번 곡 '미래로의 초대'에서 사용된 리듬 형태의 음악 기법들은 미래로의 기계적인 시그널,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고 대표하는 모스부호 그리고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 생물인 향유고래의 의사소통 수단인 '코다'등 음악적 장치들이 숨어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휘자 정금련 |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를 즐기시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순희 | 저도 역시 오페라 무대가 기다려집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오페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환경과 바다의 메세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소프라노 차보람 | 전 세계가 달라진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셔서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함께 즐기시고,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너 김지민 | 이상기후와 자연환경의 파괴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바라보며 인간의 나약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중하게 살며,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미래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베이스바리톤 김병희 | 생명을 구하려는 이들과 파괴를 꾀하는 이들의 대립이 또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희망과 재앙이 나뉘는 모습을 통해, 관객분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한국 창작오페라의 가능성

유윤종 (문화전문기자)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페라'라는 단어는 지나간 시대의 걸작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세계를 배경으로 한 바로크 오페라와 피압박 민족의 봉기를 그린 베르디의 초중기 오페라, 길거리 갑남갑녀의 치정 살인극이 펼쳐지는 19세기 말 베리스모 오페라는 그 배경뿐 아니라 문학적, 음악적, 스펙터클적 층위에서 때로는 같은 장르로 보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층위를 갖는다.

오늘날 한국에서 제작되는 오페라는 어떤 면에서 장르적 '오페라성'을 주장하고 취득할 수 있을까? 이 작품들은 작곡되고 제작되고 초연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장기적으로 대중에게 소구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새롭게 창작된 오페라들에 있어서 그 '지역성'과 '시대성'은 얼마나 요구되는 것일까?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관람한 세 편의 오페라를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답변과 가능성,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작품은 디아뜨소사이어티가 제작한 '윙키'(2. 15 강북문화예술회관), 한음오페라단의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C'(2. 22 당진문예의전당), 아트팜엘케이의 '칼레아 부탈소로'(3. 1 한전아트센터)다.

세 작품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는 오페라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창작산실은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장르별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다.

한 주 간격으로 관람한 세 작품은 현 시대 인류가 처한 새로운 현실 또는 환경에 착안한 점이 흥미로웠다. '윙키'는 인간을 상당 부분 대체할 AI와 로봇이 가져올 근미래와 이로 인해 발현 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 및 새롭게 제기될 윤리성의 문제를 조명했다.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와 '칼레아 부탈로소'는 나란히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환경파괴와 인류의 파멸을 경고했으나 전자는 인류의 종말에, 후자는 협력과 구원의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윙키'의 주인공은 아이돌보미 로봇이다. 한 가정의 아기가 의문사한 시점에서 극은 시작된다. 아이를 24시간 지켜볼 로봇은 왜 죽음을 방치했을까. 형사의 시점에서 의문을 풀어나갔지만 수많은 질문이 제기된 뒤 관객이 가장 알고 싶은 범죄의 진실은 여전히 의문 또는 열린 결말로 남겨두어 불필요한 궁금증이 남았다. 비극이 시작된 시점에서 극이 시작되었으나, 며칠이 지났는지 아픔을 토로하는 부부의 대화는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하다.

2020년 오페라 '까마귀'로 주목받은 작곡가 공혜린의 곡은 현대적 창작 어법과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어법이 혼합되었다. 국악기 생황을 비롯한 여러 목관악기가 반주부에 포함되었는데, 플루트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서 음색의 변화를 제한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대사였다. 창작 대본에 한국 작곡가가 곡을 붙였는데도 음수율(音數律)을 맞추려는 듯 서양어 번역투를 연상케 하는 어색한 가사가 자주 귀에 걸렸다.

로봇 윙키와 부부를 상대로 한 형사의 취조 과정이 자칫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극에 기복을 부여한 주인공은 윙키와 같은 복장을 했지만 윙키의 소프라노 음색과 대조되는 바리톤이 노래한 '알고리즘'이었다. 인간을 대체한 AI는 자아가 있는 것일까, 또는 그 자아는 알고리즘이 대체한 것일까. 자아가 있다면 그 자아는 알고리즘과 반복하는 것일까 또는 협력하는 것일까. 인식론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 깔린 설정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윙키와 바리톤의 음역 대조는 효과적인 장치였다.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는 주조연의 경계가 없는 영화적 오페라를 표방했다. 굳이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 보자면 무리하다고 할만한 설정들이 엿보였다.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 증기기관 등 과거 온난화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을 차례로 찾아가지만 실패한다'는 플롯의 토대는 자칫 뻔히 예상할 수 있다는 단조로움에 빠질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극적 장치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 '예상 가능성' 자체를 구할만한 아이디어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페라 '윤동주' '유관순' 등 여러 오페라를 선보여 온 이용주 작곡가의 곡은 라벨의 발레음악 '다프니스와 클로에'나 20세기 미니멀리즘 작곡가 필립 글래스의 도큐멘터리 음악 '아니마 문디'를 연상시키는 복합적인 음악어법으로 관객을 흡인할 만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는 독창성의 부족을 지적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의 객석에 호소할 수 있는 나름 영리한 선택으로 읽혔다.

이번에 감상한 다른 두 오페라와 비교해 이 작품에서는 지휘자가 곡의 흐름을 꿰뚫고 적소에 흐름을 장악한 모습이 역력했다. 독립된 갈라 콘서트용 '넘버'로 활용할 수 있는 곡들이 들려왔는데, 특히 여성 이중창 '미련한 인간들'이 독창적인 선율미를 가졌으면서도 호소력 있게 다

가왔다.

마지막 장면 '멸망'에서는 비극적인 가사와 대조되는 온화한 멜로디가 서로 겉돌아 보였다. 순서를 바꾸어, 이 부분에 사용된 음악을 곧 장면으로 보내되 인간이 후회와 반성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가사로 바꾸고, 그 뒤에 비로소 비극적인 합창과 관현악 총주로 작품을 마무리했으면 더 효과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다.

세 번째로 관람한 '칼레아 부탈소로'는 파국으로 끝난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와 달리 파국 이후에 구원의 가능성을 엿보는 지구를 무대로 삼았다. 판타지 문학을 연상시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설정한 점은 신세대적이었다. 레치타티보나 대사 없이 아리아와 중창, 합창의 연결만으로 진행된 점이 독특했는데 문제라면 프로그램북 등을 통한 별도 설명 없이 무대만 보아서는 관객이 서사를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다행히 프로그램북은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담아냈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관객 친화적 노력들이 엿보였으며 객석 점유율도 높았다.

이 오페라의 설정은 이렇다. 인류 최후의 보루인 플로팅 시티 '부탈소로'에 여러 민족이 이주해 온다. 주된 민족은 한국인과 텔로스족이다. 텔로스족 공주 아나비스는 부탈소로의 의장인 한국인 연인 백유진에게 미래 에너지원인 레지오크록스를 건넨다.

텔로스족은 스페인어를 쓰며 이 오페라의 가사도 대부분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되어있다. 스페인어를 쓰는 텔로스족의 모습은 얼마간 남미 밀림 지역에서 온 부족을 연상케 한다. 이에 상응하듯 짝수 리듬의 8박을 3:2:3으로 분할한 라틴적 리듬이 주를 이뤘다. 라미레스의 '미사 크리오야'를 느끼게 하는 점도 있었다. 거의 모든 음악이 4마디 배수 단위의 악구-악절로 나눠져 중반 이후로 갈수록 단조로움이 느껴졌다.

'지구온난화 1.5도 C'처럼 이 오페라도 가수들이 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래했다. 다른 점이라면 앞의 오페라가 극장의 음향 문제를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증폭장치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 반면, '칼레아 부탈로소'의 경우엔 처음부터 증폭장치를 고려해 작곡한 것으로 느껴진 점이다. 음향적 특색에 있어서 현대 뮤지컬 음향과 많은 접점이 있었다. 합창단은 일부 비성악적 발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했고 반주 음향도 뮤지컬 극장에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무대는 해수면 상승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들처럼 비계가 불쑥불쑥 솟은 해양도시를 묘사했다. 무대 배경이 두 시간 동안 전환되지 않아 지루함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를 벗어나는데 조명이 도움을 줄 수 있었겠으나 조명도 단조롭다고 할 만했다. 2막에서는 17세기 조선이 표현됐는데 무대에 설치된 구조물은 바뀌지 않았다. 곡에 삽입된 판소리가 비슷한 톤으로 전개되던 음악적 구조에 변화를 주었다.

백유진이 획득한 레지오크록스는 결국 인류를 구원할 보물이 되며 극은 끝난다. 바로크 시대 오페라 극장에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일종의 정형이 있었다. 여러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하늘에서 기계 장치의 신이 내려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설정이다. 당대에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극을 단조롭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레지오크록스는 이 극의 '데우스'가 아니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오늘날 오페라는 과거 오페라의 전성기와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맞이했다. 관객의 호응과 입소문이 작품의 생존을 좌우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오페라는 정부나 지자체(유럽 등) 또는 민간기업(미국 등)의 지원에 그 생존을 의존한다. 뮤지컬을 비롯한 경쟁적인 볼거리가 널려 있다. 실제 현대 오페라 관객의 많은 수가 뮤지컬 관람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뮤지컬과 오페라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지 못한 채 오페라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 온다.

'윙키'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 '칼레아 부탈로소'가 가진 오페라로서의 장르적 특징은 무엇일까. '클래식 음악'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것일까. 대중적 어법을 넘어서는 '진지한' 음악의 문법일까. 또는 대중성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 주제의식일까. 세 작품 모두 일정한 차별성은 엿보였다. 그러나 무엇이 이를 오페라로 만드는지에 대한 핵심적 고민은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 차별성은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왜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이 시대 이 지역에서의 오페라의 미래를 정할지 모른다.





창작산실 창작오페라

〈윙키〉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 〈칼레아 부탈소로〉 총평

송현민 (음악평론가)

동시대적 소재의 차용: 참신함으로 가는 길

창작오페라의 소재가 역사적 사건이나 위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은 동시대적 소재가 많았다. 3개의 작품 중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이하 1.5도 C)와 〈칼레아 부탈소로〉가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공통 소재로 겹친다는 점에서 살짝 놀랍다. 〈윙키〉도 오늘날 화제와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AI)을 소재로 했다.

기존 창작산실 창작오페라의 소재들을 살펴보면 역사, 위인 등 지나간 시간에서 건져올린 소재들이 많다. 우리가 지나쳐온 역사에 담긴 인간사를 노래와 음악으로 빚어 조명하는 의미는 좋으나, 한편으로 동시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거'가 아닌, '미래' 세계를 조명하는, 일명 '미래 오페라 축제' 같은 느낌이었다. 특히 '윙키'는 소재의 한계를 탈피하여 일상과 미래사회를 바꾸고 있는 AI를 소재로 하여 참신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소재의 변화는 창작오페라의 경향은 물론 관객과의 거리도 좁혀준다. 그리고 소재를 풀어내는 극작술과 서사에 있어서도 많은 상황과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는 관객들이 쉽게 알아듣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절약적 흐름'과 '경제적인 대사'를 취해 언어 표현과 상황을 전달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한편 〈칼레아 부탈소로〉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혼재되어 가사와 서사 인식이 어렵게 느껴졌다. 제작진의 실험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가사 전달이 잘되지 않았다. 음악적으로 반복되는 노래와 가사도 전체적인 서사를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창작오페라는 그 내용이 잘 알려진 고전 오페라와 달리 탄생(초연)과 동시에 세상에 없던 이야기를 처음 제시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서사적 흐름과 내용 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오페라과 뮤지컬, 그 사이에서

대중과 창작오페라의 간극은 크다. 일단 창작오페라를 제작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생산되는 양이 적으니, 창작오페라'계(界/Scene)'라 할 수 있는 장르적 독립 지형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해 관계자나 관객들이 창작오페라 작품을 매번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드물다. 흔치 않은 장르이기에 낯설고, 또 20세기 현대음악과도 닿아 있어 작곡가들 역시 '난해한 장르'로 창작오페라를 대한다.

이번 창작산실의 작품들은 대중적 소재를 취한 만큼 음악적 분위기도 비교적 대중친화적으로 다가갔다. 친숙한 음악적 분위기, 뮤지컬과 음악극 같은 작곡 어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창작산실의 다른 연도에 생산된 작품들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 중 하나다. 이는 어떻게 보면 창작오페라가 짙은 실험적 장르로 인식되는 가운데 작곡가들과 연출진이 느낀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음악에 있어서 뮤지컬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띠며 관객들에게 다가간 〈1.5도 C〉는 대중친화적인 선율 구조와 상황 설정을 통해 대중적 친화감을 탑재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페라인지, 아니면 뮤지컬로서의 준(準)오페라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 들기도 한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단 오페라-뮤지컬-음악극의 장르적 경계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만나고 있는 현주소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시각적 연출력 돋보여

오늘날 대중은 시청각이 어우러진 문화에 익숙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진 복합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전방의 일상용품이다. 이러한 시류를 잘 읽어낸 연출가들의 무대 연출과 디자인이 모든 작품에서 돋보였다.

오페라는 과거의 고전이든 오늘날의 창작물이든 음악에서 성악 장르에 해당하지만, 한편으로 연극, 무용 그리고 무대기술이 복합된 다매체 장르다.

〈1.5도 C〉에서 기후 위기를 알리는 재난실을 묘사·재현한 무대미술, 〈윙키〉에서 미래적 시공간을 재현한 무대미술 등을 통해 오페라가 음악을 통한 작품이며, 동시에 시각적 연출을 통해 진화하는 작품임을 보여주었다.

출연진의 우수함

창작오페라의 초연은 작품성은 물론 연주력 역시 중요하다. 세 개의 작품 모두 초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 음악가들의 연주력이 상당했다. 창작오페라를 만드는 것은 작곡가와 작사가지만,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역시 출연진의 실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단 1월과 2월은 공연계의 비수기로 특별한 공연이 없다. 이러한 환경적 여건이 출연진에게 충분한 연습시간을 확보해 주는 데 일조한 것 같다. 다만 재연이 될 경우 공연계의 성수기인 10~12월에 무대에 오를 텐데, 초연에서 보여주었던 역량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조금은 궁금하다.

장기 공연, 재연 공연 위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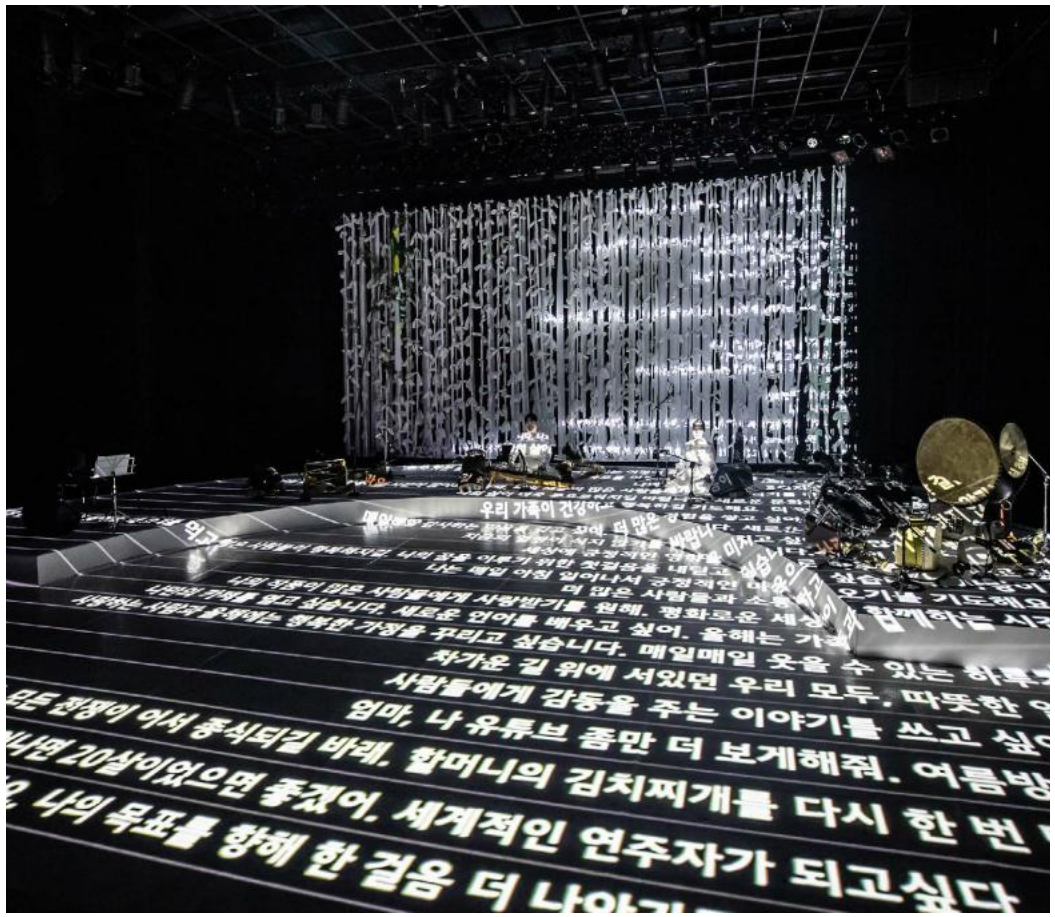
공연 분량의 축소 필요: 최근에는 관객들이 긴 분량의 공연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늘의 관객을 향한다는 창작오페라의 목적상 향후 작품 분량이 축소되면 좋을 것 같다.

작품 규모의 축소 필요: 작품 소재나 무대 기법의 특성상 대형 오페라보다 축소된 중소형 오페라 규모로 잘 다듬어, 중극장이나 블랙박스에서의 공연도 시도해 볼 만하다.

전반적인 정리와 정립의 필요: 동시대성을 표방한 소재, 오페라·뮤지컬·합창 등 여러 형식의 차용, 이를 통한 형식의 다양함 등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특히 <칼레아 부탈소로>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공연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무대에서 구현되는 형식의 다양함은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로 작용하여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애매할 때가 많았다. 오페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아리아와 합창의 구분 없이 대부분 합창과 중창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주연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윙커>의 경우도 <칼레아 부탈소로>가 보여준 단점이 중간마다 드러나곤 했다. 초연에 이어 재연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정리와 정립이 필요한 것 같다.



건축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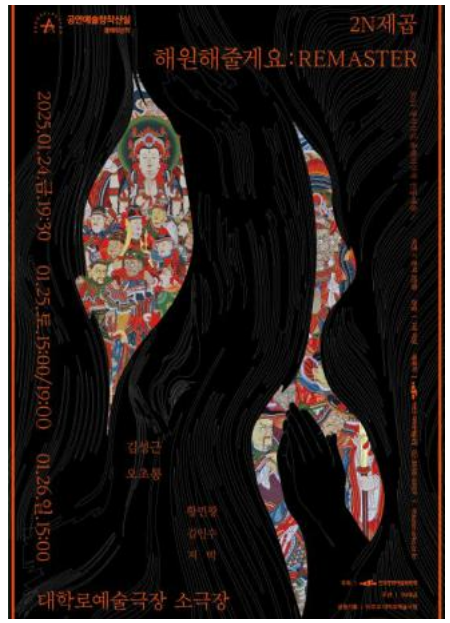


2N제곱

해원해줄게요: REMASTER

일시	2025년 1월 24일(금) ~ 26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연령	만 7세(초등학생) 이상
티켓	전석 3만원

연출/기획/작곡	2N제곱	**무대감독**	박민호
제작PD	하늘벗	**무대디자인**	임민
음향감독	노익환	**의상디자인**	우영주
조명감독	김건영	**출연진**	김성근, 오초롱, 황민왕, 김인수, 지박
영상감독	송지훈		



간절히 바라고 빌던 그 마음, 해원

해원(解寃). 신 또는 조상에게 빌어 원통한 마음을 풀게나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해원해줄게요>는 씻김굿, 황해도굿, 범패 등 한국의 해원 문화에 담긴 다양한 예술을 근간으로 창작한 공연이다.
전통예술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소스가 아닌 그 바탕이 되는 창작을 지향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해원해줄게요"

2N제곱

김성근(아쟁, 태평소, 노래) X 오초롱(피리, 태평소, 생황, 노래)

창작그룹 '2N제곱'은 두 명의 연주자가 한계 없는 무한한 음악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전통음악에서 주요 선율을 담당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쟁과 피리 연주자가 만나, 전통을 근간으로 즉흥적이고 창작적인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를 위해 두 연주자는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를 병행하며, 오롯이 전통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나간다.





인터뷰

김성근, 오초롱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는?

〈해원해줄게요〉는 2021년 COVID-19 시국에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실험적이고 학구적인 무대보다는 모두가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해원 문화에는 다양한 예술이 존재하는데 그 바탕이 간절함에서 비롯된 만큼, 보다 진중하고 심도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이라 칭할 만큼 깊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다양한 대중음악에 가려져 자주 실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팀은 전통예술 본래의 색을 흐리지 않는 창작 방식을 지향하였고, 그 작업을 통해 무대 위에서 관련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이번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각각의 예술은 행해진 지역이나 장소, 형태 등이 모두 다르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이 '해원'의 뜻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본 공연을 통한 잠시나마의 쉼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에 조그마한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작품에 핵심적으로 쓰인 오브제나 소품이 있다면?

오브제를 특별히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고 영상과 조명, 무대 디자인을 통해 표현하려 합니다.

무대 구성이나 조명, 영상 등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쓴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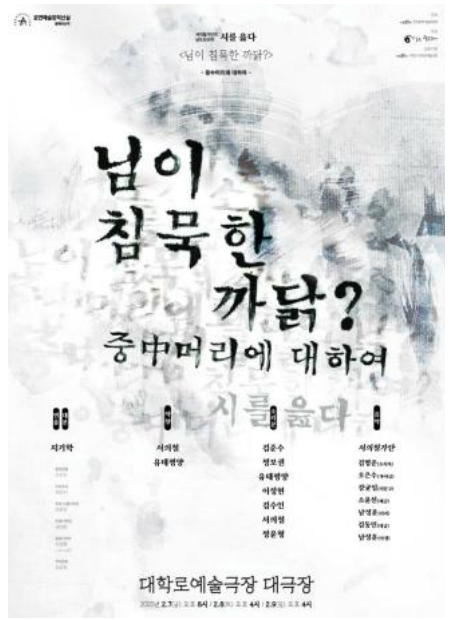
본 공연은 실제로 굿에서 행해지는 절차와 의식을 다양한 장면적인 연출을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굿이 시작되기 전 법사나 중이 경문을 외우는 모습, 분주하게 굿상을 차리며 기대에 찬 모습, 신이나 망자를 청배하는 혼맞이굿, 접신한 조상신과 함께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며 노는 모습, 망자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혼을 씻겨 저승으로 보내는 송신 등. 이러한 절차를 본래의 굿의 형태와는 다르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표현합니다.

또 첫 곡과 끝 곡에 영상을 송출하는데 마지막 곡에 소낙비가 내리는 장면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 망자의 이승에 대한 집착과 과오를 표현하며 쏟아지는 비에 망자의 혼을 씻겨내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길 바라나요?

특별히 뚜렷한 기억으로 남는 것보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의 쉼이 되는 따뜻한 시간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침묵에서 이분二分된 소리. 근현대 시와 만나다

"사는 게 뭐지?" 가벼이 되뇌고 주고받지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늘 있을 물음. 시(詩)도, 소리광대들이 고저장단으로 드러낸 소리도 그 물음에서 출발한다. 근현대 일곱 시인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시어들이 우리 삶의 서사와 정한을 담아온 우리 소리길과 장단을 만나 새로운 육자배기로 드러난다.

주식회사 아정컴퍼니(서의철가단)

남도 선소리 – 시를 읊다 <님이 침묵한 까닭?> 중中머리에 대하여

일시	2025년 2월 7일(금) ~ 9일(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	전석 4만원

대본/연출	지기학	**조명디자인**	공연화
작창	서의철, 유태평양	**음향디자인**	오영훈(스튜디오공)
음악	서의철가단	**무대감독**	김상엽
음악감독	오은수		
프로듀서	곽민서		
무대/소품디자인	정윤정		

주식회사 아정컴퍼니(서의철가단)

'온고지신'의 정신을 새기며 현재 전승되는 전통음악을 제대로 익혀 새롭게 전승, 듣기 좋고 향유하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 문학과 풍류를 주도해왔던 가단(歌壇),

눈부신 전통예술의 발전을 꿈꾸며 2016년 창단한 서의철 가단은 정통(正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통(傳統)을 만들어 나갑니다.

출연진 소리꾼 : 김준수, 유태평양, 정보권, 김수인, 서의철, 이성현, 정윤형
김명준(소리북), 오은수(가야금), 강균임(거문고), 소윤선(해금), 남정훈(피리), 김동인(대금), 남성훈(아쟁)







인터뷰

대본·연출 지기학 출연·작창 서의철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지기학 | 유명 시인이 길어 올린 정련된 언어로 새겨진 시경(詩境)들이나 장삼이사(張三李四), 무명인이 드러낸 시심(詩心)은 시어의 차등은 있으나 그 시어 들이 길어 올려진 심연(深淵)은 평등하리라. 심연의 바닥은 밑을 알 수 없음으로 평등을 증명한다.

옛 소리꾼들이 이 시어들을 선택해 육박(六拍)의 진양조와 중(中)머리 장단에 남도 선율로 담아내고자 한 심연의 속성(屬性)은 무엇이었을까? 남도 선소리, 혹은 남도 통속민요 중에 가장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육자백이"와 "흥타령"을 부르던 전문 가창자들이 지향했던 궁극의 예술성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에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과 그곳에서 발생한 울림을 소리꾼들이 율려(律呂)의 변주(變奏)로 드러내보고자 한다.

유태평양님과 함께, 직접 작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작업하셨나요?

서의철 | 작창이라는 것은 작곡처럼 따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지금까지 배운 소리들이 쌓여 있는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책장을 걷어보기도 하고, 자주 읽는 책을 들여다보기도 하며, 나에게 주어진 글귀에 소리를 입히는 작업이다. 이번 작창은 지기학 연출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가사를 띄우지 않아도 들릴 수 있는 소리'에 중점을 두었다. 연출님께서 기대하신 소리를 완전히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익숙한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작창가는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고, 소릿광대들이 그 뼈대를 익혀 본인들의 방식대로 살을 붙여나간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색깔이 더해져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소리로 변화하게 된다. 작창뿐 아니라 음악 역시 기존의 수성이 아닌, 이면을 생각하는 새로운 수성 기법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근현대시를 사설로 사용하게 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기학 | 남도 선소리의 사설은 그 소리들이 만들어진 전통시대의 환경과 서정을 담고 있다. 가창 선율의 아름다움은 지극하나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사설 이해의 한계 때문에 현대에 관객에게는 공감이 결핍되기 쉽다.

근현대시들은 전통 가창의 사설에 비하면 한자어가 많지 않고 현대의 관객에게 가까이 닿아 있는 유려한 남도의 선율에 얹히는 노랫말로 쓰였을 때 듣는 이에게 소리꾼이 가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정서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조명과 의상,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지기학 | 병풍과 화문석이 놓인 공간은 소리꾼에게는 최소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것에서 유래한 무대 장치이다. 소리꾼들이 뚜렷하게 보일 화문석을 확장한 간소한 무대 바닥 마감과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을 소리꾼의 소리가 지향하려는 무엇에 집중하게 하는 최소로 무대에 있을 것이다. 의상은 폭이 넓은 도포와 대갓이 아닌 아주 간소화된 두루마기와 소 갓을 단일한 색상으로 착용, 소리꾼 개개인의 인물됨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소리꾼의 인물됨은 외형과 더불어 그가 가진 개성 있는 성음(聲音), 이 성음은 타고남과 오랜 수련의 결과로 얻어진 소리꾼의 참된 면목(面目)이다, 소리꾼의 면목의 드러남, 소리꾼의 가창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관객의 감각과 접촉해 연행이 이루어지는 극장 공간에서 현존의 순간을 일깨우는 죽비나 주장자 역할을 할 것이다. 조명 또한 불필요한 변화나 색상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으면 하나요?

지기학 | 새로 만들어지는 이 소리들이 이른바 전통 음악, 남도선소리 육자백이, 흥타령이 전통이라는 과거 지향의 유산이 아니라 과거에서 출발 현대에 닿아 있는 곁자락 가장 첨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관객의 요청에 의해 자주 연행되어 생명력을 가지면 좋겠다. 또한 젊은 소리꾼들이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애창(愛唱)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소리로 거듭나서 그 긴 소리꾼 삶의 여정에 동반의 가락(歌樂)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서의철 |서의철가단은 '온고지신'이라는 성어를 마음속에 새기며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의 온('溫)은 말 그대로 따뜻함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배우던 수학 익힘책의 '익힘'도 바로 이 '온('溫)의 개념이다. 전통을 제대로 익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서의철가단의 존재 이유이며, 이 음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육자백이와 남도 잡가의 확장, 그리고 우리의 음악이 이 시대의 전통으로 남아 후대에 함께 숨 쉬어 주길 바라며, 여러분들도 '진멋있는' 풍류객으로서 전통의 증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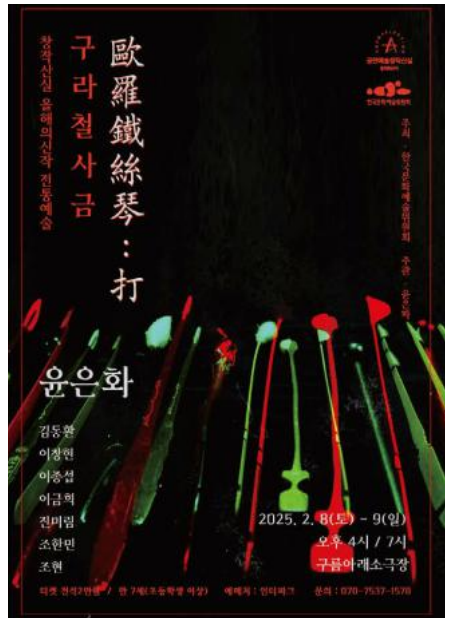


윤은화

구라철사금(歐羅鐵絲琴) : 打

일시	2025년 2월 8일(토) ~ 2월 9일(일)
장소	구름아래소극장
관람연령	7세 이상
티켓	전석 2만원

제작PD	설현주	**출연진**	윤은화, 이창현, 진미림, 이종섭, 김동환, 조한민, 조현, 이금희
연출	이승천		
음악감독	장도혁		
무대감독	정재영, 전가람		



양금의 유율타악기적 특성과 무율타악기의 융합

"구라철사금(歐羅鐵絲琴) : 打"은 음악은 양금과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현악기와의 매칭을 통해 현악기적 면모를 강조한 공연에서 벗어나 타악기의 연주법과 닮아있는 양금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양금이라는 악기가 가진 한계성과 경계를 허물고, 양금의 유율 타악기적 특성과 무율 타악기의 융합을 강조한 작품으로 양금의 대중성, 다양성,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윤은화

한국의 양금은 물론, 북한・중국 양금의 장단점을 분석해 '아시아파워브랜드 대상'에서 악기 제작 부문 대상을 받고 윤은화의 이름이 새긴 양금을 개발했습니다. 56현 12반음계로 이뤄진 '윤은화(YUNEUNHWA)' 브랜드 양금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음역대, 좀 더 다양한 포지션에서 양금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독주악기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선율악기인 동시에 타악기의 연주법을 살려 다양한 타악기, 현악기와 서로 다른 매력을 주고받으며 국악+양악+메탈+밴드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곡한 음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은화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구라철사금 : 打”는 양금의 타악적 특성과 선율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조명하며, 유율 타악기로서 양금이 가진 양면적 매력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전통음악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양금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예술적 매개체로 자리매김시키고, 그 다채로운 가능성을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중에게 양금의 깊이 있는 매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구라철사금: 打”는 양금의 옛 이름인 ‘구라철사금(歐羅鐵絲琴)’에서 유래된 제목으로, 양금이 유럽에서 전래된 악기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악기적 특성을 강조하여, 양금의 독창적이고 다면적인 매력을 한층 부각시킨 작품입니다.

무대 구성이나 조명, 영상 등 연출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쓴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조명과 영상 연출에 특히 공을 들였으며, 그중에서도 영상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곡의 스토리 전개에 맞춰 영상이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되도록 구성하여, 관객들이 연주와 영상을 동시에 감상할 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양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양금을 전공으로 삼은 저는 양금을 개량하고, 가르치며, 연주하는 활동을 통해 언제나 양금을 중심에 두어 왔습니다. 제 작품에서 양금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작품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음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양금이 가진 양극적인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섬세한 양금의 모습은 물론, 강렬하고 파워풀하며 리듬감 넘치는 타악적 면모까지 감상하시며, 양금이 가진 다채로운 가능성과 깊이를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소리 바라지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 ‘돈의 신 : 神’

일시	2025년 2월 14일(금)~2월 15일(토)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관람연령	8세 이상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연출	서정완	음향	정재욱
대본	사성구	조명	김종석
드라마터그	고선웅	무대	한희태
작창	한승석	기획제작PD	오현주
안무	박성호		



돈 내려온다! 돈벼락이 내려온다! 창극 ‘돈의 신 : 神’

평생 가난에 허덕이다 골로간 박대출, 다시래기 도중 너무 시끄러워서 되살아난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려고 ‘돈의 신’을 불러내지만, 그는 눈이 멀어 돈벼락을 내릴 수 없다. 과연 이들의 팔자는?

가난과 희망, 웃음과 감동의 특별한 무대!

2025년, 창극 ‘돈의 신’으로 여러분을 너끈히 모십니다!

우리소리 바라지

우리소리 바라지는 한국 전통음악 및 연희를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서양악기 없이 국악기만을 사용하여 창작함으로써 전통 고유의 예술성과 더불어 동시대성을 추구하는 음악집단이다. 여러 전통음악 가운데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추리고 다듬어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바라지의 음악이 세상을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드는 데 바라지하는 것을 팀의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출연진 조성재, 강민수, 정광윤, 이준형, 김율희, 오영빈, 최은혜

인터뷰

작가 사성구 음악감독 한승석 연출 서정완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사성구 | 이 작품의 원작은 기원전 388년에 공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스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부(富)의 신>입니다. 왜 지금 여기 2025년에 아리스토파네스의 그리스 희극을 소환했느냐고 묻는다면, 역사를 뛰어넘어 이 작품이 주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작품이지만, 가난과 부의 문제와 부의 불균형, 그리고 돈의 불공정성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도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이며 늘 지속되는 변하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사회적 문제를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성구 | 이 작품은 우리 전통 굿이 전승해온 개방적 연행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굿판의 악사들이 연주도 하고 연기도 하고 소리도 하는 개방적인 멀티 형식의 공연입니다. 그러나 자칫 굿의 형식이 과거지향적일 수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시대적 배경을 현대의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으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를 최대한 등장인물들의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대사와 노래 가사로 녹여 넣었습니다. 이 작품은 살아서도 대출, 죽어서도 대출로 살다간 박대출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을 오히려 희극적으로 표출합니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작품 속에서 활용되는 음악의 주요한 특징을 소개한다면?

한승석 | <돈타령>입니다. 힘세고 가진 자들에게 붙어 패악을 부리는 돈을 꾸짖기도 하고, 순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도 흘러 따뜻한 세상의 온돌 같은 돈이 되기를 바라는 작품의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곡입니다.

음악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판소리 어법의 창작소리가 중심이 되어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점입니다. 여기에 민요, 독경, 무가, 연희 양식의 창작소리가 더해지고, 산조, 문묘악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기악 합주곡 또한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모든 음악은 드라마적 의미와 연주적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적절히 디자인되었으며, 무엇보다 소리, 연주, 연기, 춤 등 작품의 모든 퍼포먼스를 바라지만의 힘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조명과 의상,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서정완 | 이 공연 <돈의 신>은 연주자가 무대와 연주석을 넘나들며 신명나는 연기와 연주를 선보이는 개방적인 멀티 코러스의 확장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벼락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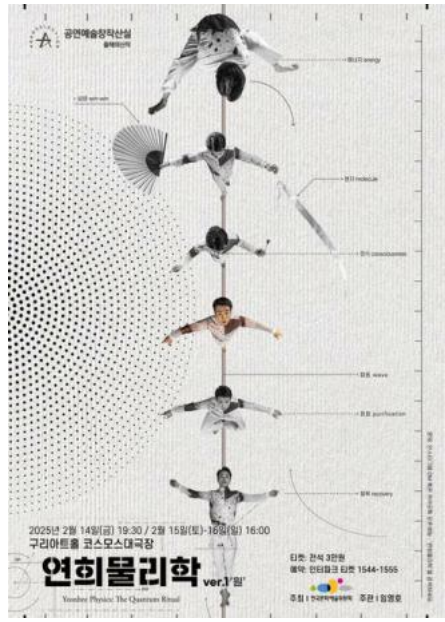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면?

사성구 | <돈의 신>은 우리소리 바라지가 늘 추구해온,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인간답게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하고, 왜 독하고 악착같은 자들이 부자로 살아가는지, 모두가 공평하게 부자로 잘 사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패러독스적인 웃음과 해학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이 시대에 던지는 부의 불평등, 돈의 불공정성에 대한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리스 희극과 우리 전통 굿의 시공간을 넘어선 예술적 만남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향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연희에서 발견하는 물리학과 현대의 제의

본 공연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물리학을 접목한, 의례와 물리적 현상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희에서 파생된 현대적인 사운드와 움직임을 통해 일상의 번잡함을 신명으로 다스리는 정화의 장을 열어낸다. 공연의 각 마당은 파동, 의식, 에너지, 분자, 상생, 그리고 회복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희의 근본인 인간과 땅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변환과 순환을 통해 윈방각, 천지인의 비전을 형상화한다.

임영호

연희물리학 ver.1 '원'

일시	2025년 2월 14일(금)~16일(일)
장소	구리아트홀 코스모스대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티켓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연출	임영호	**무대디자인**	조일경
안무	남현우, 양한비	**조명**	이수연
음악	임용주	**음향**	김규식
드라마터그	채 민	**의상**	최인숙
프로듀서	이란희	**무대감독**	강노을
조연출	안희경		

임영호

임영호는 연희컴퍼니 유희의 예술감독으로 대한민국전통연희축제 예술감독을 연임하고 다시樂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앞장서는 공연 연출가이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연극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예술과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담아낸 공연으로 관객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연희컴퍼니 유희의 유희노리와 유희스카, 국립무형유산원의 무용극 '시그널' 전통예능의 품격 '들리는 몸짓 보이는 숨소리' 전남도립국악단의 가무악극 '푸른고래' 신동 김덕수의 '초연'등이 있다.

임영호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의적 연출로 무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예술과 삶의 본질을 현대적 언어로 구현해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출연진 남창동, 양한비, 성유경, 임호성, 윤선이, 김희수, 전보현, 김향수리, 이한비(연희), 임용주(라이브 일렉트로닉)



인터뷰

연출 임영호 드라마터그 채 민

작품의 창작 배경과 주요 모티브는?

〈연희물리학 ver.1 '원'〉은 전통 연희의 움직임과 리듬 속에 숨겨진 보편적 원리를 현대적 시각과 물리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전통 연희의 신체적 미학과 오금을 탐구하며, 춤과 소리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자연의 리듬과 물리적 법칙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연희의 본질인 움직임, 리듬, 에너지는 현대 물리학이 탐구하는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며, 우리의 호흡처럼 주기적이면서도 규칙적이지 않은 패턴 속에서 전통과 과학의 공통된 언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경계에서 새로운 경험과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연희의 몸짓이 물리적 원리와 공명하는 순간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시각과 감각을 제공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독특한데,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연희물리학'은 전통 연희와 현대 물리학이 만나는 독창적 시도를 담은 제목입니다. 연희는 자연과 인간, 우주의 조화를 몸짓으로 표현하고, 물리학은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융합을 통해 관객은 전통을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제 'ver.1 '원''은 순환과 연결, 균형을 상징하며, 전통 연희의 호흡과 마당 종목의 근간이 되었던 '원'을 새로운 관점으로 무대에 재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ver.1'은 전통 연희의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실험의 지속성을 예고합니다.

기존의 작업이나 다른 전통연희 작품들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면?

기존 전통 연희는 지역적, 민속적 맥락에서 의식과 놀이로 전개되며, 정형화된 장단과 호흡 속에 지역적 특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연희물리학'은 이러한 정형화에서 벗어나 현대 물리학과 전통 연희의 신체적 운동성을 융합해 새로운 무대 언어를 제안합니다.

상모의 회전은 단순한 기술적 퍼포먼스를 넘어 시공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줄타기는 재담과 놀이성을 배제한 채 인간과 우주의 상호작용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재해석을 통해 전통 연희의 본질을 동시대적 철학과 감각으로 확장합니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어 연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를 통해 관객에게 전통 예술의 현대적 가능성과 미래적 비전을 제시하며, 연희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 재탄생시킵니다.

조명과 의상, 무대 등 무대 연출 과정에서 특별한 관람 포인트를 소개한다면?

'연희물리학'은 전통연희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시각화하며, 조명, 의상, 무대 연출을 통해 감각적 몰입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조명은 연희자들의 에너지 흐름을 시각화하며, 상모의 회전과 에너지의 원천인 땅을 밟아 발생하는 오금을 강조해 움직임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단순한 장치가 아닌, 연희의 에너지와 연결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연출 요소로 사용됩니다.

음악은 모듈러 신스와 이머시브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에너지의 흐름과 상호작용을 표현하며, 공간감을 확장해 관객의 집중도를 최대화 시킵니다. 의상과 오브제는 수직적 2분할이 아닌 호흡적 3분할로 수직운동(오금)을 회전운동(상모)으로 변환하는 원리를 반영해 설계되어 연희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사라진 전통 쌍줄타기를 재구성한 타는 줄과 밟는 줄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서사와 상징을 만들어내며 관람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전통과 현대, 예술과 과학이 조화롭게 결합된 이 무대는 전통 연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 작품은 연희의 움직임과 물리학의 원리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을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전통 연희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는 현대적이고도 보편적인 표현의 도구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그 질문들을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과 통찰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은 조화와 균형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관객들이 이 공연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계를 재탐구하며,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움직임 속에는 질문과 답이 모두 담겨 있으며, 그 속에서 관객은 자신만의 '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르 너머 전통의 현대적 융합 모색하다

신정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국내에서 최대 규모, 최다 장르를 만나 볼 수 있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벌써 17회를 맞이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창작산실은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특성을 살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장르별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한다. 전통예술 분야 2024 올해의신작은 〈해원해줄게요:REMASTER〉, 〈남도 선소리-시를 읊다 '님이 침묵한 까닭?' 중中머리에 대하여〉, 〈구라철사금:打〉, 〈연희물리학 ver.1 '원'〉,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 '돈의 신 : 神'〉 5개 작품이다.

전통예술은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비록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지만 실제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기악, 성악, 연희 등을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야들로 나눠지기에 특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창작산실 전통예술 분야 올해의신작들은 복합적이며 창의적인 연출 시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돋보였기에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각 작품을 논하기보다는 작품에서 느껴졌던 예술적 아우라나 독창성,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고민했을 법한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하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하나의 작품으로 브랜딩 할 수 있는 완성도와 확장 가능성이다.

2N제곱의 〈해원해줄게요:REMASTER〉는 '원통한 마음을 푸는' 한국 고유의 해원(解寃)의 정서를 정면으로 다룬다. 한국 고유의 씻김굿, 범패, 종묘제례악 등을 전통 해원 음악을 통해 재창작하여 무대 위에서 작은 굿을 연행한다. 사람들의 다양한 소망과 바램 등을 활자 이미지와 음성으로 채우는 연출을 시작으로 두 명의 연주자가 다양한 악기와 소리를 나란히 하며 산자와 망자를 위로한다. '고'라는 매듭으로 채운 무대와 한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하얀 의상, 그리고 예술성 높은 음악 등을 통해 해원의 이미지를 증폭시켰고, 굿이 가지고 있는 즉흥성, 개방성, 현장성을 최대한 살린 연출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해원이라는 주제에 맞는 적절한 연행 및 안무 퍼포먼스 등이 추가된다면 좀 더 완성된 종합예술로의 성숙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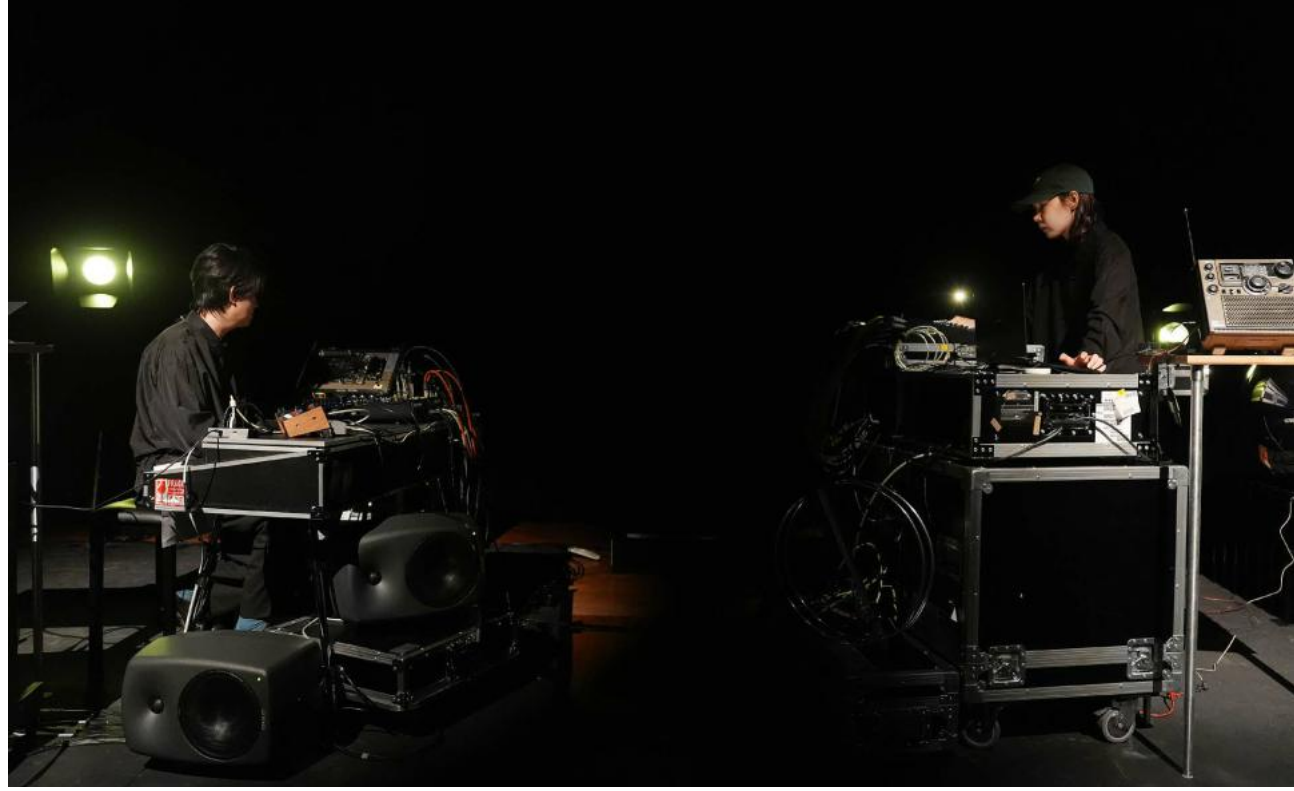
아정컴퍼니의 〈남도 선소리 - 시를 읊다 '님이 침묵한 까닭?' 중中머리에 대하여〉는 모든 대중들이 공감하고 친숙한 한국적 소재가 듬뿍 담긴 '근 현대시'를 사설로 활용하고 여기에 남도 선율을 붙여 고유의 전통을 승화시킨 작품이다. 연행 방식에서 현대적 감각의 미니멀한 확장을 모색하였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미니멀한 현대적 감각의 무대는 화문석이 깔린 풍류방의 전통과 그대로 맞닿아 있었다. 간소한 무대, 무채색인 미색 의상과 소품, 조명 등 간결한 이미지를 통해 한국적 사유와 철학이 지향하는 소박미가 채우는 온전한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남도 선율의 소리꾼들이 부르는 한국 근 현대시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사적 요소가 추가된다면 좀 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연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작년에 젠더프리 캐스팅의 '살로메'에 이어 이번 작품 역시 연출 및 일곱 소리꾼들 모두 남성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런 캐스팅을 통해 공연계와 대중들은 새로운 흐름과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듯하다.

윤은화의 〈구라철사금(歐羅鐵絲琴) : 打(타)〉는 양금이 가진 한계성과 경계를 허물고 양금이 가진 타악기적 특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전통음악의 풍류방이나 일부 궁중 음악에서 사용하던 양금의 역할과 한계를 허물고 양금이 가진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시하면서 사물놀이를 이끄는 주체적인 악기로 변모시켰다. 신천년만세나 양금굿, 양금 시나위 등 전통을 재해석한 곡을 비롯하여 록 음악의 베이스를 둔 창작음악 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양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작곡된 곡의 성격과 연주에 따라 영상, 조명 등으로 무대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연출하여 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 점, 그리고 속도감과 파워의 극대화를 통해 양금의 타악기적 성격을 잘 보여준 점은 탁월했다. 다만 연주자들의 규모나 영상 스케일에 비해 극장이 다소 협소하여 충분한 공간의 활용이 아쉬웠다.



전통을 재발견하는 실험적 시도들 – 2024 올해의신작이 품은 미래적 가치

김희영 (전통예술인)



전통예술의 의미는 고정된 과거의 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통과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재해석되는 과정에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지원사업이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면서, 2024년 전통예술 분야 선정작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창의적 실험의 장으로 관객들을 초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전통예술의 변주

2024년 전통예술 분야 선정작 다섯 편은 고유한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동시대적 실험을 통해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작품들이 단순히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포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원리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발견하려는 깊이 있는 시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2N제곱의 <해원해줄게요: REMASTER>는 무속음악과 제례악이라는 의식음악의 치유적 기능에 주목했다. 디지털 시대의 영상 및 무대 기술을 접목하여 의식음악의 해원(解冤) 기능을 현대인의 심리적 치유와 연결시킨 이 작품은 형식적 재현을 넘어 의례의 사회적·문화적 기능에 주목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

우리소리 바라지의 <돈의 신>은 창극이라는 전통 형식에 '돈'이라는 현대적 주제를 결합하며, 연주자가 배우이자 이야기꾼으로 무대를 넘나드는 통합적 예술가적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적 음악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시도로서, 전통 창극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영호의 <연희물리학 ver.1 윤>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전통연희의 움직임에 내재된 물리학적 원리를 가시화했다. 오금질, 채상, 줄타기 등 연희 동작의 과학적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전통예술이 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 내는 작업이었다.

윤은화의 <구라철사금: 타>는 양금이라는 악기의 정체성을 재해석했다. 흔히 현악기로 분류되는 양금의 타악적 특성에 주목하여 악기의 본질적 성격과 가능성을 재탐색했으며, 음악과 빛의 대화를 시도한 점에서 전통음악 공연의 형식적 확장을 보여주었다.

아정컴퍼니의 <님이 침묵한 까닭?>은 한국 근현대 시와 전통 소리의 만남을 시도했다. 한용운, 김소월 등의 시를 전통 소리예술 형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문학과 음악 사이의 새로운 대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전통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번 선정작들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전통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은 전통의 '해체'와 '재구성'이다. 이는 단순한 파괴나 변형이 아니라, 전통의 본질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첫째, 초학제적 접근과 융합이 두드러진다. 과학, 문학, 기술,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영역과 전통예술의 만남은 이제 단순한 시도를 넘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임영호의 <연희물리학>이 보여준 과학과 예술의 접점 찾기, 윤은화의 <구라철사금: 타>가 시도한 악기학적 탐구와 시각예술적 접근은 전통예술이 다른 학문과 장르로부터 어떻게 영감을 얻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창작자의 통합적 예술가적 역량이 강조된다. 올해 선정작의 예술가들은 연주자, 연기자, 연출가, 작곡가, 기획자 등 다양한 역할을 오가며 작품을 구현했다. 이러한 통합적 역량은 과거 악(樂)·가(歌)·무(舞)를 두루 갖춘 명인들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통합적 예술가적 역량은 단순한 기예의 종합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복합적 사고와 융합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이는 전통예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미학이 중요해지고 있다. 전통예술이 더 이상 일방적 전시나 계승의 대상이 아니라,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함께 참여하는 열린 예술로 변화하고 있다. 아정컴퍼니의 남도 선소리 <님이 침묵한 까닭?>와 우리소리 바라지의 <돈의 신>이 보여준 공감과 소통의 방식은 전통예술이 현대 관객과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한 전통예술을 위한 과제

이러한 창의적 실험들이 단발성 시도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예술 자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빙과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은 개별 작품의 가치를 전통예술 생태계 전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융합형 예술교육 시스템의 확립을 통해 전통예술 교육이 장르별, 전공별 분리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K-전통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예술 창작 지원의 다변화와 장기적 비전을 통해 연구개발(R&D), 인큐베이팅, 국제교류, 레퍼토리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를 품은 전통, 전통을 품은 미래

2024년 올해의신작 선정작들이 보여준 다양한 실험과 도전은 전통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전통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적 자산임을 이 작품들은 보여주고 있다.

문화의 힘은 과거를 고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현재의 맥락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확장해 나가는 창조적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2024년 창작산실 선정작들은 이러한 문화적 창조력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통예술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정작들의 의미는 크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예술과 기술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융합과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도 더욱 풍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한국 전통예술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창의적 실험실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실험실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창작의 꽃들이 한국 문화예술의 풍요로운 토양이 되어,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희망한다.

연극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그류? 그류!	창작공동체 아르케
2008	그 샘에 고인 말	극단 코끼리만보
2008	바다 거북의 꿈	극단 골목길
2009	1동 28번지, 차숙이네	극단 놀땅
2009	경성스타	연희단 거리패
2009	미친극	극단 백수광부
2010	매기의 추억	극단 작은신화
2010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2010	사랑이 온다	극단 전망
2011	그리고 또 하루	극단 연우무대
2011	모든 이에게 모든 것	극단 작은신화
2011	숲 속의 잠자는 옥희	극단 백수광부
2012	그 집 여자	극단 전망
2012	봄이 사라진 계절	극단 작은신화
2012	싸움꾼들	극단 청우
2013	2인실(二人室)	극단 풍경
2013	고공정원	극단 산
2013	팬지	극단 이루
2013	헤비메탈 걸스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4	경복궁에서 만난 빨간 여자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4	공장	극단 미인
2014	그 봄, 한낮의 우울	한강아트컴퍼니
2014	그림자 아이	공연제작센터
2014	날아다니는 돌	극단 백수광부
2014	맘모스 해동	공상집단 뚱딴지
2014	미국아버지	극단 이와삼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색다른 이야기를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2014	엄마	극단 작은신화
2014	홍준씨는 파라오다	극단 놀땅
2015	고제	극단 돌파구
2015	달빛 안갯길	한양레퍼토리
2015	떠도는 땅	극단 두
2015	방문	극단 풍경
2015	우주의 물방울	극단 피오르
2015	토일릿 피플	극단 작은신화
2015	하나코	극단 물리
2016	소나기마차	공상집단 뚱딴지
2016	신인류의 백분토론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2016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창작집단 꼴
2016	좋은 이웃	극단 수
2016	쪽마루 아틀리에	아트브릿지
2016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극단 피악
2016	툇마루가 있는 집	창작공동체 아르케
2016	하늘로 간 청춘팥	플레이그룹 잼잼
2016	혈우	극단 M.Factory
2017	고래가 산다	유목민
2017	깨비가 잃어버린 도깨비 방망이	하땅세
2017	모래시계	극단 목화
2017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 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극단 위대한모험
2017	선을 넘는 자들	극단 놀땅
2017	암전	극단 두
2017	최서림, 야화순례기행전	극단 백수광부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8	가미카제 아리랑	극발전소301
2018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프로덕션IDA
2018	분노 하세요!	극단 파수꾼
2018	비명자들1	고래
2018	빌미	극단 인어
2018	세기의 사나이	극단 명작옥수수밭
2018	하거도	극단 작은신화
2019	목련 아래의 디오니소스	극단 난희
2019	수정의 밤	극단 여행자
2019	체액	즉각반응
2019	터널구간	극단 그룹 動 시대
2019	마트료시카	극단 수
2019	아랫것들의 위	극단 마고
2019	대신 목자	극단 물리
2019	의자 고치는 여인	극단 물결
2020	에볼루션 오브 러브 Evolution of Love	극단 김장하는날
2020	달걀의 일	창작집단 푸른수염
2020	누란누란	극단 산수유
2020	깐느로 가는 길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0	고역	공연연구소 탐구생활
2021	메이드 인 세운상가	극단 명작옥수수밭
2021	탈피	극단 Y
2021	신신방	극단 실한
2021	낮은 칼바람	TEAM돌
2021	콜타임	호랑이기운
2021	화로	극단 인어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2	빵야	㈜엠비제트컴퍼니
2022	노스체(NOSCE)	프로젝트집단 세사람
2022	미궁(迷宮)의 설계자	연극집단 반
2022	견고딕-걸	극단 작은방
2022	엑스트라 연대기	그린피그
2022	하얀 봄	극단 놀땅
2023	언덕의 바리	프로젝트 내친김에
2023	아들에게 (부제 : 미옥 앨리스 현)	극단 미인
2023	TEDDY DADDY RUN (테디 대디 런)	마방진
2023	화전	창작공동체 아르케
2023	이상한 나라의, 사라	창작집단 상상두목
2024	기존의 인형들 : 인형의 텍스트	조음기관
2024	벼개가 된 사나히	여성국극제작소
2024	목련풍선	윤무아
2024	저수지의 인어	극단 달팽이주파수
2024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프로덕션IDA
2024	구미식	극단 돌파구
2024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보편적극단

창작뮤지컬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08	오월엔 결혼할거야 (웨딩펀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도도	학전
2009	달콤한 나의 도시	오디뮤지컬컴퍼니
2009	번지점프를 하다	㈜뮤지컬해븐
2009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0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파파프로덕션
2010	식구를 찾아서	극단 오징어, MJ Planet
2010	콩칠팔 새삼륙	모비딕 프로덕션
2011	Trace U(그 남자의 비밀)	㈜장인엔터테인먼트
2011	Underneath Memory (언더니스 메모리)	㈜스컹크웍스
2012	내 결혼식에 와줘	공연예술제작소 비상
2012	덕혜옹주	극단 그애생각
2012	미드나잇 블루	㈜더프로액터스
2012	영웅을 기다리며	파파프로덕션
2012	완득이	㈜에이콤인터내셔날
2013	공동경비구역 JSA	CenS
2013	가야십이지곡	창작집단 기능재부
2013	곤, 더 버스커	오픈런뮤지컬컴퍼니
2013	런웨이비트	달 컴퍼니
2013	정글라이프	김선미무용단
2013	주홍글씨(A)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4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위네트웍스
2014	달빛요정과 소녀	극단 차이무
2014	바람직한 청소년	㈜이다엔터테인먼트
2014	봄날	극단 하늘하늘
2014	신과 함께 가라	뮤지컬이야기쇼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아보가토	LSM Company
2014	파리넬리	에이치제이컬쳐
2014	운영(서천 꿈길, 저편)	서울오페라앙상블
2015	스페셜 딜리버리(맘2맘)	신나는 극단 하늘 나는 오징어
2015	안녕! 유에프오	LSM Company
2015	에어포트 베이비	㈜신시컴퍼니
2015	웰다잉	스페셜원컴퍼니
2016	경성특사	비무브드 컴퍼니
2016	광염소나타	아시아브릿지컨텐츠
2016	레드북	바이브 매니지먼트
2016	청춘, 18대 1	극단 죽도록달린다
2017	줄리앤폴	컬처트리
2017	찰리 찰리	㈜연우무대
2017	카라마조프	주식회사 아츠온
2018	마리 퀴리	라이브㈜
2018	재생불량소년	아웃스포큰
2018	HOPE: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알앤디웍스
2019	안테모사	공연창작소 M.A.P.
2019	봄을 그대에게	㈜컬처마인
2019	Via Air Mail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
2019	아티스 ARTIS	㈜홍컴퍼니
2020	그라피티	우리별이야기
2020	히드클리프	㈜엠비제트컴퍼니
2020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랑
2020	인사이드 윌리엄	연극열전
2021	이상한 나라의 아빠	㈜다아트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1	#해시태그	㈜바움커뮤니케이션
2021	PIP-위대한 유산	파파프로덕션
2022	청춘소음	시작프로덕션㈜
2022	앨리스	섬으로 간 나비
2022	다이스	(주)컬처마인
2022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	컴퍼니 일상,적
2023	내 친구 워렌버핏	(주)컬쳐홀릭
2023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연제작소 작작
2023	여기, 피화당	주식회사 홍컴퍼니
2023	이솝이야기	주식회사 컴인컴퍼니
2024	무명호걸(無名豪傑)	(주)주다컬쳐
2024	오셀로의 재심	컬쳐인 컴퍼니
2024	그해 여름	주식회사 콘텐츠플래닝
2024	넬리블라이	주식회사 프로젝트구점일
2024	라파치니의 정원	스튜디오선데이
2024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	극단오징어
2024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라이브(주)

무용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1	2040년의 하루	SEO발레단
2011	대답없는 외침	김경영
2011	비애모	김용걸댄스씨어터
2011	<발레-판소리> "발레가 발레를 추다.."	백영태
2012	Once Upon A Time In 발레	와이즈발레단
2012	Untitled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2	천개의 기억	백연옥
2012	회향	글로벌 컨템포러리 발레단
2013	5번째 Birthday Party 抛球 ROCK(포구락)	프로젝트 수(手) & 안팍 Ann-Park
2013	Fake Diamond	Collective A
2013	스코틀랜드의꽃	이원국발레단
2013	I'm so tired	예효승
2013	VANITY(무상)	LEE발레단
2013	관(關)_처용을 주제로 한 다섯 개의 아포리즘	강미리할무용단
2013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조윤라발레단
2013	파랑새	문영철발레뽀에마
2013	푸너리 1.5	장유경무용단
2013	행,간(between the lines)	리케이댄스
2014	RAGE	(사)서울발레시어터
2014	FATAL	Company J
2014	계보학적 탐구	(사)트러스트무용단
2014	눈	댄스씨어터 창
2014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	김경영
2014	시저테일 서전트	박나훈무용단
2014	심청	이경옥무용단
2014	안녕	김설진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4	천	김선미무용단
2014	2015	미나유(유정옥)
2014	Smile Mask Syndrome	이정연댄스프로젝트
2015	THE DOOR (La Danaide)	오!최진수발레단
2015	거울속의 거울	마홀라 컴퍼니
2015	길 떠나는 가족	최소빈
2015	뉴턴의 3법칙	안수영컴퍼니
2016	소무	Art Project BORA
2016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M발레단
2016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정신혜무용단
2016	공상 물리적 춤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시어터
2017	귀신()고래	윤수미무용단
2017	당신의 바닥	PDPC
2017	시집가는 날	(사)서울발레시어터
2018	옛날옛적에	고블린파티
2018	음형공간(音.形空間) - Atopos	콜렉티브 콜라보레이션
2018	인간	신현지
2019	침묵	나인티나인 아트 컴퍼니
2019	"The Chaos" 혼돈	최상철현대무용단
2019	Baroque goes to Present	와이즈발레단
2019	Perfect death	Ground Zero Project
2020	가상 리스트, Virtual List	원댄스프로젝트그룹
2020	가족놀이	PDPC
2020	물속 골리앗	김범호
2020	美 A (미아)	휴먼 스탕스
2017	인생의 사계를 그리는 춤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김남식&댄스투룹-다(Da)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7	Down the rabbit hole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18	Hidden Dimension	UBIN Dance
2018	NUTCRUSHER	허성임
2018	개미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2018	댕기풀이	이경옥 무용단
2018	매스?게임!	장은정무용단
2018	변신	류장현과 친구들
2018	소극적 적극	고블린파티
2018	평행교차	안애순
2019	오월바람	오월바람
2019	호모파베르	호모 파베르
2019	군림	Soo d Art & Co
2019	新청 랩소디	라만무용단
2019	Body Rock	미나유
2019	Swan Lake; The wall	정형일 Ballet Creative
2019	Hit & Run	시나브로 가슴에
2020	평안하게 하라	댄스프로젝트 Tan Tanta Dan
2020	BLACK	노네임소수
2020	플라스틱 버드	최지연 무브먼트
2020	호모 모빌리쿠스	김남식&댄스투룹-다(Da)
2020	고요한 순환	무용단Altimeets
2020	그런데 사과는 왜 까먹었습니까?	YJK댄스프로젝트
2020	두 개의 혀 – A Double Tongue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2020	돌	휴먼 스탕스
2021	모빌리티	멜랑콜리댄스컴퍼니
2021	굿(Exorcism)_사도	댄스씨어터 창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1	28조톤	초록소
2021	조동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2021	Senseless violence(부제: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유장일발레단
2021	윤회매십전	윤회매십전
2022	> “hello world” ;	댑댄스프로젝트
2022	Recall; 불러오기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2022	On the Rock	모든 컴퍼니
2022	태양	시나브로 가슴에
2022	클라라 슈만	(사)서울발레시어터
2022	WHITE	노네임소수
2022	더로드(The Road)	미나유(유정옥)
2023	애니멀	PDPC
2023	Yaras	정훈목 JUMOK Dance Theater
2023	a Dark room	정형일 Ballet Creative
2023	반가: 만인의 사유지(思惟地)	순헌무용단
2023	Where is the Rabbit?	허 프로젝트
2024	당신을 배송합니다	백주희
2024	녕(寧), 왕자의 길	주식회사 아트로버컴퍼니
2024	GRAVITY	류장현과 친구들
2024	피안의 여행자들	99아트컴퍼니
2024	로망(Roman)노망(老妄)	창작그룹 괘념치(5 thoughts go)
2024	갓세렝게티(God : Serengeti)	주식회사 와이즈발레단
2024	TIME IS SPACE SPACE IS TIME	언노운피에스(unknownps)

음악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2	김재훈의 P.N.O	김재훈컴퍼니
2022	창작 실내악 음악극 붕(鵬)새의 꿈	하늬바람
2023	민요 첼로 (MINYO CELLO)	임이환
2023	시선 si, Sonne!	주준영
2023	크로스 콘체르토 프로젝트	오예승
2023	UN/Readable Sound	가재발(이진원)
2023	In & Around C	무지카 엑스 마키나(Musica ex Machina)
2024	사라지네	아트그룹포네
2024	공기에 관하여	정진희

창작오페라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0	도시연가	대구오페라하우스
2010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강동아트센터
2011	나는 이중섭이다	코리안챔버오페라단
2011	천 년의 사랑	창음예술
2012	쉰 살의 남자	부평아트센터
2012	아리 아리랑	한오페라단
2013	루갈라	호남오페라단
2016	붉은 자화상	서울오페라앙상블
2017	1953	오페라앙상블C
2018	검은 리코더	(사)라벨라오페라단
2018	인형의 신전	영산오페라단
2019	김부장의 죽음 (원제: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페라뱅크
2019	까마귀 (원제:내가 까마귀였을 때)	라벨라오페라단
2020	뱀이 심장을 먹었어	김앤리프로덕션
2021	장총	서울오페라앙상블
2022	피가로의 이혼	그랜드오페라단
2022	피싱	(사)글로벌아트오페라단
2022	양철지붕	오페라팩토리
2022	사막 속의 흰개미	현대성악앙상블
2023	3과 2분의 1 A	울산문수오페라단
2023	이상의 날개	대전오페라단
2024	윙키	디아뜨소사이어티
2024	지구온난화 오페라 1.5도 C	한음오페라단
2024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	아트팜엘케이(Art Farm LK)

전통예술 분야 역대 선정작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16	거문고 스페이스	허윤정
2016	해미오와 금이에	해금연구회
2017	아리랑, 삶의 노래-흩어진 사람들2	사단법인 정가악회
2017	오셀로와 이아고	천하제일탈공작소
2017	완창판소리프로젝트1	이향하
2018	"생사의" - 죽음에 관한 삶의 음악	왓와이아트
2018	도공지몽-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악기 "훈"의 재발견	송경근
2018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송경근
2019	삼대의 판	천하제일탈공작소
2019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	입과손스튜디오
2019	8음(八音)	음악그룹 나무
2019	오래된 미래 : 내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이야기	해금플러스
2020	新 심방곡	신노이
2020	새판소리 <마당을 나온 암탉>	지기학
2020	울릴 굉 轟	임용주
2021	정가악회 콘서트 <탈춤은 탈춤>	사단법인 정가악회
2021	TIMER	연희앙상블 비단
2021	꼭두각시	음악동인고물
2022	RE: 오리지널리티	홍성현아트컴퍼니
2022	판소리 스토리 - 모파상 篇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2022	절 대목(大木)	연희공방 음마갱깽
2022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	공간서리서리
2023	만중삭만 - 잊혀진 숨들의 기억	라폴라예술연구소
2023	물의 놀이	groove&
2023	남성창극 살로메	김시화
2023	밤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Part. 2	불세출

선정연도	작품명	단체명
2023	무한수렴(無限收斂)의 멀티버스 -Multiverse of Infinite Convergence-	허윤정
2024	해원해줄게요: REMASTER	2N제곱
2024	남도 선소리 - 시를 읊다 <님이 침묵한 까닭?>중 中머리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정컴퍼니
2024	구라철사금(歐羅鐵絲琴) : 打	윤은화
2024	우리소리 바라지 창극 '돈의 신 : 神'	우리소리 바라지
2024	연희물리학 ver.1 '원'	임영호

17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극장장 강량원

극장운영팀
팀장 홍승욱
창작산실 기획·운영 박성은, 임재연, 박현정, 심정훈, 두송희
대관 김선욱, 임나래, 최예솔
홍보 이재일
제작·기획 이유진, 김자은, 황금실, 김태임, 변혜은
고객지원센터 신지혜
하우스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지우
티켓 이주담, 김지수, 이은혜, 강서연
시설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김부형, 진호택
무대예술팀
팀장 진용남
무대 유창대, 이동선,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김혜지, 이동현, 원소미, 이미현, 박영규
조명 이주환, 곽현주, 탁형선, 김병구, 이명한, 박선임, 박헌수
음향 도명호, 김경남,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유준상, 정하윤
무대기술 119 지원센터 신의정, 김희선, 고은비

협력사
홍보운영총괄 ㈜아이디어랩
홍보영상 제작 윈윈픽쳐스
공연영상 제작 한국영상연합
공연사진 김호근, 유경오, 옥상훈, 하지영
키비주얼 디자인스튜디오 파이카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2025.1-2025.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강북문화예술회관
구리아트홀
구름아래소극장
국립극장
당진문예의전당
더줌아트센터
대학로 SA HALL
서울남산국악당